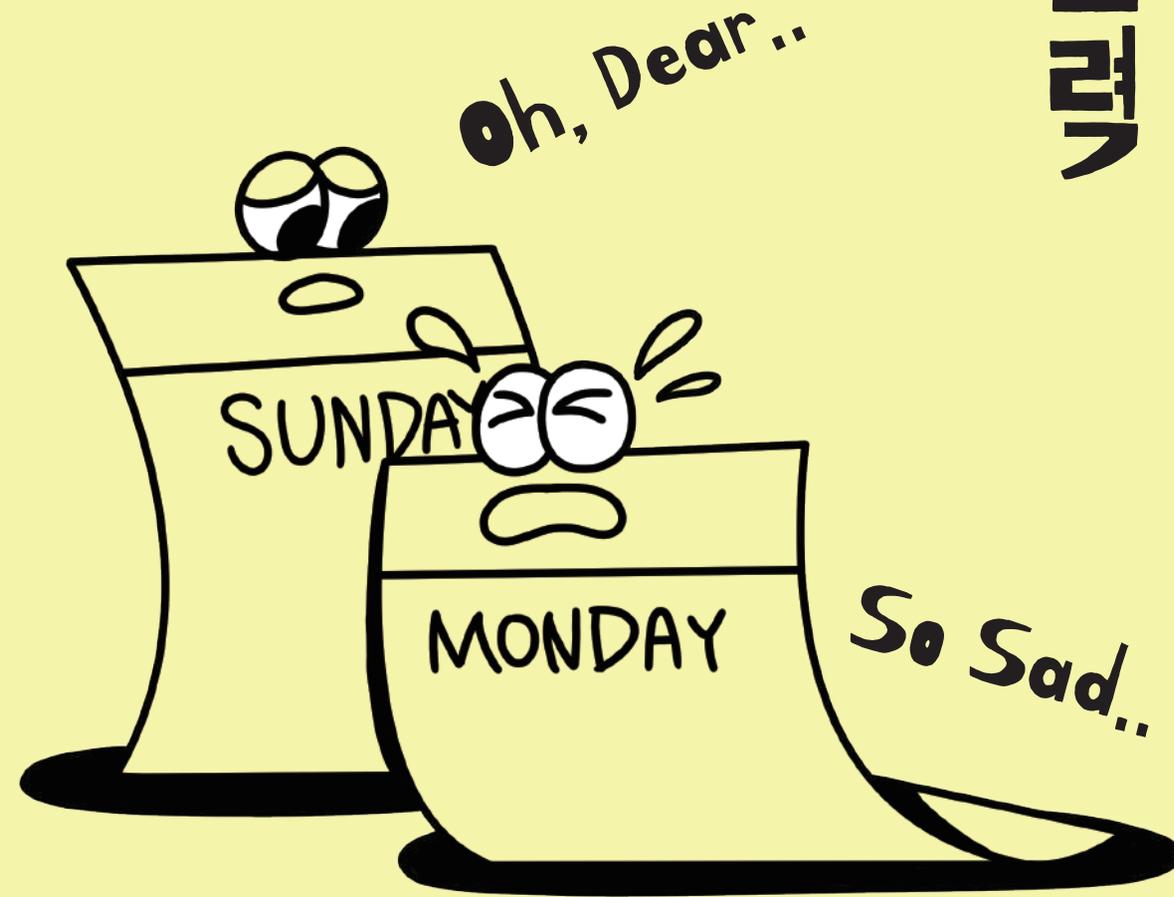


2024.
September
vol.469

—
이건과 이해를
넘어
또 하나의 우리

09
공감역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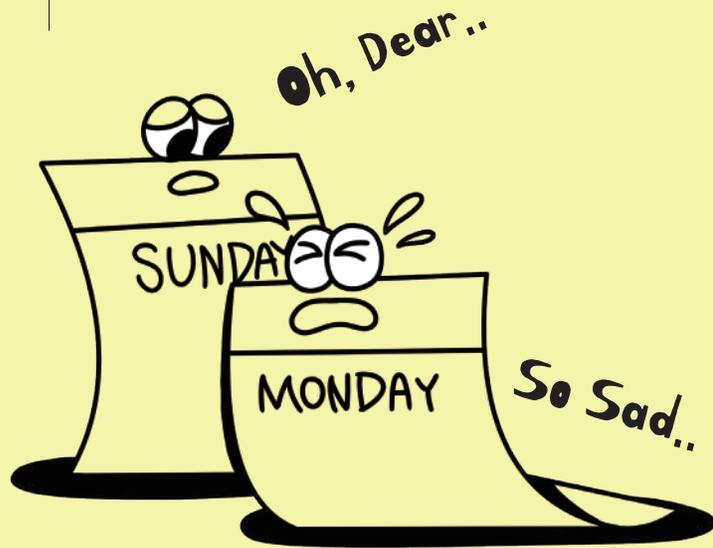
IBK MAGAZINE

with IBK | with WM | with 은퇴

Symphony

“그래”라는
한 마디에

단단해지는
너와 나





마음을

온전히 함께 느끼는 일

IBK가 존재하는 이유

Contents

2024. September
vol.469

내면의 힘(력力)을 더하고
서로의 마음(심心)을 나누는
IBK 시너지, 아홉 번째

공감력



IBK사보를
웹진으로 만나보세요

with IBK
IBK MAGAZINE

발행일 | 2024년 9월 2일
발행인 | 은행장 김성태
편집인 | 김태경
편집위원 | 이정현, 정누리
발행처 | 브랜드전략부
편집·디자인 | 더에이치(주)

* 외부 필자의 원고는 <with IBK>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with IBK>에 실린 모든 글과 그림, 사진은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10

에세이

“누군가 내 마음을 이해해 주는 것보다
더 큰 위안은 없다.”

12

IBK 양케이트

F와 T!

말투는 달라도 마음은 똑같아

20

타인의 생각

이해와 소통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 공감력

26

IBK가 만나다

나만의 리듬으로 표적과의 거리를 좁히다
사격선수 오예진

32

체크리스트

우리 뉴런을 공유할까?
공감력 테스트

34

IBK뜨끼

우리 콩 한 쪽도 나눠 먹는 사이! 하지만 콩마루에선 불가능!
⑨ 경기북부 편_콩마루

40

그곳에 가면(국내)

‘지붕 없는 미술관’의 비밀 정원
고흥 썩섬(애도)

46

그곳에 가면(해외)

에게해의 바람이 머무는 ‘축제의 섬’
그리스 미코노스



52

IBK산 ⑨

무더위쯤이야, 다 같이 함께라면
젊음을 무기로, 도봉산에 오르다!

60

IBK버킷리스트

캠핑의자 만들면서
우정도 더 단단하게

66

IBK동호동락

자연을 벗하고, 서로를 곁 하며
IBK동호회 ‘IBK 발로발로’

72

그때 그날 한 컷

9월에 일어난
이야기

74

헬스 케어

새치, 뺨지 말고
이렇게 관리하세요~

76

요즘, 시선

함께든 혼자든
즐거운 명절 트렌드

80

IBK 히어로

쌍방향 소통으로 고객에게 더 가까이!
옥천지점

90

히든챔피언

환자를 향한 따뜻한 진심, 정형외과 병원의 정통을 이어가다
평촌서울나우병원 정재윤 대표원장



96

IBK업글인

문장에
마음을 담는 시간

102

창공, 날다

꿈임없이 성장하는 IBK창공 기업
소리를보는통로, 트립소다, 다다닥헬스케어, 테라파이

106

잡학 사전

내 뱃살의 원인이
‘역방’이라고?

108

우리말 한 걸음

지금 내 다짐,
더 똑똑하게 기록하자!

188

HOT Issue 1

알고리즘에 잠식되지 않도록 조현서의 <Feed : Dam>

190

HOT Issue 2

IBK기업은행이 맺어준 사랑, 오래오래 행복하게

192

IBK뉴스

IBK기업은행 주요 소식

194

이달의 이벤트

다른 그림 찾기/표지 캐릭터를 찾아라

197

부록

헌 옷도 새 옷처럼! 얼룩 제거 꿀팁!



Contents

with WM

112
ISSUE BRIEFING 1
데이터 보호주의:
AI 시대의 새로운 현실과 대한민국의 대응 전략

118
ISSUE BRIEFING 2
요일제 공휴일의 도입,
경제적 파급효과는?

124
GLOBAL TOPIC
국제경제의 최고 관심사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

128
TAX GUIDE
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
미리 알아보는 절세 꿀팁!

132
CHANGING SYSTEM
금리에 억눌렸던 수요의
'작용과 반작용'

136
CLASSIC CLOUD
실례,
나르시시즘에 빠진 위험한 재능



Contents

with 은퇴

142
느림의 미학
늦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것
숙련기(熟年期)에 다다른 우리의 자세

148
마켓 이슈
요즘엔 '옛'것이
더 '힙'하다

154
건강코칭 닥터
행복한 마음가짐의 자세를 갖는 것이 파킨슨병 예방의 첫걸음
미래신경과의원 전성호 원장

160
글로벌 트렌드
우주 경제(space economy)의
현재와 미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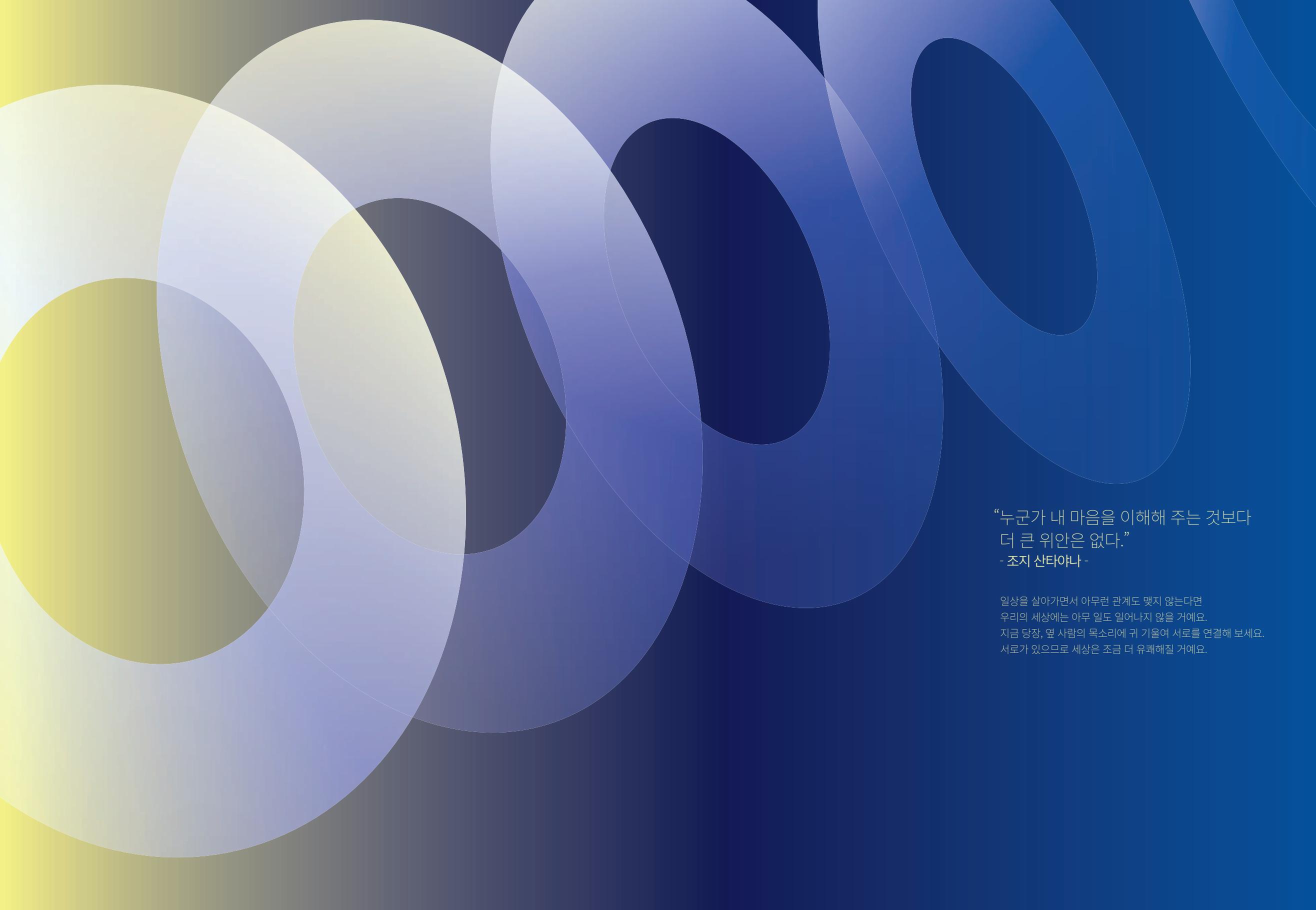
166
은퇴 다이어리
은퇴자금 4% 인출규칙,
제대로 알고 잘 활용하자

172
재무설계 플랜
서울과 주요 수도권 부동산 시장
불안 심리 커져

176
슬기로운 취미 생활
집에서 즐기는 물~멍~
보고 있으면 힐링되는 아쿠아스케이프!

182
컬처 스토리
요즘 감성과 낭만은 과거에서 찾는다
다시 유행하는 레트로 아이템





“누군가 내 마음을 이해해 주는 것보다
더 큰 위안은 없다.”
- 조지 산타야나 -

일상을 살아가면서 아무런 관계도 맺지 않는다면
우리의 세상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지금 당장, 옆 사람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서로를 연결해 보세요.
서로가 있으므로 세상은 조금 더 유쾌해질 거예요.

F와 T! 말투는 달라도 마음은 똑같아!

이제는 자기소개하면 빠지지 않는 MBTI! 그중에서 F와 T를 구별하는 질문들이 인기다. 과연 IBK인들은 감정이 우선일까? 이성이 우선일까? 공감하는 사람이 많을까? 해결하려는 사람이 많을까? F와 T! 말투는 달라도 마음은 다 똑같다!

본격 IBK인 F or T 구별법!



FFFF!
나는야 공감왕! **32.7%**

칼에 손이 베인 친구보다 더 아파하고, 꽃 선물이 아닌 내 생각을 해준 것에 더 감동하며, 약속 시간에 늦을 것 같다고 말하는 친구의 마음부터 공감해주는 F 100%가 1위를 차지했다. 문자에서부터 공감과 애정, 관심 그리고 자신의 감정이 다 느껴지는 F 100%의 찐~리액션을 본다면 F인 IBK인은 편안한 마음이 들 것이다. 상대방의 아픔과 기쁨과 슬픔과 행복에 큰 리액션을 선물하는 IBK인들 최고~

#F100% #공감이_필요해 #괜찮아?_아프지?_병원_가자



F>T!
감정에 이성 한 스푼! **29.2%**

F 100%의 리액션은 아니지만 그래도 공감과 다정한 말투가 먼저 나오는 IBK인들이 2위를 차지했다. 다친 친구에게 위로의 말보다 약부터 건네지만 “내 생각이 나서 꽃 선물했다”는 말에 무한 감동의 리액션을 보내는 당신! 이성보단 감정이 살짝 먼저 움직이는 80% F로 임명한다. 1위도, 2위도 모두 F가 차지했다! IBK인들은 모두 공감왕!

#F80% #F와T_그_중간 #하이드로콜로이드_밴드_줄게



TTTT!
내 말투가 어때서? **23.6%**

모든 질문에 다 “오..”로 대답하는 영혼 없는 리액션을 보아하니 T 100%? 칼에 손이 베인 친구에게 후시딘을 건넬지, 마데카솔을 건넬지 고민한다거나, “내 생각이 나서 사 왔다”는 꽃에 얼마인지부터 묻는다거나 “돈 아깝게 왜 사 왔냐”며 차가운 말투로 감동의 순간을 바사삭 깨버리는 T 100% IBK인들도 있었다. 그렇다고 상대방을 향한 마음마저 차가운 건 절~대 아니다. T의 말투로 마음을 판단하지 말 것!

#T100% #이성적인_판단 #아프겠다_근데_택배_뭐_시켰어?



F<T! 표현이 다를 뿐
마음은 진심! **14.5%**

F와 T 그 경계선에서 약간 T로 기울인 대답을 해준 IBK인들도 있었다.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고 담백한 표현으로 마음을 전하는 이들! 하지만 답변을 보니 가끔은 속마음과 다른 이야기를 해줄 때도 있는 것 같다. 꽃 선물에 너무나 고맙지만 사실 꽃에 감흥이 없는 정도? 말투는 조금 딱딱해도 마음은 F랑 똑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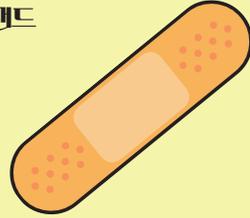
#T80% #담백한_표현 #앞으로는_조심해

Q.1

나 택배 뜯다가
칼에
손 베었어ㅠㅠ



워워...
완전 아프겠다ㅠㅠ
하이드로콜로이드 밴드
갓다 줄게!
#인프라금융부 류범파



피 닦고
연고 바르고
밴드 붙여

#송탄지점 방재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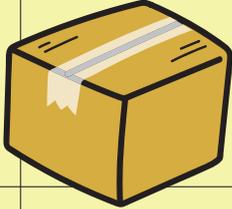
아이고 너무 아프겠다.
연고랑 밴드 좀 찾아볼게.
내가 갖고 있는 게
있을 거야!

#김포지점 국나영



아프겠다.
어떡해...
약 발라야겠다 ㅠ ㅠ

#대구경북서부지역본부 정은숙



무슨 택배
시켰는데?

#직원행복부 윤용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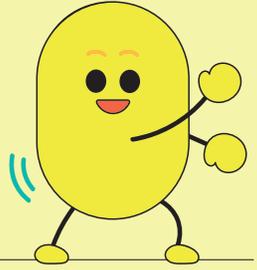
약!
이쁜 손
많이 안 다쳤어?

ㅠㅠㅠㅠ
(많은 말보다 걱정해 주는 마음!)
#잠실지점 정영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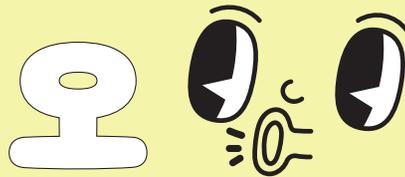


으그 ㅋㅋㅋ
뭘 샀길래
ㅋㅋㅋ

#오창지점 이유경



괜찮아?
많이 다친 건
아니지ㅠㅠ?
아프겠다 ㅠㅠㅠㅠ
#구월동지점 이지연



워 샀는데?

#기업디지털사업부 황재용

약 바르고
반창고
붙여

#IT기획부 이승환



에구구~~ㅠㅠ
많이 안 다쳤어? 얼른 지혈하고!
고기 먹자 고기! 피나서 어지러울라...

#역곡지점 양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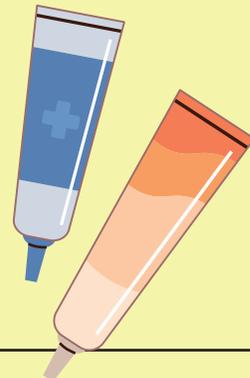
많이
다쳤어? ㅠ

#화성마도지점 이은주



베었을 때
후시딘인가?
마데카솔인가?

#동수원지점 김은미



어트케!!!
내가 호~~~해줄게!!
반창고 어딴더라

ㅠㅠㅠㅠ~~~
#삼성동지점 김영은



조심하지~
아파서
어떡하니 ㅠ ㅠ

#가산테크노지점 최성희



Q. 2
지나가다
꽃이 예뻐서
너 주려고 샀어!



어머!!
너무 감동이다.
고마워><
꽃말 찾아봐야지~

#발안산단지점 한정아



고마워...
근데 다음부터
돈 아까우니까
사지마~

#과천지점 이양희

고마워
감동이야

#금호동지점 기윤희



고마워 사랑해

#프로세스혁신부 강유영



진짜 느므느므 이쁘다...
꽃 선물 처음이야ㅠㅠ
그리고 내 생각을
하다니ㅠㅠㅠ

#인천항지점 홍정미

깅!!!
고마워

#마산지점 권오화



정말 고마워
예쁘다~
(갑자기 왜?)

#녹산공단기업금융센터 강동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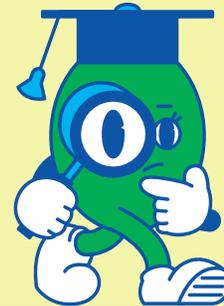


고마워
내가 좋아하는 꽃인데~
센스 좋으네!

#비산동지점 김준우

꽃보다
네 마음씨가
더 예쁘다

#아현역지점 김시은



요즘엔
이렇게 사면
얼마야?

#부평지점 이상섭



와우~!
정말 감동이다!

#IBK고객센터 한지연

오...
고마워...
감동이다

ㅠㅠ

#자산관리사업부 김현진



남편도 안 해주는 걸..
너가 감동을
주는구나ㅠㅠ
(눈물 뚝뚝)

#테헤란로중앙지점 양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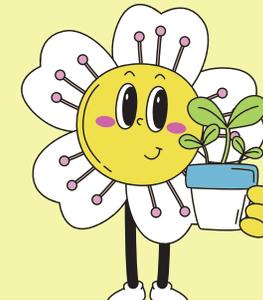
돈으로 주지
아쉽다...

ㅠㅠ

(라고 생각만 합니다.

진짜로..!)

#일산마두점 유병성



나 꽃 좋아하는 거
어떻게 알았어??!!

정말 고마워 ㅠㅠ

감동이야 ㅠㅠ ㅠㅠ

#IBK고객센터 최민영



Q. 3

**나 오늘
약속 좀
늦을 것 같아**



OO 천천히 와

#문래동지점 김진미



아 왜? 그럼 몇 시?

#여신관리부 한지희



천천히 와~~~~! 나도 아직 가는 중!

(이미 다 와서 주차장에서 대기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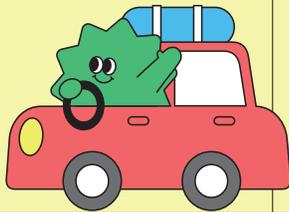
#녹산공단기업금융 최윤희



괜찮아.

쉬고 있을 테니 안전 운전해서 조심해서 와

#송현동지점 권정자



왜?

#홍대역지점 전성희



아.놔.

#대연동지점 이하진

그래, 조심히 와 이따 보자

#경수지역본부 오병석



무슨 일 있어?

#정관지점 김한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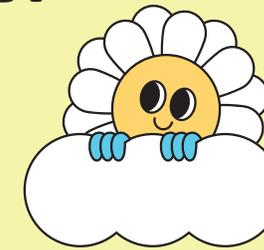


얼마나? 을 때까지 기다릴 테니 천천히 오서~~

#목동사거리지점 정영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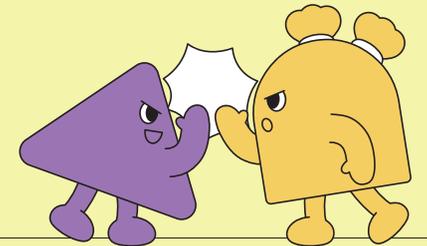
많이 늦었?

#오창지점 서두리



혁 무슨 일 있어? 괜찮으니까 천천히 와!! 다른 날로 잡아도 돼!

#가산디지털역지점 이모권



괜찮아! 무슨 일 있는 건 아니지!? ㅠ ㅠ

너무 무리하지 말고 천천히 와~

나는 근처 코인 노래방에서

시간 보내고 있을 테니까!

진짜 부담 갖지 말고 편하게 와!

조금 이따 보자 ㅎㅎ

#서초남지점 임현아



어디쯤인데? 몇 분 정도 더 걸려? 조심히 와

#김포장기지점 서의정



오케이 조심히 와

#방배동지점 허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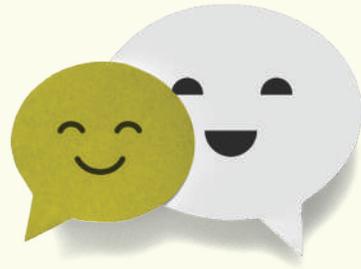
에고 무슨 일이 있나 보네?

ㅏㅏ

#광고지점 신혜수



이해와 소통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 공감력



인간은 본질적으로 감정의 동물인 동시에 사회적 동물이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은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으며 관계와 소속에 대한 욕구를 갖고 있다. 이 사회적 욕구는 공감을 통해 친밀감을 느끼고 정서적 안정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상황의 더 악화시키는 공감 결여

누군가는 공감하는 것이 뭐 그리 어려운 일이나고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 공감을 경청의 과정 없이 단순히 고개만 끄덕이며 들어주는 것으로 이해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감 능력을 갖추는 일은 쉽지 않다. 공감 능력은 인간 내면의 본질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공감은 타인의 입장에서 그 사람이 경험하는 감정이나 심리상태를 이해하고 내적 경험을 함께 느끼는 것으로, 감정적 교감을 넘어 신뢰와 협력의 기초를 마련해주는 인간 고유의 능력이다. 따라서 타인의 의견에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공감의 태도는 대인관계의 질을 높이는 것은 물론, 공동체의 다양한 이해관계와 요구를 조화롭게 수용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다른 사람의 입장이나 필요를 이해하는 것도 공감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으며, 상대방을 배려하는 이타적인 행동도 공감에서 비롯된다. 이처럼 공감은 대인관계와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위력을 발휘한다. 반면, 공감력이 결여되면 가장 가까운 가족 또는 직장 내 동료 관계나 친구 사이도 악화시킬 수 있다. 이를 잘 보여주는 사례가 있다. 작은 골목에 있는 분식점과 과일가게는 쓰레기 문제로 지주 갈등을 겪었다. 어느 날, 두 가게의 주인 간에 큰 언쟁이 벌어졌고, 주변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타인의 의견에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공감의 태도는 대인관계의 질을 높이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때, 분식점 가족은 눈을 부라리며 목소리를 높여 자기 가족 편을 들었다. 그러나 뒤늦게 나타난 과일가게 가족은 분식점 주인에게 “불편을 끼쳐 죄송하다”라며 고개까지 숙이고 사과했다. 그러고는 자기 가족에게 화를 내며 그를 데려갔다. 이런 상황에서 과일가게 가족의 태도가 싸움을 멈추게 하려는 좋은 의도였다고 볼 수 있을까? 과일가게 주인은 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자신에게 타박을 준 가족으로 인해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꼈고, 그 일 이후 심리적인 고립과 정서적 불안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했다. 평소에도 상대의 기분이나 정서, 그리고 감정에 대해 무관심한 가족에게 그동안 쌓여있던 분노가 한꺼번에 폭발하여 병까지 얻은 것이다. 만약 그의 가족이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고 공감해주는 가족이었다면 그날 하루의 일로 병이 나진 않았을 것이다.



마음가짐에 따라 달라질 수도

몇 해 전 공감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 한 수강생은 자신의 친구에게 고민하던 문제를 어렵게 털어놓았는데 얘기가 채 끝나기도 전에 “별것도 아니네! 나와 비교하면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라며 본인 얘기를 계속 늘어놓더라고 했다. 그는 제대로 듣지도 않고 사정을 알려고도 하지 않은 친구의 태도에 실망했고, 그 이후 두 사람의 관계는 소원해졌다. 또 다른 수강생은 자신의 생애에서 손꼽을만한 좋은 일이 있었을 때, 공감하지 않은 친구와 절교했다는 사례를 발표했다. 그의 아들은 허약한 신체지만 공부를 곧잘 했다. 고입 입시를 앞두고 성적의 기폭이 심해 걱정이 많을 때도 있었지만, 결국에는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외고에 합격하게 되었다. 그는 주변에서 다 알 만큼 친한 친구에게 아들의 합격 소식을 전했다. 친구가 자신의 기쁜 마음만큼 같은 마음으로 공감해 주리라고 생각했는데 친구의 반응은 의외로 냉담했다. 게다가 “요즘 외고는 인기가 없다. 대학을 잘 가야지!”라면서 자신이 상상했던 것과는 다른 반응을 보였다. 당시 이해할 수 없는 친구의 태도에 한동안 혼란스러움을 겪었다며, 예전과 같은 관계를 이어갈 수 없었다고 했다. 관계의 깊이와 진정성이 드러나는 이러한 사례는 주변에서 흔하게 겪을 수 있는 일이다.



Sincer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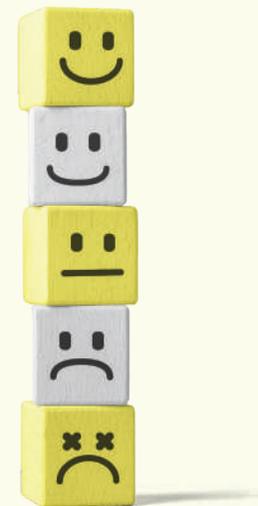


슬프고 고통스러운 일에 대한 공감은 비교적 쉽지만, 타인의 행복에 진정으로 공감하는 것은 훨씬 더 복잡하고 어려운 일이다.

공감은 누군가의 심정을 이해하고 헤아려주는 것이지만, 친구나 지인의 성공은 때로는 예상치 못한 감정을 불러일으키곤 한다. 인간의 심리가 합격이나 승진 등 좋은 일에 자기 일처럼 기뻐하고 축하해줄 것으로 기대하지만, 현실에서는 오히려 시큰둥하거나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경우들이 있다. 슬프고 고통스러운 일에 대한 공감은 비교적 쉽게 반응하지만, 타인의 행복을 진정으로 함께 기뻐하고 공감하는 것은 훨씬 더 복잡하고 어려운 일이다. 이는 인간의 본능적인 비교심리와 시기, 질투, 그리고 어쩌면 자신의 상황과 비교했을 때 느껴지는 박탈감 때문일 수 있다. 그의 친구 역시 친구 아들의 합격을 축하하기보다는 그 합격을 깎아내리고 싶은 충동을 숨길 수 없었던 것이다. 친밀하니까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관계라고 생각하는 것은 현실에서 매우 이상적인 모습이다. 그러나 인간은 각자의 감정과 상황이 얽혀 있으므로 늘 이상적인 공감 수준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 사례 역시 공감 부족이 인간관계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잘 보여주는 예이자 우리의 삶 속에 끊임없이 상존하는 일이다. 공감을 할 줄 몰라서이기도 하고, 의도적으로 공감하기 싫은 경우들이기도 하다.

행복을 두 배로 만드는 공감력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여러 상황에서 공감을 원하고 배우자, 부모, 자녀, 친구, 동료 등 안전한 관계에서 더욱 지지를 얻고 싶어 한다. 감정적 이해를 받음으로써 위기나 스트레스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또한 기쁨을 공감하는 것은 개인의 긍정적인 감정이나 성취감 그리고 행복을 공유함으로써 더욱 바람직한 관계로 발전하기 때문이다. 반복하건대, 공감은 고통을 나누는 것과 함께 기쁨을 축하하고 즐기는 과정에서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의미다.





이와 같은 공감 능력은 일상적인 대인관계뿐만 아니라 사회적 환경에서도 드러난다. 현재도 세계 여러 지역에서 전쟁으로 인해 수백 명이 죽어가고 있다는 뉴스가 들린다. 과연 사람들은 이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나와 상관없는 사람들의 죽음과 고통을 보면서 많은 사람이 슬퍼하고 가슴 아파한다. 또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을 보면 자기 일처럼 분노하고 때로는 그들을 위해 같이 행동하는 사람들도 있다. 부당한 일에 대한 반감을 지니며, 타인의 고통과 불의를 목격할 때, 그것이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두려움을 느낀다. 다시 말해 부당한 상황에 맞서 행동하는 것은 인간의 공감 능력, 정의감, 그리고 사회적 연대의 결과이다. 이러한 대응은 사회가 더 정의롭고 안전한 곳이 되도록 하는 데 공헌하며, 자신과 타인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본능적인 반응이다. 이를테면, 이런 감정은 사회 정의를 추구하는 동력을 제공하며, 공동체 내에서 공의가 실현되도록 행동하게 만드는 것으로 인간이 가진 공감 능력에서 비롯된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공감도 배워야 하는 시대

심리학자인 마틴 호프만은 ‘공감은 발달적인 측면에서 도덕성의 핵심’이라고 주장한다.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고 그들의 처지를 고려하는 능력은 도덕적 행동과 윤리적 판단의 기초가 된다는 의미다.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는 논리로 발달심리학에서도 공감이 인간의 도덕적 발달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밝히고 있다. 공감은 도덕적 행동을 유도하는 심리적 메커니즘으로 작용하고, 규범 형성과 내면화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곧, 공감은 인간의 사회적 본성, 생존 본능, 도덕적 판단, 그리고 정신적 건강과 깊이 관련되어 있으며 이외에도 동정, 관심, 친절, 사랑 등 다양한 정서적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들은 공감이 개인의 도덕적 발달뿐만 아니라 사회적 상호작용의 전반적인 질을 향상하는 데 필수적임을 시사한다.

부당한 상황에 맞서 행동하는 것은 인간의 공감 능력, 정의감 그리고 사회적 연대의 결과이다. 이러한 대응은 사회가 더 정의롭고 안전한 곳이 되는 데 공헌한다.



Solidarity

따라서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유하는 과정은 선천적인 감정만으로 이루어지는 성품이나 인격의 문제가 아니다. 일반적인 감정 이상의 복합적인 능력을 요구한다. 인지적 능력, 감정 조절 능력, 의사소통 능력, 사회적 경험과 학습 그리고 윤리적 판단과 도덕성 등이 모두 공감 능력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인간의 인성은 노력 없이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미래세대에 필요한 핵심 역량인 창의성과 인성을 갖추기 위한 토대가 공감이다. 인간다움을 실천하는 진실한 도구이며 정서적이고 지적인 능력인 것이다. 개인주의를 존중하는 현대사회야말로 타인의 얘기를 경청하고 타인의 감정을 인식하고, 타인의 관점을 수용하는 공감 능력이 바로 실력인 시대이다.

거듭 강조하건대, 공감 없이 자신의 철학으로 상대방을 분석하고 평가하지 않기를, 공감이 없어서 서로를 돕지 않고 타인의 고통에 무관심하지 않기를 희망한다. 이러한 태도가 만연하여 타인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없는 사회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 공감은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하며, 이는 결국 자신에게 평안을 가져다주고 더 나아가서는 이 사회의 평화에 기여한다. 우리는 지금 공감도 배워야 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글. 위유미 원장

인성교육진흥원 원장이다. 한국생명존중법연구회 이사, 인성교육진흥원 사무총장을 역임했다. 특히 2018년에는 학교폭력문제 해결을 위해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세계청년리더총연맹이 수여하는 ‘2018 SVE 특별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Oh Ye Jin

나만의 리듬으로 표적과의 거리를 좁히다

사격선수 오예진

‘2024 파리올림픽’ 무대에 선 오예진 선수는 긴장이란 찾아볼 수 없는 얼굴로 올림픽 신기록을 세웠다. 여자 10m 공기권총 종목에서 대한민국 최초로 금메달을 거머쥔 오예진 선수. 뜨거운 여름을 더 뜨겁게 만들었던 그날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Q. 안녕하세요! 먼저 오예진 선수님의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격 국가대표 오예진입니다. 이런 뜻깊은 자리에 제 이야기를 전할 수 있어 너무 뿌듯합니다.

Q. 먼저, 사격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중학교 1학년 5월쯤일 거예요. 친구가 갑자기 “학교에 사격부 있다는데, 알고 있었어?”라고 묻는데 호기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친구와 같이 사격부를 방문하게 됐고, 테스트 겸 “한 발 쏘 봐”라는 감독님의 말씀에 인생 처음으로 사격을 해봤어요. 근데 총을 쓰고 난 후 오는 반동이 너무 신기하고 재미있는 거예요. 그래서 코치님에게 “또 해봐도 돼요?”라면서 연말에 사격했던 기억이 나요. 그때 코치님이 저한테 오시더니 “제대로 배우면 사격 잘할 것 같다. 같이 해보지 않겠니?”라면서 입단을 제안

하셨어요. 처음 해보는 운동임에도 너무 재밌어서 코치님의 제안을 받아들였고 그때부터 사격선수의 길을 걷게 됐습니다.

Q. 많은 사격선수가 있지만, 그중 가장 닮고 싶은 선수가 있을까요?

저의 고등학교 코치님이자 ‘2024 파리올림픽’ 사격 국가대표 공기권총 코치님이신 홍영욱 코치님을 제일 닮고 싶어요. 제2의 엄마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은 시간을 보내고, 깊은 대화를 나누고 있거든요(웃음). 학창 시절을 보낸 제주엔 정식 사격장이 없다 보니 기본 공기권총 10m 외에 다른 종목을 연습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 환경 속에서 책임감과 열정 하나만으로 저를 국가대표로 키워주신 것에 대해 정말 감사하다는 말, 이 자리를 빌려 드리고 싶고, 저도 코치님의 그러한 열정을 본받아 계속해서 무(無)에서 유(有)를 창조하는 선수가 되고 싶어요.



Q. 경기나 연습이 끝난 후, 어떻게 리프레시 하시나요?

제가 드라마 정주행하는 걸 무척 좋아해요. 요즘엔 운동 관련된 드라마를 챙겨보고 있어요. 그래서 경기나 연습이 끝난 후엔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드라마를 봅니다. 특히, 마라탕이랑 닭발을 즐겨 먹는데 매운 음식을 먹어서인지 스트레스가 더 잘 풀리는 것 같더라고요. 운동 선수라고 해서 특별한 리프레시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 저도 다른 분들과 똑같이 친구들을 만나고, 맛있는 거 먹고, 집에 편히 누워 좋아하는 드라마를 보거나 좋아하는 노래를 들으면서 힘을 얻어요.

Q. ‘2024 파리올림픽’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1년 전, 금메달이 목표라고 말씀하셨고 이번 대회에서 신기록까지 세우며 그 꿈을 이루셨습니다.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2024 파리올림픽’을 앞두고 인터뷰에서 금메달을 목표로 한다고 말했고, 지금 그 목표를 달성해서 무척 신기하고 기쁩니다. 하지만 금메달을 땀다고 여기서 끝이 아닌 더 많은 대회, 더 큰 대회를 준비해야 하기에 앞으로의 순간들에 더 집중하려고 해요.

Q. 사격 경기 중 관객들의 박수 소리가 생각보다 컸는데 힘들진 않았나요? 주변 소음 등 외부에 흔들리지 않는 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소음 같은 경우엔 국내대회를 통해 적응 훈련을 했어요. 그래서인지 국제대회에서의 소음은 저에게 큰 걸림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박수치고 환호해주셔서 더 큰 힘을 얻을 수 있었어요. 이제는 조용한 게 오히려 어색할 정도예요(웃음). 가끔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한 경기에서 저렇게 소리를 질러도 되나?”라고 궁금해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렇게 해도 되고,

선수들에게 정말 큰 힘이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Q. <with IBK> 9월호 주제는 ‘공감’입니다. 많은 국민이 올림픽 당시, 선수님의 마음에 공감하며 선수님을 응원했습니다. 응원해주신 국민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먼저, 저희 대표팀을 믿고 응원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사격이 비인기 종목이다 보니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응원해주실 줄 몰랐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응원을 해주셔서 정말 감동이었어요. 앞으로도 지금처럼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더 열심히 훈련해서 좋은 성적으로 꼭 보답하겠습니다.

Q. 그렇다면, 선수님에게 있어 가장 필요한 공감과 응원은 무엇인가요?

저는 길게 늘어진 응원을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그냥 심플하게 “할 수 있어” 아니면 “너 잘하고 있으니깐 하던 대로만 해”라는 말이 제일 응원이 되고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스스로에게도 ‘할 수 있다’, ‘재밌게 해’, ‘즐거’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Q. 선수님의 루틴이 소소한 화제입니다. 새콤달콤 레몬맛을 먹는 게 루틴이라고요. 이러한 루틴은 언제 생겼고 어떤 안정감을 주는지 궁금해요.

원래는 루틴이 없었는데 동기들이랑 같이 이야기하다 “좋아하는 걸 루틴으로 만들어 보자”라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제가 원래 새콤달콤을 좋아해서, 하루는 새콤달콤을 먹고 시합에 나갔는데 뭔가 잘 풀리는 기분이 들어 그때부터 새콤달콤을 루틴처럼 먹고 있어요. 좋아하는 간식이라 그런지 먹으면 긴장도 풀리고, 웃음이 나는 것 같아 아직도 이 루틴을 유지하고 있습니다(웃음).



앞으로도 지금처럼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더 열심히 훈련해서 좋은 성적으로 꼭 보답하겠습니다.

사격선수 오예진이 <with IBK> 독자들에게 전하는 메시지

‘2024 파리올림픽’ 시작 전, 부담감이 컸는데 여러분의 응원 덕분에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남은 경기가 더 많은 만큼 지금처럼 열심히 훈련해서 어떤 무대에서든 IBK기업은행을 더욱 빛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Q. 사격은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한 스포츠 중 하나죠. 집중력을 높이기 위해선 몸 관리에도 최선을 다해야 할 것 같은데요. 평상시 몸 관리는 어떻게 하시나요?

저는 일단 한쪽 팔을 들고 쏠 때 다른 선수들에 비해 유독 목을 앞으로 많이 내밀고 왼쪽 어깨를 당기면서 쏘서 그런지 왼쪽 승모근 통증이 심해요. 그래서 승모근을 풀어주기 위해 꾸준히 스트레칭하고 있고, 과거 오른쪽 발목 인대가 늘어난 적 있는데 최근 또 통증이 올라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Q. IBK기업은행 사격단 소속입니다. 어떻게 입단하게 되셨는지 궁금해요. 그리고 후원 등에 대한 감사의 말씀을 전하신다면요.

사격의 매력에 깊이 빠지게 됐을 즈음, IBK기업은행 실업팀을 알게 됐어요. 선수들을 위한 IBK기업은행의 지원도 마음에 들었는데, 감독님과 코치님도 제가 평소 존경하는 분들이어서 입단을 희망하게 됐습니다. 그때가 아마 고등학교 2학년이었는데 그때부터 IBK기업은행에 들어가고 싶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후 몇몇 대회에 출전해 좋은 성적을 거두다 보니 운 좋게도 IBK기업은행에서 먼저 입단 제안을 주셨고, 감사한 마음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Q. 선수님의 앞으로의 계획이 궁금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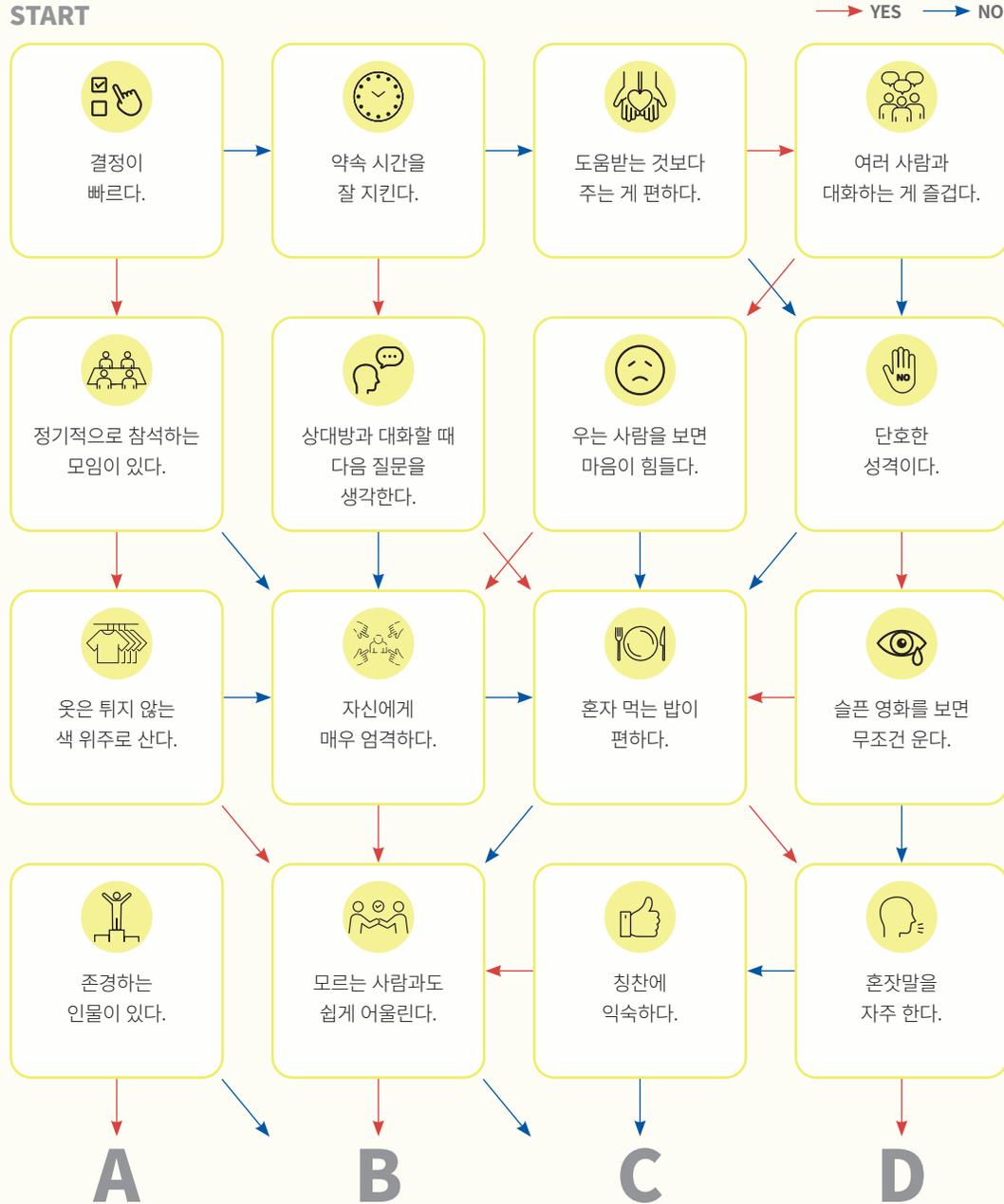
전국대회와 국가대표 선발전이 코앞으로 다가와 훈련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실 틈 없이 이어지는 대회 일정이지만, 금메달이라는 좋은 결과를 내서 그런지 힘들지 않네요(웃음). 올림픽 금메달에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 골드 그랜드 슬램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저만의 속도와 리듬에 맞춰 지금보다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오예진 사격선수
대한민국 사격 국가대표다. 여자 10m 공기권총 세계선수권대회 3위를 기록했다. '2024 파리올림픽' 여자 공기권총 10m 결선에서 243.2점을 쏘 올림픽 신기록을 달성하며 우승을 차지했다.



우리 뉴런을 공유할까? 공감력 테스트

START



상대방과 조금 더 가까워지기 위해선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해야 한다.
나는 상대방의 마음을
얼마나 이해하고 공감하고 있을까?



공감력 100%, 공감으로 산다

당신은 혼자보다 함께일 때 더 빛나는 유형이다. 자신의 의견이 팀원과 어긋나면 접점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모란 생각을 유연하게 다듬을 줄 아는 것이 당신의 특성이다. 여러 사람과 마음을 모으는 데 100% 집중력을 발휘하며, 뛰어난 리더십으로 결정을 내린다. 공감의 중요성과 그 방법을 완벽하게 꿰뚫고 있다.



공감력 70%, 조화로운 공감력

공감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혼자만의 사색도 필요한 당신! 뛰어난 공감 능력과 충만한 배려심이 합심의 원동력이라 생각하는 당신은 공감이 필요한 순간에는 있는 힘껏 공감력을 발휘한다. 타인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의 마음을 토닥인 시간만큼 자신을 돌본다면 분명 다음번 공감을 위한 힘이 비축될 것이다.



공감력 50%, 공감은 선택일 뿐

목적지향형 공감을 추구하는 당신은 공감하는 것을 업무의 옵션으로 여긴다. 목적에서 벗어난 회의와 결과 없는 토론을 경계하는 당신! 빠르고 효율적인 업무 스타일이 장점이지만, 때로는 선을 긋는 모습이 상대방에게 냉정하게 보이기도 한다. 공감할 때 더 큰 시너지가 발생하는 만큼 상대방에게 조금만 더 마음을 열어보자.



공감력 30%, 인생은 마이웨이

자신의 속마음을 잘 터놓지 않는 당신. 공감을 바라기보단 자신만의 스타일대로 문제를 해결할 때 더 큰 기쁨을 느낀다. 독립심이 강한 성격이라 굳이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려 애쓰지 않는다. 때로는 이 같은 모습이 강한 카리스마처럼 보이지만, 더 나은 성과를 내고 싶다면 팀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보자.



우린 콩 한 쪽도
나눠 먹는 사이!

하지만
콩마루에선 불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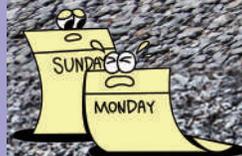
⑨ 경기북부 편_콩마루



QR코드를 스캔하면
<with IBK>를 영상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IBK트끼 9번째 맛집으로
서울에서 가깝고도 먼
경기 북부 포천을 찾았다.
도로 한쪽에 우두커니
서 있는 오늘의 맛집은
평일 오전부터 웨이팅이
한창이다. 오늘의 IBK트끼
주인공들이 모두 입을 모아
외친다. ‘두부’가 이렇게
맛있을 줄이야!

A Fantastic Taste





IBK쓰끼로 기분 전환~!

드디어 9월이다! 하지만 IBK쓰끼 촬영일 기준 아직 뜨거운 햇살과 맴맴~ 울어대는 매미 소리에 이 더위는 도대체 언제 끝나는지, 가을은 오긴 하는 건지 연신 “너무 덥다!” 소리만 자꾸 나온다. 이런 무더위에도 맛있는 여행 떠날 생각에 아침부터 버스 타고 멀리 경기 북부 포천까지 달려온 IBK인들이 있다. 바로 일산덕이지점 김윤호 대리, 일산중앙지점 김완 대리, 디지털혁신부 신민선 대리, 석암지점 하재구 대리다. “제가 인천에서 근무하고 있어서 원래는 동기들을 인천으로 부르고자 인천 편을 지원했는데 아쉽게도 떨어졌어요. 그럼 아예 기분 전환할 겸 교외로 나가는 것도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경기 북부 편으로 다시 신청했는데 다행히 당첨돼서 동기들과 좋은 추억도 쌓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자 달려왔습니다!” 원하던 인천 편에는 떨어졌지만 원영적 사고로 “오히려 좋아~!”를 외치며 럭키쓰끼를 실천한 하재구 대리.



덕분에 낯선 지역에서 맛있는 여행을 하는 설렘을 얻었다.

“IBK쓰끼요? 행내에서 반응이 아주 좋아요. 지점 동료들에게 IBK쓰끼에 나간다고 하니깐 유튜브에 언제 올라오는지 꼭 알려달라고 하더라고요. 모두 모여서 바로 확인하겠다고요(웃음). 다음에 기회가 있다면 출연하고 싶다는 분들도 많았어요. 이렇게 인기 많은 IBK쓰끼에 나오게 돼서 영광입니다!”

행내 IBK쓰끼 반응이 어떠한지 묻자, 김윤호 대리가 IBK쓰끼에 참여한 소감과 함께 행내 반응을 전했다. 카메라 앞이 어색하지만 언제 이런 색다른 경험을 해보겠냐며 신민선 대리도 소감에 힘을 실었다. 모두 공감의 끄덕임을 보여주며 들뜬 마음으로 오늘의 맛집 ‘콩마루’에 도착했다.

이 집 두부! 잘하네~!

콩마루는 이름에서부터 알 수 있듯이 두부보쌈부터 손두부전골, 짜글이, 청국장, 콩비지, 콩국수 등 다양한 콩 요리를 전문으로 하는 곳이다. 아직 오픈 시간이 되지도 않았는데 손님들이 기다리고 있는 맛집은 처음이었다. 두부가 얼마나 맛있길래 그럴까? 반신반의한 마음이 들었지만, 두부를 한 입 먹은 순간 내가 알던 두부가 아니었다.

“와 두부가 정말 맛있네요. 씹었을 때 너무 쉽게 흐트러지지도, 너무 딱딱하지도 않은 식감이 일품이고요. 콩 비린내도 없고, 고소한 맛이 부담 없이 올라와서 그냥 아무런 양념도 묻히지 않은 두부 그 자체로도 최고의 요리네요.”

하재구 대리가 콩마루 두부 맛의 포인트를 콕 짚어 깔끔하게 맛을 표현했다. 역시 미식가다운 평가다. 이어서 갯잎을 들어 두부와 고기, 김치를 얹어 보쌈을 싸 먹는다. 입안 가득 퍼지는 극강의 고소함과 담백함은 두부와 고기의 환상적인 콜라보가 만들어낸 결과다.

“직접 만든 손두부라고 하는데 정말 맛있어요. 그냥 먹어도 맛있지만, 두부전골은 감칠맛까지 더해져 맛이 배가 되는 것 같아요. 저희를 IBK쓰끼로 이끌어 준



티라미수 케익? 두부가 더 맛나

재구 대리에게 감사함을 전하고 싶은 맛입니다.” 평소 셀카도 찍지 않아 IBK쓰끼 촬영이 매우 걱정되던 김완 대리도 막상 촬영을 시작하고 두부전골을 먹자마자 다이내믹한 표정과 멋진 리액션으로 맛있음을 표현해주었다. 두부가 이렇게 맛있을 줄이야! 모두가 만족하는 두부요리였다.

알고 보니 우리 모두 TTTT!!

벌써 입행 2년 차가 된 IBK인들의 고민도 들어보고, 모두 다 다른 지점에서 온 만큼 각 지점의 특징과 자랑도 들어보는 등 식사를 하면서 다양한 토크 주제가



이어지는 가운데 MBTI를 주제로 F와 T를 구분하는 질문이 나왔다. 하재구 대리에게 물었다.

“나 연인이랑 싸웠어ㅠㅠ”

“니 알아서 해”

너무나도 차가운 대답에 이건 T 문제가 아니라 인성 문제가 아니냐며 아주 잠깐의 이슈가 있었지만, 자세한 이야기를 듣는다면 성실히 조언할 텐데 원래 남의 연애에는 왈가왈부하지 않는 게 좋다는 하재구 대리만의 원칙에서 나온 대답이었다. 하지만 다행히 네 사람 모두 T였기에 아무도 상처받지 않았다는 사실! 이후 이모티콘 영화 퀴즈가 진행되고 젊은 MZ 대리들답게 어렵지 않게 문제를 모두 맞히며 보상으로 받은 콜라를 마시는 동안 맛있는 여행도 마지막을 향해 달려갔다.

“오늘 정말 즐겁지 않았나요? 맛도 맛있지만 즐겁고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식사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데, 여러분들을 보니 오늘 정말 서로에게 최고의 식사가 되지 않았을까 싶네요.”

MC 손민혁 님 말대로 IBK에서 만나 소중한 인연이 된 서로가 함께했기에 최고의 식사, 최고의 시간이 되었다. 10년, 20년 앞으로 은행 생활도 즐겁게, 식사도 맛있게 서로 함께하기를! 이들의 은행 생활과 우정을 응원한다!



‘IBK트끼’에 함께한 소감 한마디!

일산덕이지점 김윤호 대리

서로 바쁜 와중에 IBK트끼 덕분에 얼굴도 보고, 근황도 얘기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정말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디지털혁신부 신민선 대리

은행 생활 속에서 이렇게 동기들과 식사하며 재밌는 추억을 남길 수 있다니..! 애사심이 더 커졌습니다! IBK트끼 덕분에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석암지점 하재구 대리

동기들과 이렇게 좋은 추억을 남길 수 있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2025년 IBK트끼 시즌2 기원 1일 차! 여러분 내년에 시즌2가 생긴다면 꼭 신청하세요!

일산중앙지점 김완 대리

동료 및 선후배와 함께 소중한 추억을 만들고 싶다! 색다른 경험을 해보고 싶다! 맛집 탐방을 좋아한다!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IBK트끼는 무조건 신청하세요!



콩마루

☺ 두부보쌈, 손두부전골

📍 경기 포천시 군내면 포천로 1501

☎ 031-532-2234

사진 왼쪽부터 김윤호·신민선·하재구·김완 대리

‘지붕 없는 미술관’의 비밀 정원 고흥 속섬(애도)

‘지붕 없는 미술관’이라 불리는 전남 고흥은 청정 자연을 잘 간직한 고을이다. 높은 산과 바다, 크고 작은 섬이 어우러진 다도해가 예술 작품처럼 아름답다. 속섬은 고흥 최남단 외나로도 옆에 자리한 섬으로 사계절 내내 꽃이 피는 정원을 품은 보물섬이다.



속섬(애도)

艾島



01

마을 주민 20명, 고양이 30마리

고흥 시내에서도 동남쪽으로 40분쯤 달리면 나로도연안여객선터미널에 닿는다. 가는 길에 고흥 최고 명산인 팔영산과 마복산이 수려한 해안과 어우러진 모습을 감상할 수 있다. 썩섬은 나로도연안여객선터미널에서 바다 건너에 있는 섬이다. 배를 타면 5분 만에 닿을 수 있어 배 위에서의 풍경은 오래 조망할 수 없다. 하지만 썩섬 선착장에 내리면 고양이가 그려진 포토존이 우릴 반긴다. 포토존 뒤로 커다란 갈매기 조형물이 우뚝한 카페 건물과 아담한 집들이 보인다. 배 위에서 바라보는 풍경만큼이나 아기자기한 모습들이 섬 곳곳에 숨어 있다. 섬은 질 좋은 썩이 많이 나서 썩섬이란 이름을 얻었다. 갈매기 카페에 닿자 “야옹~” 하며 고양이가 나타났다. 처음에는 한 마리만 보이다니 어느새 네댓 마리가 나와 반겨준다. 썩섬은 사람과 고양이가 함께 사는 섬이다. 20여 명의 주민보다 고양이가 더 많은 섬이다. 썩섬을 걷다 보면 고양이를 자주 만날 수 있는데, 약 30마리에 달하는 고양이들은 벤치에서 즐기고, 돌담 위를 유유자적

산책하고, 관광객에게 달려와 등을 비비는 등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 주변을 배회한다. 관광객에게 애교를 부리는 고양이들은 주민들의 적적함 또한 달래줬다고. 그래서 주민들은 마을에 고양이 집과 캣타워 등 놀이시설을 만들었다.

01 여객선에서 본 썩섬. 불과 5분이면 썩섬에 닿는다.
02 썩섬에 닿으면 어디선가 나온 고양이가 환영해 준다. 마을 담벼락에 그려진 고양이 그림이 재미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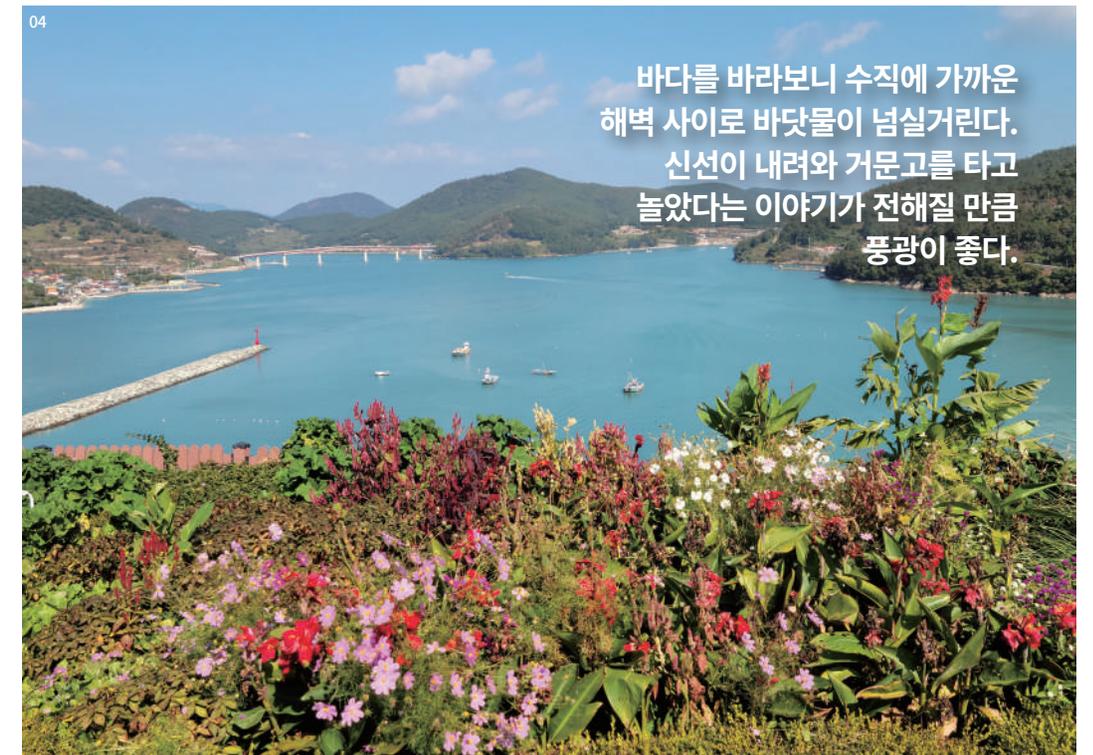
02

썩섬 구경은 갈매기 카페에서 오솔길 따라 난대 원시림, 능선에 자리한 꽃밭 정원, 신선대 등을 둘러보는 것으로 족하다. 넉넉하게 1시간 30분쯤 걸린다. 오솔길로 들어서자 울창한 숲이 펼쳐지는데, 여기가 마을의 당산인 난대 원시림이다. 뽕뽕한 숲 사이로 한 줄기 빛이 쏟아져 들어와 더욱 신비로운 분위기를 풍긴다. 이 짧은 구간에 아름답디 후박나무, 푸조나무, 육박나무 등이 우뚝하고, 울창한 대수도 보인다. 유독 눈에 띄는 게 육박나무다. 수피의 문양이 해병대 군복의 문양을 닮아 ‘해병대나무’, ‘국방부나무’라는 별칭으로 불린다. 몸체는 서어나무처럼 근육질이며 용처럼 꿈을 거리며 하늘로 치솟은 모습이 장관이다. 200년쯤 된 육박나무는 특이하게 몸에서 줄기 하나가 수직으로 솟구쳐 올랐다. 20년쯤 되는 가지다. 그런데 이 가지는 껍질이 벗겨지지 않았다. 성인 나이쯤 되어야 껍질이 벗겨진다고 한다.



03

03 난대 원시림에서는 귀한 육박나무를 볼 수 있다. 몸체에서 수직으로 솟구친 새로운 줄기는 껍질이 벗겨지지 않는다.
04 능선의 정원은 사계절 꽃으로 가득하다. 꽃과 바다가 어우러져서 장관이다.



04

바다를 바라보니 수직에 가까운
해벽 사이로 바닷물이 넘실거린다.
신선이 내려와 거문고를 타고
놀았다는 이야기가 전해질 만큼
풍광이 좋다.

비밀 정원을 가진 부부, 전남 1호 민간 정원

난대림 오솔길을 지나 능선에 올라붙으면, 시야가 열리면서 수려한 해안이 펼쳐진다. 여기가 ‘환희의 언덕’이다. 벤치에 고양이 한 마리가 오후의 햇살을 즐기고 있다. 옆에 앉아도 도망가지 않고, 등을 비비며 재롱을 부린다.

이제 휘파람이 절로 나는 능선길이다. 하나둘 꽃이 보이기 시작하더니 꽃밭 가득한 정원이 나온다. 능선에 정원이 있는 게 신기하다. ‘별정원’, ‘달정원’ 등 이름도 예쁜 정원에는 300여 종의 꽃이 계절마다 옷을 바꿔 입는다. 특히 6월에 피는 수국이 아름답기로 유명하다.

정원은 바다를 품었다. 화려한 꽃과 바다가 어우러진 풍경은 동화 속에 나오는 그림 같다. 앞쪽으로 나로도 가 손에 잡힐 듯하고, 반대편으로 쪽빛 바다 멀리 손죽도와 초도가 아른거리는 풍경은 가슴 속까지 후련하게 한다. 이 정원은 섬 밖에서는 보이지 않기에 비밀의 정원이라고도 불린다.

정원은 김상현·고채훈 씨 부부가 20년 넘게 가꿨다고 한다. 김 씨는 교사, 고 씨는 외나로도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이다. 부부는 틈나는 대로 꽃과 나무를 심고 가꿨다. 가뭄이 들 때도, 장맛비가 내려도 계속했



05

다. 덕분에 쑥섬은 전남 1호 민간 정원으로 지정됐다. 정원에서 마을로 내려오는 길도 있지만, 능선을 계속 따라야 볼거리가 많다. 정상 직전에는 남자산포바위와 여자산포바위가 있다. 산포바위는 옛사람들이 놀던 곳을 가리킨다. 동네 처녀와 총각이 몰래 만나 애뜻한 마음을 전했다고 한다. 정상의 높이는 불과 83m다. 하지만 그 앞에 붙은 ‘에베레스트 8,848m 백두산 2,744m 한라산 1,950m. 별 차이가 없군요’라고 쓰인 팻말이 웃음을 자아낸다. 남도 특유의 능청과 여유가 느껴진다.

05 정원의 코스모스 꽃밭에는 고양이 조형물이 서 있다. 고양이가 툇 등을 건드리는 것 같다.

06 서쪽 해안의 신선대. 거센 파도를 맞는 서쪽 해안은 기암절벽이 발달했다.



044

90세 넘은 김숙희 할머니와 말동무

정상을 지나 등대를 찾아가다. 작은 등대 아래에 갯바위로 나가는 길이 있다. 갯바위 일대는 수려한 기암절벽이 펼쳐진다. 갯바위 위에 강태공 한 분이 낚싯대를 드리우고 있다. “고기 많이 잡았어요?”라고 물어보니, “아직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라고 한다. 그런데도 느긋하다.

강태공에게 시선을 떼고 바다를 바라보니 수직에 가까운 해변 사이로 바닷물이 넘실거린다. 신선이 내려와 거문고를 타고 놀았다는 이야기가 전해질 만큼 풍광이 좋다. 마을로 돌아가는 길에는 나무들이 자꾸 발목을 붙잡는다. 가지가 울퉁불퉁한 후박나무 아래 벤치에 앉았고, 해변 동백숲 앞 벤치에서도 쉬었다. 쑥섬에서는 느리게 걸을 수밖에 없다. 마을에 도착하면 돌담길이 볼 만하다. 골목 따라 구불구불 이어진 돌담이 정겹다. 돌담에서 고양이가 꼬리를 들어 올리고 사뿐 사뿐 걷는 게 꼭 발레를 하는 것 같다.

마을 정자에 할머니 한 분이 계셔 말을 붙여봤다. “동무 돌이 있었는데. 다 요양원에 갔어요. 이제 섬에 할머니는 나밖에 없어. 심심해 종일 요로코롬 있어요.” 김숙희 할머니의 연세는 90이 넘었다. 하지만 귀도 안 먹고 충충하다. 19살에 나로도에서 시집와 평생을 쑥섬에서 살았다고. 사진을 찍으니 웃어 주신다. 할머니와 말동무하면서 쑥섬 여행을 마무리한다.

07 환희의 언덕에서 본 수려한 해안 풍경

08 돌담 위를 고양이가 한가롭게 걷고 있다.

09 갈매기 카페 2층 창문으로 본 마을 풍경



07

Tip 쑥섬(애도) 가이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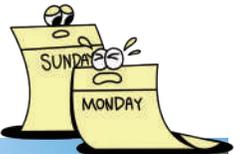
쑥섬은 마치 고양이 걸음처럼 느릿느릿 걷기 좋다. 갈매기 카페 옆 오솔길을 출발점으로 비밀 정원, 신선대 등을 거쳐 원점 회귀한다. 1시간 30분쯤 걸리며, 갈매기 카페에서 차를 한잔하며 바다를 바라보는 맛도 일품이다. 쑥섬 문의는 010-2504-1991.

교통

나로도연안여객선터미널에서 쑥섬 가는 배가 1일 9~10회 다닌다. 대중교통으로 연흥도에 가려면, 고흥버스터미널에서 나로도 가는 시내버스를 이용한다.

맛집과 숙소

쑥섬의 갈매기 카페에서 식사할 수 있지만, 나로도연안여객터미널 근처에 맛집이 많다. 서울식당(061-835-5111)의 삼치 코스 요리가 일품이고, 나로식당(061-834-9396)은 백반을 잘한다. 나로도회센터에서 싱싱한 자연산 활어를 살 수 있다. 숙소는 최근 문을 연 명품무인호텔(061-832-6300)이 깔끔하다.



08



09

에게해의 바람이 머무는 '축제'의 섬'

그리스 미코노스

미코노스는 에게해의 푸른 바람이 머무는 섬이다.
에메랄드빛 바다 너머 눈부신 포구마을과 날 것의 비치,
청춘들의 축제가 담겨 있다.
흰 담장, 자줏빛 교회 지붕의 골목을 배회하는 것만으로도
깊은 행복감에 빠져든다.



Greece Mykonos

무라카미 하루키가 즐겨 찾던 섬

그리스 미코노스는 ‘에게해의 보석’으로 사랑받는 섬이다. 키클라데스 제도 220여 개 섬 중, 투명하고 찬란한 미코노스는 반전의 묘미를 더했다. 이웃 섬 산토리니가 지닌 화산 절벽의 위용 대신 평화로운 어촌마을과 풍차, 뜨거운 축제의 해변이 이방인을 유혹한다. 포구에 내려 미로처럼 얽힌 흰 골목을 서성이는 게 미코노스 여행의 수순이다. 그리스 전통식당인 타베르나에서 늦은 점심을 즐기거나, ‘그릭 도어’로 불리는 예쁜 대문에 걸터앉아 사색에 잠겨도 좋다. 미코노스의 상징인 풍차는 골목 끝자락에서 파란 하늘에 빛겨 여유로운 배경이 된다.

평화로운 섬에 깃든 전설은 흥미롭다. 섬 일대는 제우스와 거인들의 전쟁터였고, 헤라클레스가 신들의 골칫거리인 거인을 몰리치려고 던진 바위가 미코노스 섬이 되었다고 전해진다. 아폴론의 손자이자 초기 통치자인 영웅 ‘미콘스’의 이름을 따 미코노스라 명명했다고 하며, 건너편 섬들의 이름 역시 신화를 끌어와



01 산토리니와 함께 푸른 에게해를 대표하는 미코노스
02 미코노스의 랜드마크인 풍차 ‘카토 밀리’

아폴론, 델로스로 불린다. 전설의 섬은 소설가 무라카미 하루키가 찬미하고 즐겨 찾던 섬이다. 그의 여행 에세이 『먼 북소리』에는 집필을 위해 머물렀던 미코노스에서의 삶이 낱알이 그려져 있다. 역작인 『상실의 시대(노르웨이의 숲)』 역시 미코노스에서 글을 쓰기 시작했다.



미코노스의 관문은 포구마을 호라다. 페리가 들어서는 항구 옆으로는 분주한 만토광장과 흰 가옥들이 가지런하게 이어진다.



03 호라의 고즈넉한 포구 풍경
04 흰 담장이 미로처럼 이어진 호라의 골목길

흰 담벼락 이어지는 호라의 골목

미코노스의 관문은 포구마을 호라다. 페리가 들어서는 항구 옆으로는 분주한 만토광장과 흰 가옥들이 가지런하게 이어진다.

새벽 어시장이 서고, 펠리컨이 자맥질하던 구항구는 이제는 어엿한 섬의 다운타운으로 변모했다. 낮게 단장한 레스토랑들은 어선만큼이나 빼곡하게 포구 주변에 도열해 있다. 마을 뒤편으로는 엽서 속에 단골로 등장하는, 섬의 랜드마크인 풍차 ‘카토 밀리’가 한가롭게 서 있다. 이 풍차는 16세기 베네치아인들에 의해 세워졌으며 20세기까지 실제로 밀을 빻을 때 이용했다.

호라의 서쪽 해변은 ‘리틀 베니스’로 불린다. 바다를 향해 발코니를 내민 독특한 모양새의 집들은 대부분 18세기 중반부터 지어졌으며 부유한 상인과 선장들의 거주지였다. 최근에는 카페, 상점이 대신해 들어섰으며 미코노스에서 석양을 감상하는 명소로 사랑받는다. 산토리니의 이아마을이 절벽 위 장엄한 해넘이를





05



06



07

선사한다면, 리틀 베니스 노천카페에서 바라보는 일몰은 포구와 파도 넘어 고요하고 소담스럽다. 호라의 뒷골목은 온통 거미줄처럼 길이 어지럽다. 바닥과 벽은 하얗게 채색돼 착시현상마저 일으킨다. 담장을 치장한 붉은 부겐빌레아는 푸른 하늘보다 선명하다. 아기자기한 숨들이 거리 한편을 채우고 좁은 골목으로 들어서면 섬 주민들의 일상이 드러난다. 골목을 하얀 회반죽으로 채색하는 것은 이곳 마을 주민들의 엄격한 룰이다. 골목길은 북쪽 항구에서 알레프칸드라 광장까지 이어진다. 에게해의 태양이 고개를 숙이면 미코노스의 변장이 시작된다. 섬은 계절과 밤낮에 따라 거리 풍경이 달라진다. 밤이 이속해지면 곳곳에서 파티가 열린다. 만토광장 인근의 클럽들을 시작으로 다운타운의 바들은 밤새 문을 열고 새벽까지 흥청거린다.

파티로 들썩이는 푸른 해변

전 세계의 청춘들은 축제의 밤에 이끌려 미코노스를 찾는다. 섬을 오가는 버스들은 다양한 피부와 국적을 지닌 파티 피플을 싣고 자정 넘어까지 다운타운과 해변 사이를 오간다. 플라티 알로스비치, 파라다이스 비치 등은 흥겨운 해변 파티로 유명한 곳이다. 바닷가 클럽들은 밤새 청춘들로 빼곡하게 채워진다. 20여 개의 해변 중 미코노스의 간판 비치들은 섬 남쪽에 웅기종기 들어서 있다. 슈퍼 파라다이스 비치는 누드해변을 간직했으며, 최근에는 아이오스 소스티스 비치, 파노르모스 비치 등 섬 북쪽의 아늑하고 한적한 해변들이 인기다. 무라카미 하루키는 『먼 북소리』에서 미코노스를 이렇게 묘사했다. “이곳을 여행한다면 여름이 좋다. 호텔이 만원이고, 근처의 클럽이 시끄러워서 잠을 잘 수

없어도 여름의 미코노스는 굉장히 즐겁다. 그것은 일종의 축제인 것이다.” 이색 비치와는 별개로 소박한 볼거리들도 섬에는 녹아들어 있다. 들뜨고 화려한 섬에는 예배당이 400개를 웃돈다. 호라의 카스트로 언덕에 세워진 파라포르티아니 예배당은 15~17세기 다양한 양식이 혼재된 모습으로 다가선다. 미코노스에서 두 번째로 큰 마을인 아노 메라는 해변이 아닌 능선과 초지 위에 들어서 있다. 파나기아 투리안니 수도원 외에 곳곳에 풍경을 간직하고 있다. 미코노스는 가을을 넘어서면 을씨년스럽고, 에게해의 거친 바람에 상가들이 문을 닫기도 한다. 축제의 밤 대신 녀석 좋은 아저씨들의 미소가 골목과 포구를 넉넉하게 채우는 한가한 계절이 찾아온다.

Tip 미코노스 가이드

미코노스는 아테네에서 항공기와 페리로 연결되며, 에게해의 섬들을 경유하는 페리가 수시로 드나든다. 호라의 3개 터미널에서 각기 다른 노선의 해변행 버스들이 다니며, 만토광장에서 택시 이동이 가능하다. 호라 포구에서 수상택시를 이용할 수도 있다. 6~9월이 섬의 성수기이며 묵을 만한 숙소는 한 달 전에 예약이 필수다. 미코노스는 산토리니와 함께 미식의 섬으로 통한다. 돼지고기를 염장해 저장해 먹는 ‘로우자’, 빵에 발라 먹는 매운 치즈인 ‘코파니스티’는 미코노스에서 맛볼 수 있는 독특한 음식이다. 스칸디나비안, 재키오, 카보파라디소 등이 미코노스를 대표하는 파티 클럽들이다. 클럽들은 대부분 무료입장이며, 술과 음료 요금으로 입장료를 대신한다. 미코노스의 호라 주변에는 옛 건물을 개조한 풍차 모양 농업 박물관 외에 고고학·에게해·민속 박물관 등이 들어서 있다. 미코노스에서 산토리니, 델로스 섬을 페리로 오가는 투어 프로그램들도 마련돼 있다.

- 05 파티로 들썩이는 미코노스의 해변클럽
- 06 독특한 발코니가 인상적인 리틀 베니스
- 07 미코노스의 언덕을 단장한 흰 가옥들
- 08 호라의 골목에서 만나는 양중맞은 풍경



08

051

무더위쯤이야, 다 같이 함께라면

점음을 무기로, 도봉산에 오르다!

걷고 또 걸어도 즐거울 수 있는 이유는
함께하는 사람이 마음을 나누고, 즐거움을 나누고,
행복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무더운 여름, 흐르는 땀을 시원한 바람에 흘려보낸
이들의 산행 이야기를 들어본다.



QR코드를 스캔하면
<with IBK>를 영상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道峯山

※ IBK산은 등산 안전 수칙을 준수하며 진행하였습니다.

주말의 도봉산을 찾은 이유

여름이 중턱에 이른 어느 주말, 도봉산 입구는 산행객들로 붐볐다. 가벼운 차림으로 혼자 산에 오르는 이들도 많고, 단체로 모여 몸을 푸는 이들도 곳곳에 있었다. 많은 사람 중에는 'IBK산'을 위해 모인 이들도 있었으니, 입행 3년 차라는 공통점을 가진 '실력' 팀이다.

산행이 진행된 날은 6월이었지만 때 이른 더위로 날씨는 8월 같았다. 하긴, 원래 8월에 해야 할 산행이었는데, 시간을 맞추기가 어려워 일정을 앞당겼다. 그런데 일정을 앞당기면서까지 도봉산을 오르고 싶었던 이유는 뭘까? 첫 번째, 산이 좋아서. 두 번째, 동기들을 보고 싶어서.

이날의 반장을 맡은 건 IT디지털개발부 김기범 대리. 시작은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언제', '산'에 한번 가자는

이야기였다. 다만 그 '언제'가 지금 같은 무더위일 줄 몰랐을 뿐이고, 그 '산'이 도봉산 같은 산일 줄 몰랐을 뿐이다. 몇 번 산을 타본 창업벤처지원부 이건희 대리가 '무척 쉬운 산행'이라고 조금 너스레를 떨었기 때문일까? 데이터센터 김영섭 대리와 광고중앙지점 최재훈 대리, 서부지역본부 조창범 대리, IT금융개발부 한유진 대리, 교대역지점 이어진 대리가 산행에 대한 부담감을 내려놨다. 사실 서부지역본부의 이민주 대리도 함께할 예정이었지만, 산행 전날 고데기에 가벼운 화상을 입어 함께 하지 못했다고.

한 자리에 모인 실력팀, 이제 스트레칭을 하고 산에 오르면 된다. 참, 몸 풀면서 잠시 내려놨던 유머도 잘 챙겨야 한다. 힘들 땐 웃는 게 최고다.

"IBK 실력팀, 도봉산으로 출발!"



02



03



01

서울 명산 도봉산

도봉산은 북한산과 더불어 '서울의 보석'으로 꼽힌다. '눈부신 겨울로부터 / 봄 여름 가을까지 한해 내내 빛나고 빛난다(정공채, 서울의 보석)'는 도봉산. 오늘의 코스는 도봉탐방지원센터에서 출발해 도봉대피소를 거쳐 마당바위에서 한숨 돌린 뒤 신선대에 오르는 7.2km(왕복)에 이르는 코스다.

해발 726m의 신선대는 일반인들이 오를 수 있는 도봉산의 정상이다. 진짜 정상은 740m 자운봉, 커다란 화강암 덩어리에 붉은빛 상서로운 구름이 걸린 모습이 아름다워 붉은 이름이다. 함께 암봉 균락을 이루는 만장봉, 선인봉과 더불어 도봉산의 상징이다. 선인봉은 북한산의 인수봉과 함께 우리나라 암벽등반의 성지이기도 하다. 물론 우리는 신선봉까지만(!) 오른다.

마당바위까지는 길이 어렵지 않게 이어진다. 그래도 산이니 오르막이 연달아 나오긴 하지만 산행의 맛은 없는 힘까지 쥐어짜는 맛 아니겠는가. 그렇다고 노랫말처럼 '이제부터 웃음기 사라질' 실력팀이 아니다.



04

- 01 안전한 산행을 위한 철저한 준비 운동
- 02 본격적인 산행에 앞서 기념 사진
- 03 정상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 04 밝은 표정의 최재훈 대리

동료란 그런 거니까. 출발할 때 유머를 잘 챙겼으니까. “최재훈 대리님, 평소 운동을 즐겨 하시는데 오늘 코스 어떠신가요?”

“아, 이정도는 문제없습니다.”

“내년에 결혼 계획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기분이 어떠십니까?”

“너무 좋습니다~”

“한유진 대리님, ‘천국의 계단’을 40분씩 탄다고 들었는데, 오늘 산행 어떠신가요?”

“별로 힘들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함께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입행부터 연수까지 함께한 그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3년을 보내는 동안 더 끈끈한 동료애를 나눠 가졌다. 조금씩 다른 상황과 업무의 나날이지만 얼굴을 보면 처음 만난 그때로 돌아가 왁자지껄 수다와 웃음꽃이 피어난다.

생각보다 힘들고, 생각보다 좋다

마당바위에 오르는 최재훈 대리의 등산화가 조금 수상하다. 멀쩡한 등산화이긴 한데, 뭔가 어색하다. 실 때 다시 보니 밑창이 떨어져있다. 말하자면 발아래 두툼한 굽이 아니라 얇은 판 하나만 남은 셈. 걸을 때마다 지면의 돌이 주는 충격이 그대로 몸에 전해졌을 것이다. 최 대리는 아버지의 오랜 등산화를 신고 나왔으며 웃었다. “어색하긴 한데, 특별히 힘든 건 모르겠는데요?” 좀더 조심하긴 했지만, ‘생각보다...’이라며 끝까지 쿨했다.

이날의 간이 점심은 김밥이었다. 널따란 마당바위에 드문드문 있는 나무 그늘에 모여 앉아 시원한 얼음물에 김밥을 나누어 먹었다. 여느 때라면 끼니를 때우는 한 줄 김밥이지만, 눈앞에 서울 동북 지역의 풍경이 한 눈에 펼쳐진 장관이라 꿀맛 나는 귀하디귀한 양식이 었다. 그 힘으로 다시 신선대에 오르고, 무사히 저 아래까지 하산해야 하니.

잠시 휴식을 마치고 다시 출발. 컨디션이 조금 안 좋은 이어진 대리는 휴식을 좀 더 취하기로 하고 400m 거



05 파이팅을 외치는 실력팀
06 눈 앞에 펼쳐진 서울 시내 전경
07 마당바위에 앉아 잠시 쉬어가기

리에 있는 신선대를 향했다. 제법 가파른 데다 돌길과 흙길, 데크길이 연달아 나와 고되긴 하지만 점점 좋아지는 조망에 기운을 낸다. 그렇게 남은 힘을 끌어모아 오르는 신선대. 좁은 암봉에 불과하지만, 첫 사회생활을 함께 시작한 동료들과의 산행인지라 뜻깊다.

“역시 산은 올라야 제맛이죠.”

“생각보다 힘들고, 생각보다 좋은데요? 동료들 덕이죠.”

거친 숨을 몰아쉬는 한유진 대리의 입담에 조창범 대리가 기운을 북돋운다. 분명 올라올 때는 “산에 오르는 이유가 뭘까요?” 질문에 “아, 묻지 마세요. 힘듭니다.”, “낭만? 모르겠어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웃으며 피했던 이들이다. 산에 오르는 건 힘들지만, 평소 볼 수 없는 시야의 장관은 충분한 보상이 된다. 더욱이 얼굴만 봐도 농담이 오가고 웃음이 터지는 동료들과 함께라면 진한 추억으로 남기 마련이다. 남은 건 하산 그리고 뒤풀이. 발걸음에 없던 기운이 붙는다.



산행은 고되게~ 뒤편이는 아무지게~

이건희 대리는 도봉산 산행을 마치고 “다시는 산에 오지 않을 것”이라고 못을 박았다. 마찬가지로 ‘동기들 아니었으면 혼자 도봉산을 오르지 못했을 것’이라는 ‘실력’ 멤버들은 다음 산행 계획을 문자 고개를 격하게 가로저었다. 하지만 한 번 맛을 본 이가 다른 이들을 산으로 이끌 듯, 이들 또한 언젠가 ‘산에 오르면 말이지’ 하며 누군가에게 산행을 권할 것이다. 그리고 그 ‘코드감’의 5할은 뒤편이 뒤편이다.

“나는 막걸리! 나는 냉면! 나는 감자전! 나는 두부김치! 나는 백숙!”

하산을 마치고 마지막 촬영에 임한 이들은 저마다 먹고 싶은 메뉴를 외치며 촬영을 마치고 수많은 인파 사이로 사라졌다. 한여름을 방불케 하는 산행은 뜨겁고 고됐다. 힘든 기억이 추억이 될 즈음 다시 산을 찾는다면 녹음이 단풍으로 물들 무렵이다. 한창의 청춘을 나눈 3년의 우정 또한 앞으로 다양한 계절을 겪으며 무르익고 아름답게 물들어갈 기원한다.



08 아버지의 신발을 신고 등산한 최재훈 대리
09 도봉산 고양이에게 츄르 대접
10 정상을 코앞에 두고 찰칵!



11 안전한 산행 후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한여름을 방불케 하는 산행은 뜨겁고 고됐다. 한창의 청춘을 나눈 우정 또한 앞으로 다양한 계절을 겪으며 무르익고 아름답게 물들어갈 기원한다.

도봉산 INFO

- 주소** 서울시 도봉구 도봉동
- 입산 시간** 시간 04:00~17:00 (3~11월, 12~2월은 16:00까지)
- 코스** 도봉탐방지원센터 - 도봉대피소 - 마당바위 - 신선대 (원점회귀, 약 7.2km)
- 문의** 북한산국립공원 도봉사무소 031-828-8000

등산로 구간별 난이도



쓱쓱쓱, 푹푹푹

캠핑의자 만들면서

우정도 더 단단하게

서로를 보기만 해도 웃음이 까르르 흐르는 IBK인 4명이 퇴근 후 가구공방에 모였다. 나무를 만져본 적 없지만, 캠핑의자 만들기에 호기심은 가득! 웃음과 농담이 넘치는 시간 뒤에 완성된 캠핑의자의 만듦새는 그야말로 완벽이었다.

Camping Chair

새로운 출발을 응원하며 추억 만들기

어떤 의자는 일의 공간이고, 어떤 의자는 대화의 공간이다. 오늘 가구공방 크레이트에서 만들 의자는 바로 여유와 쉼의 공간인 캠핑의자이다. 캠핑의자는 캠핑을 즐길 때도 쓰지만, 요즘에는 가까운 나들이나 집안에서도 많이 사용하고 있다. 이런 캠핑의자를 “만들자”라고 이벤트를 제안한 것은 시흥유통센터지점의 강희중 대리이다. 함께 동고동락하는 직원들과 추억을 만들고 싶어서 신청한 것이다. 약속 시간이 되자, 본사에서 근무하는 IT디지털개발부 김유미 대리, 총무부 김승훈 대리, 자금결제부 황상호 대리가 도착했다. 뒤이어 강희중 대리도 공방 문을 두드렸다. 완전체로 만난 네 사람은 서로 안부를 묻느라 공방은 그새 시끌벅적해졌다. “2년 차부터 인사이동을 하게 되는데, 저희가 현재의 자리로 각자 이동한 지 이제 막 2주가 지났어요. 새로운 자리에서 새롭게 다시 출발하는 우리 네 사람을 응원하고 싶기도 하고 추억도 만들고 싶어서 이렇게

캠핑의자 만들기 이벤트를 신청하게 됐습니다.” 강희중 대리의 캠핑의자 만들기 이벤트 신청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다. 회사에서 글램핑을 다 같이 할 기회가 있었는데, 당시의 기억이 너무 좋았다. 언젠가 친한 네 사람이 같이 캠핑을 가게 된다면 이 의자를 들고 모이면 어떨까 하는 의도도 이번 이벤트에 담겨 있었다. 이런 의도를 제대로 읽은 것은 황상호 대리였다. “저희 넷이 같이 글램핑이나 캠핑을 가게 되면 이 의자가 유용하게 쓰이지 않을까요? 그런 날을 기대하면서 의자를 만든다면 그 과정이 더 즐거울 것 같습니다.”

나의 쉼과 여유를 책임져줄 캠핑의자

캠핑의자 만들기의 첫 번째 단계는 나무를 아는 것이다. 가구공방의 부부 사장님은 네 사람에게 원목과 합성목의 차이를 설명했다. 나무의 특징을 들으면서 결을 느끼기 위해 만져보기도 하고, 특유의 향을 알기



공방 사장님이 시연하면서 설명하자 가늘고 실 같은 대패밥이 쪽쪽 나왔다. 그 모습에 여기저기에서 “와!” 하며 동시에 리액션을 쏟아내서 또 한 바탕 웃음바다가 되기도 했다. 각자 대패질하는 시간은 마치 명상하듯 고요한 순간이었다. 네 사람이 대패질하는 모습을 보면서 공방 부부 사장님은 연신 “네 분 모두 재능이 있다”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어느 한 명 실수 한번 없이 매 과정에 집중하면서도 중간중간 근황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은 평화롭고 더 없이 다정한 풍경이었다. 실 같은 대패밥이 작업 테이블 위에 쌓이는 만큼 이야기도 차곡차곡 쌓여갔다.

대패밥 쌓이듯, 추억이 계속 쌓이기를 바라며

나무에 거친 면이 없도록 사포질하는 시간, 공방 사장님이 “사포질은 나무의 때를 벗기는 과정입니다. 피부에 각질을 잘 벗겨내야 화장이 잘 먹는 것처럼 사포질을 잘해야 그다음 코팅제 바르는 과정도 잘 됩니다”라고 설명하자 다들 고개를 끄덕였다.

위해 냄새를 맡아보기도 했다. 이날 다들 나무와 친해지는 준비 단계처럼 느껴지는 시간이었다. 나무에 대한 설명이 끝난 후, 두 사람씩 파트너를 이뤄 캠핑의자를 만들어보기로 했다. 의자는 각자 하나씩 갖지만 만드는 과정에서 서로 도와야 하는 순간들이 있기 때문이다. 두 개의 작업테이블에 김유미 대리와 황상호 대리가 한 팀으로, 김승훈 대리와 강희중 대리가 한 팀으로 나뉘었다. 캠핑의자를 만들기 위해 치수에 맞춰 선을 그려 넣어야 하는데, 이 시간만큼 조용하고 신중한 시간이 없었다. 어떤 작업이든 기초가 중요하다는 자세로 다들 선긋기에 집중하는 모습이였다. 이후 소리는 다르지만 누구 한 명 실패 없이 톱질까지 잘 해냈고 뒤이어 대패질하는 법을 배웠다. “원손으로 당기고 오른손으로 누르셔야 해요. 대패질했을 때 머리카락 같이 가는 대패밥이 나와야 잘하는 거예요.”



코팅제를 바른 후에 나무를 조립하고 등반이 천을 끼우자 드디어 완성! 이날 만들어진 캠핑의자는 다음에 모여 함께 캠핑하러 가기 전까지 각자가 원하는 용도로 쓰일 것이다. 김유미 대리는 집에서 밥을 먹을 때 이 의자를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승훈 대리는 캠핑 의자를 만들기 전부터 가졌던 로망을 실현할 생각이다. “제가 바라던 그림 중 하나가 한강에서 캠핑의자에 앉아 여유롭게 쉬는 모습이거든요.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거나 물을 가만히 보는 것도 좋고요. 그런 여유를 즐기는 데 쓸 것 같습니다.”

이벤트를 신청한 강희중 대리는 유독 의자에 대한 애정이 남다른 사람이다. 혼자 사는 집에 의자만 다섯 개나 사두었을 정도이니 의자 애호가라고 부를 만하다. “저는 의자가 세상과 맞닿아 있는 도구라고 생각하거든요. 집에 있는 여러 의자도 앉을 때 느끼는 안정감과 느낌이 다 달라요. 오늘 만든 캠핑의자는 동기들과 행복한 추억을 담은 만큼 앞으로 앉았을 때 감정이 더욱 남다를 것 같습니다.”



이날 이벤트를 기다리는 동안 네 사람은 설렘과, 캠핑 의자를 만드는 동안은 즐거웠으며, 결과물을 하나씩 갖게 되었을 때는 뿌듯함이 넘쳤다. 이 모든 과정마다의 감정이 추억이 될 것이다. 실 같던 대פת밥이 테이블에 쌓이던 것처럼 작은 순간들의 감정이 차곡차곡 쌓여 더 단단한 우정을 만들기를 바라는 마음까지도 이날 이벤트가 준 선물이다.



IBK버킷리스트 미니인터뷰

오늘 함께 캠핑의자를 만드는 과정도 즐거웠지만, 평일에 보기 힘든 동기들을 만나서 더 즐겁고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가을 떠나 힘들 때 늘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사이가 되었으면 합니다.



시흥유통센터지점 강희중 대리

먼저 강희중 대리에게 정말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어요. 또 저정 생활을 하다가 IT디지털개발부에서 일하게 되어 선임의 자세로 돌아온 것 같은데요. 오늘 함께한 동기들에게도 새로운 자리에서 잘하라고 응원을 보내고 싶어요.



IT디지털개발부 김유미 대리

나무로 뭔가를 만드는 체험을 어릴 적에 해보고 처음해보는 것 같습니다. 대패질할 때 손에서 느껴지는 맛이 너무 좋아 아무 생각 없이 몰두했습니다. 앞으로 한강에 나갈 때 이 의자를 꼭 들고 나가게 될 것 같습니다.



총무부 김승훈 대리

무엇인가를 손으로 만든다는 것 자체가 너무 즐거운 경험이었습니다. 특히 튼질할 때는 그동안 쌓였던 스트레스가 풀리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오늘 만든 의자처럼 앞으로도 튼튼하게 우리의 우정도 이어 나갔으면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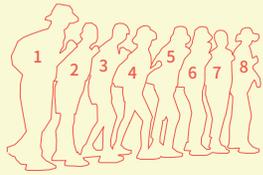


자금결제부 황상호 대리

자연을 벗하고, 서로를 걸 하며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들

걷기동호회 'IBK발로발로'

- 1. 기관영업팀 김정문 팀장
- 2. 박영수 지점장 가족
- 3. 신장림역지점 박영수 지점장
- 4. 금사공단지점 정영숙 팀장
- 5. 양산중부지점 윤선민 지점장
- 6. 센텀시티지점 강정미 팀장
- 7. 정순옥 팀장 가족
- 8. 양산덕계지점 정순옥 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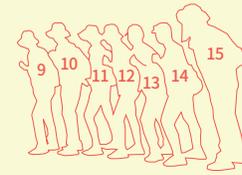


계절마다 색과 향을 달리하는 꽃과 나무들.
우리가 계절을 가장 빠르고, 쉽게 마주하는 방법은
자연과 벗하는 것이다. 자연을 가까이에서 만나며
자연이 주는 싱그러움을 몸소 체득하고 있는
IBK발로발로를 만났다.



QR코드를 스캔하면
<with IBK>를 영상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 9. 부산WM센터 정현희 센터장
- 10. 정현희 센터장 가족
- 11. 부산지역본부 최영희 교수
- 12. 녹산공단기업금융센터 광정희 팀장
- 13. 녹산중앙지점 박명선 팀장
- 14. 부산WM센터 조동자 팀장
- 15. 부산울산지역본부 노건석 교수





Q. 동호회 소개 및 만들어진 계기가 궁금합니다.

A. 'IBK발로발로(이하 발로발로)'는 부산, 경남, 울산 지역 소재 영업점 직원들의 스트레스 관리 및 건강증진을 목표로 올해 1월 창단된 걷기동호회입니다. 부산, 경남, 울산 지역 직원들을 대상으로 활동하는 동호회다 보니, 부산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을 이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중 부산의 대표 걷기 코스인 부산갈맷길 완보를 올해 목표로 설정해 회원들을 모집했고, 현재 25명의 회원이 함께 활동 중입니다.



Q. 동호회 가입 조건이 있을까요?

A. 부산과 울산, 경남 지역에 근무하는 IBK인이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동호회 회원이 아니더라도 코스별로 함께 활동하고 싶은 직원분들이 계신다면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돌레길을 걷다 보면 카메라에 담기지 않을 정도로 정말 아름다운 길들이 많습니다.

함께 계절을 만끽하는 만큼 발로발로의 가입 조건은 건강한 체력 하나뿐입니다.

그래서인지 회원분들이 함께하고 싶은 가족, 친구들도 초청해 함께 계절을 만끽하는 만큼 발로발로의 가입 조건은 건강한 체력 이거 하나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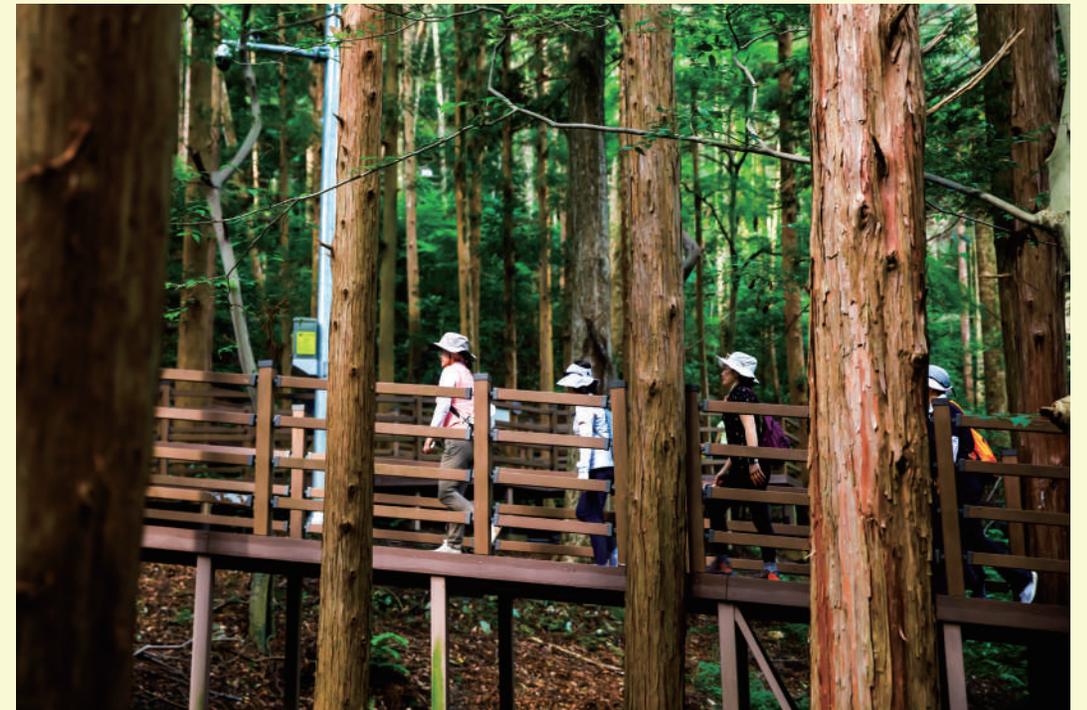
Q. 직장인이라 평소 활동이 어려우실 것 같아요. 활동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A. 매월 1, 3주 일요일 아침을 활용해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가급적 이른 오전에 시작하여 4~5시간 정도 함께 걷고 점심이나 차를 마시고 해산하는 편입니다. 일요일에 활동하다 보니 오후에는 개인 활동이 가능하도록 시간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Q. 동호회 활동이 회사 생활에 어떤 영향을 끼치나요?

A. 먼저, 함께하는 직원들과 소통 및 정보 교류를 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또 좋은 경치를 보고, 걷다 보면 한 주간 쌓인 업무 스트레스가 해소

되어 다음 주에 신나게 일할 수 있는 에너지를 얻기도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올해 완주 목표로 설정한 부산갈맷길 코스는 평소 차로 다니면서 보지 못했던 장면들을 볼 수 있어 영업할 때 아이스 브레이킹 소재로 활용하기 좋습니다. 또 부산갈맷길 코스 중 곤단지역을 관통하는 곳들도 있어 IBK기업은행 거래처들을 지나칠 때도 있습니다. 덕분에 거래 업체의 현장 답사 효과도 볼 수 있습니다.



Q. 동호회 활동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언제인가요?

A. 부산갈맷길 5-2, 5-3코스가 가덕도를 중심으로 부산 외곽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이 별로 없어 다른 코스보다는 접근성이 떨어져 쉽게 도전하기 어려운 코스입니다. 그래서 회원들의 의견을 반영해 한 번에 2개 코스를 진행했는데 8시간 이상을 걷다 보니 나중에는 다리 감각도 무뎠고, 끝없이 이어지는 산길에 힘들어 하는 회원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서로 응원하며 완보에 성공해 큰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Q. 그동안 걸어온 코스 중 추천하고 싶은 둘레길이 있을까요?

A. 부산갈맷길은 해안을 끼고 있는 코스가 많아 어디를 가도 다 아름답습니다. 특히, 송정해수욕장부터 광안리, 이기대, 오륙도로 이어지는 2코스 2구간은 최고의

절경을 자랑합니다. 발로발로가 광안리 해변을 걸을 때가 2월 말이었는데 당시 황톳길이나 바닷물을 맨발로 걷는 어싱(Earthing)이 유행이라 맨발로 바닷가를 걸으며 본 풍경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바다와 산 등 다양한 장면을 볼 수 있는 2코스 2구간 길은 시간이 되시면



꼭 한번 걸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장시간 걷게 되면 무릎에 무리가 갈 수 있는 만큼 편안한 신발과 복장, 무릎 보호대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Q. 회원들에게 바라는 점은 무엇인가요?

A. 발로발로가 처음 동호회 활동을 시작할 때 “다 같이 완보하자!”라고 다짐했던 것처럼 활동에 잘 참여해주시고, 오랫동안 함께 걷기 위해 평소 체력 관리를 잘 해주셔서 감사할 따름입니다. 앞으로도 지금처럼 건강하고 행복하게 함께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려 항상 발로발로의 순간순간을 예쁘게 담아주시는 노건석 교수님께도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Q. ‘발로발로’의 목표가 궁금합니다.

A. 발로발로를 창단할 때 부산갈맷길 700리 완보를 목표로 정했습니다. 현재 23구간 중 17구간을 완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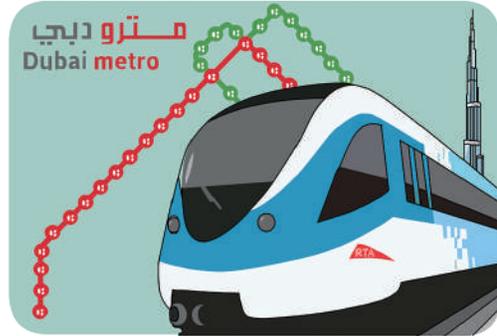
했고, 현재 6개의 구간이 남아있습니다. 회원들과의 기투합하여 남은 구간도 안전하게 완보하고, 다가오는 2025년에는 활동하며 알게 된 부산의 아기자기한 동네 길 중 함께 걷기 좋은 코스를 찾아 걸어보려 합니다.

Q. 마지막으로 IBK인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걷기가 쉬운 듯 보이나 코스에 따라 난이도가 상당히 달라집니다. 난이도 상급의 코스를 걷다 보면 “혼자라면 쉽게 포기했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같이 걷는 회원들을 보며 ‘함께’의 힘을 몸소 느끼고 있습니다. 하고 싶은 일이나 활동이 있다면 뜻이 맞는 친구들과 함께 시작해보세요. 어느 순간 함께 설정했던 목표에 도달했음을 겁니다. 그리고 부산의 아름다운 경치가 궁금하시다면 언제든지 발로발로의 문을 두드려주세요.

September in History

9월에 일어난 이야기



Big Issue

9월, 세계 각국에선
또 어떤 일이?
한 줄로 보는
그날의 이슈

- 2일 1666년 런던 대화재로 세인트폴 대성당 전소
- 3일 590년 그레고리오 1세 교황 취임
- 5일 1977년 나사에서 우주선 보이저 1호 발사
- 10일 2002년 스위스 유엔 가입
- 13일 1985년 닌텐도 슈퍼 마리오브라더스 발매
- 15일 1950년 인천 월미도 상륙 작전 개시
- 21일 1937년 존 로널드 루엘 톨킨의 <호빗> 출판
- 24일 1906년 데빌스타워 미국 국립기념물로 지정
- 29일 1954년 유럽 입자 물리 연구소 설립

04day

검색 엔진 구글 설립

구글은 스마트폰 운영체제인 안드로이드와 유튜브, 클라우드 사업을 하는 기업이다. 메일, 크롬, 지도 등 다양한 서비스들과 함께 '전 세계의 정보를 체계화하여 모든 사용자가 유익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라는 사명으로 사업을 운영 중이다. 1998년 스탠퍼드 대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백럽'이라는 이름으로 검색 서비스를 시작, 이후 회사 이름을 구글로 변경했다.

09day

두바이 메트로 개통식

아라비아반도의 첫 도시 철도 시스템인 두바이 메트로가 개통식을 열었다. 두바이 메트로의 아랍에미리트 두바이를 중심으로 운영하는 도시 철도로 지금은 프랑스 Keolis와 일본 미쓰비시 중공업의 공동 기업체인 Keolis-MHI가 운영하고 있다. 차량은 18m 차량의 5량 편성으로 이뤄져 있으며 무인 운전으로 운영된다. 노선은 총 2개이며, 53개의 역으로 이뤄져 있다.

17day

서울 하계 올림픽 개막

1988년 9월 17일부터 10월 2일까지 16일 동안 대한민국 서울에서 하계 올림픽이 개최됐다. 코리아나가 부른 '손에 손잡고'가 공식 주제곡이었다. 당시 올림픽에는 160개국, 8,400명의 선수가 참가했으며 대한민국은 포함 33개의 메달을 획득해 세계 4위로 올림픽을 마무리했다. 한편, 1988년 하계 올림픽에 참가했던 나라들의 국기는 현재 올림픽공원에 게양되어 있다.

19day

세계 최초 이모티콘 제안

미국 카네기멜론대학교의 전산학자인 스코트 엘리엇 펠만이 1982년 9월 19일 11시 44분, 카네기멜론대학교의 컴퓨터 과학 게시판에 감정을 나타내는 용도로 ':-'와 '-(?'를 사용하자고 제안했다. 이모티콘은 주로 감정을 나타내는 기호인데, 서양에서는 주로 가로로 기울어진 ':-'와 같은 이모티콘을 사용하고, 동양에서는 '^*^' 등처럼 세로로 된 이모티콘을 사용한다.

이날 미국에선?

1888년 카메라 및 필름 제조사인 코닥이 설립됐지만 당시에는 카메라가 대중화되지 않아 코닥이 개발한 카메라 등은 일부 계층에게만 호응을 얻었다.

이날 로마에선?

337년 콘스탄티우스 2세, 콘스탄티누스 2세, 콘스탄스가 로마 제국의 황제에 공동으로 취임했다. 황제 임명은 로마 정치 기관인 로마 원로원이 했다.

이날 유엔에선?

1991년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마셜 제도, 마이크로네시아 연방, 에스토니아와 함께 유엔에 동시 가입했다.

이날 잉글랜드에선?

1970년 세계에서 가장 큰 노천에서 열리는 글래스톤베리 페스티벌이 처음 개최된 날이다. 1981년부터는 마이클 이비스에 의해 조직적으로 개최되고 있다.

새치, 뽑지 말고 이렇게 관리하세요~

흰머리가 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노화현상이다.
그런데 10~20대 젊은 층에서도 흰머리가 나는 경우가 있다.
나이보다 더 나이 들어 보이게 하는 원인, 새치!
과연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



☑ 원인은 다양해! 스트레스부터 영양 불균형까지

40대 이전의 젊은 나이에 검은 머리와 흰 머리가 섞여 자라는 것을 ‘새치’라고 말한다. 모낭 세포의 멜라닌 색소가 부족한 것이 새치의 대표적인 원인인데, **강한 자외선에 많이 노출되면 모낭 세포에 정상적인 영양공급이 이뤄지지 않아 멜라닌 색소가 쉽게 파괴된다. 때문에 햇빛이 강한 날에는 모자 또는 양산으로 두피를 보호하는 것이 좋다.** 멜라닌 색소 부족 외에도 당뇨병, 갑상샘 이상, 콩팥 기능 저하 등으로 새치가 생기기도 한다. 또 지나친 다이어트로 인한 영양 불균형, 자외선 노출 등도 원인으로 거론되고 있다.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스트레스는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지만,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아드레날린 분비가 많아져 두피의 모근과 닿아 있는 혈관을 수축시켜 영양공급에 문제를 일으킨다. 뿐만 아니라 멜라닌 색소가 적게 생성돼 새치를 자라나게 한다.



☑ 뽑지 말고, 염색 말고! 가위로 자를 것

새치는 한 번 생기면 잘 없어지지 않아 올바른 방법을 통해 관리해야 한다. 눈엣가시 같은 새치를 뽑다 보면 묘한 희열감에 머리카락을 살살이 뒤틀리게 되는데, 족집게 등 물리적인 힘으로 머리카락을 뽑으면 모근이 약해져 모낭이 손상되거나 염증이 생길 수도 있다. 이러한 **인위적인 자극은 모발의 수명이나 성장 주기에 악영향을 줘 최악의 경우, 새치를 뽑은 부위에 새로운 머리카락이 자라지 않아 탈모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새치가 생기면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짧게 자르거나 염색을 하는 것이 좋다.** 다만, 염색약 속 파라페닐렌디아민 성분이 피부염을 유발할 수 있어 잦은 염색은 피해야 한다. 아울러, 둥근 빗이나 손가락으로 두피를 마사지하면 새치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빗으로 머리를 구석구석 두드리거나 손가락에 힘을 주어 머리를 지압해주면 된다. 한편, 두피의 모세혈관을 수축시켜 혈액순환을 저해하는 음주나 흡연은 자제하는 것이 좋다.

Tip. 새치에 좋은 음식

흑임자	검은콩	호두
카라틴 함량이 높아 새치 예방에 도움이 됨	혈액순환을 도와 백발과 탈모 증세를 회복시킴	호두잎 달인 물로 머리를 감으면 새치 예방에 효과적



함께든 혼자든 즐거운 명절 트렌드



명절을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달라지고 있다.
“가족과 함께”를 외치던 풍경에서
이제는 나의 편안함을 외치는 양상으로 변화 중이다.



열심히 일한 우리,
해외로 떠나자

코로나19로 막혔던 하늘길이 뚫리면서 명절 시즌 해외여행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데이터랩에서 발표한 2023년 추석 트렌드를 살펴보면 ‘추석+여행’의 언급량은 2021년부터 계속 상승하는 추세다. 코로나19로 가족과의 만남이 어려워지면서 혼캉스 등을 즐기던 사람들의 수요가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후 가족과의 여행, 친구와의 여행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는 추석 연관키워드 순위로도 확인할 수 있다. **2023년 추석 연관어 1위는 ‘연휴’였으며, 코로나19로 한동안 순위에서 볼 수 없던 여행과 해외 키워드가 등장했다.** 2019년부터 꾸준히 1위를 차지하던 선물 키워드를 제치고 연휴 키워드가 올라왔다는 점과 해외여행 관련 키워드가 상위에 나타난 것으로 보아 추석 연휴 기간 중 해외여행을 다녀오려는 트렌드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실제로 숙박 예약 사이트 야놀자가 추석, 개천절, 한글날 등이 포함된 2023년 추석 연휴 기간의 사이트 이용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국내 숙소 예약 건수는 2022년 추석 연휴 대비 207% 증가했다. 국내 숙소 예약 건수는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인 2019년과 비교하면 435% 늘어난 수치다. 해외 숙소 예약 건수는 작년 추석 연휴 대비 3,367%, 2019년 추석 연휴 대비 1,799% 상승했다. 이처럼 명절 기간에 해외 여행객이 늘어나는 이유는 연차를 쓰면 최장 6~7일 여행이 가능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집밥도 좋지만,
연휴엔 배달 음식

연휴를 조금 더 행복하게 즐기려면 맛있는 음식이 필요하다. 명절을 앞두고 다양한 차례 음식을 만들던 과거와 달리 최근, 직접 요리하기보단 외식이나 배달주문을 통해 차례상을 차리고 맛있는 음식을 즐기는 이들이 늘고 있다. 실제로 소비자 물가가 상승하면서 장바구니 부담이 커짐에 따라 차례상에 올릴 음식을 손수 만들기보다 가족끼리 먹을 정도의 음식만 주문해서 먹는 경우가 많아졌다. 이와 관련 JW메리어트 동대문, 노보텔 등 특급호텔에서 합리적인 가격에 차례상 메뉴를 선보였다. 명절 당일이 끝난 후엔 배달어플 사용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년간의 요기요 주문 데이터를 통해 최근 명절 트렌드를 분석한 결과, 연휴 기간 가운데 명절 당일 주문 수가 가장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요기요 분석에 따르면 2023년 추석 연휴 기간 주문 수는 전년 대비 평균 56.1% 늘었다. 특히 추석 당일에는 65.8% 증가했다.** 올해 설 연휴 기간에도 평균 주문 수는 지난해 대비 76% 늘었으며, 설날 당일 주문 수는 84% 상승했다. 요기요는 해당 조사 결과와 관련해 명절 당일 및 연휴 기간 영업을 하지 않는 음식점이 많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이례적인 주문 수치라고 말했으며, 주문 수 증가의 주요 요인으로 달라진 명절 트렌드와 배달 음식의 다양화를 꼽았다. 한편, 배달주문을 가장 많이 한 세대는 40대로 나타났으며, 50대는 배달 대신 외식을 즐겨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디저트가
추석 선물이 된다고?

명절을 맞아 자신의 마음을 선물로 표현하는 이들이 많아졌다. 추석 선물 트렌드 관련 대학내일20대연구소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모든 세대가 받고 싶은 선물 1위로 ‘현금’을 꼽았다. 2위부터는 조금 다른 양상을 보였는데 밀레니얼 세대와 X세대에서는 백화점상품권, 복지포인트, 주유상품권 등 ‘현금성 상품권’이 2위를 차지했다. 하지만 Z세대에서는 ‘디지털, IT기기’가 2위를 차지했고, 후기 밀레니얼 또한 가전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26.5%로, 다른 세대 대비 퍼센트가 높게 나왔다. 이와 관련 G마켓에서 추석을 앞둔 열흘간의 판매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로봇 청소기가 누적 판매 랭킹 1위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 뒤로는 태블릿 PC, 모니터 등 디지털/가전 분야 등 나를 위한 선물들이 인기를 끄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독특한 것은 Z세대 순위에 ‘디저트’ 선물 품목이 등장한 것이다. 이는 최근 MZ세대 사이에서 약과나 개성주약 등 전통 디저트에 대한 인기가 높았던 현상을 떠올리게 하는 결과다.** 한편, 다양한 추석 선물 중에서도, 미코노미를 반영한 선물 세트가 인기를 끄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코노미는 본인을 위한 소비를 의미하며 최근에는 개인의 가치·신념·취향을 반영한 소비를 의미하는 개념으로, 유통 업계에서는 ‘스티로폼 제로’, ‘저탄소 한우’ 등 선물 세트에 친환경 요소를 도입해 소비자들의 선택의 폭을 넓히고 있다.

쌍방향 소통으로

고객에게 더 가까이!

옥천지점

탁 트인 풍경을 자랑하는 옥천지점은 물 좋고, 산 좋은 지점으로
통한다. 여기에 고객을 생각하는 직원들의 마음까지 더해져
옥천지점은 언제나 방문하고 싶은 지점으로 자리 잡고 있다.



QR코드를 스캔하면
<with IBK>를 영상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IBK 옥천지점

탁 트인 시야처럼

탁 트인 업무환경

옥천지점이 위치한 충북 옥천은 우리나라 배꼽에 해당하는 지역이다. 남한 국토 중심에 자리한 만큼 옥천지점 또한 옥천 금융의 중심이 되기 위해 부단히 노력 중이다. 현재 옥천지점은 장령산의 시원한 산등성이와 마주하고 있다. 그래서일까? 산등성이처럼 곧고 시원한 업무 처리로 고객들의 어려운 부분을 말끔히 긁어줘 고객들의 높은 만족을 이끌고 있다.

또한 2007년 개점해 17년째 옥천군민과 함께하고 있는 옥천지점은 지역 사회 발전에 큰 보탬이 되기 위해 누구보다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으며, 옥천 내 최고의 금융 기관이라는 타이틀을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옥천지점은 장령산의 시원한 산등성이처럼 곧고 시원한 업무 처리로 고객들의 높은 만족을 이끌고 있다.



Support





Service

군민을 생각하는 따뜻한 마음

현재 지역 내 유일 국책은행으로서 옥천군 자금을 최
다 지원하고 있는 옥천지점은 내점 고객의 평균 연령
대가 높은 만큼 노령고객에게 더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신분증 없이 지점을 방문해도 은행 업
무를 볼 수 있는 IBK디지털인증서비스를 도입했다.
그 결과, 2024년 6월 기준, 관내 1위 전국 3위라는
실적을 달성했다. 이 외에도 고객을 가족처럼 여기며
업무에 임한 결과, 2023년 12월에만 전화금융사기
피해를 두 번이나 예방했다.

옥천지점은 이와 같은 금융 서비스 외에도 2023년부
터 지역아동센터 4곳에 매월 39만 원을 후원하는 등
지역 사회와 동행 중이다. 2023년 8월 이전 개점식
당시에는 축하 화환 대신 쌀(백미) 50포를 받아 저소
득가정 아동들을 위한 '이웃사랑 후원물품'으로 기탁
했다. 또 학업에 열정을 가진 학생들이 미래로 나아
갈 수 있도록 지역 내 유일 대학인 충북도립대에 매
년 2회씩 장학금을 지급하는 등 인재 육성에도 힘쓰
고 있다.



함께 만드는 옥천지점의 미래

현재 옥천지점은 정책금융 기관으로서 지역 내 위치한 기업 지원에도 열과 성을 다하고 있다. 아울러 소상공인 전담 은행화를 위해 충북신용보증재단과 연계한 자금을 지원 중이며, 옥천군 외 충북 남부권 영동군과 보은군 기업금융 지원에도 앞장서고 있다. 또 개인금융 균형 성장 및 경쟁력 강화가 중요해진 만큼 개인금융 확대에도 힘쓰고 있다. 이처럼 옥천지점이 여러 가지 목표를 세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바탕에는 쌍방향 소통과 ESG 경영 선도로 인한 전면 전자 결재화가 깔려있다. 덕분에 더 다양하고 신속한 해결책 제시로 고객 상황에 대한 공감은 물론, 고객 만족으로 이어져 지점에 대한 신뢰도도 함께 높아지는 중이다.

한편, 옥천지점은 앞으로 전 직원이 금융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지점 내 정보 공유 및 소규모 스터디를 꾸준히 진행할 계획이다. 또 본격적인 자영업자(SOHO) 점포 우선 실시를 통해 전 직원이 여신 및 수신업무를 담당해 서비스의 공백을 차단할 예정이다. 옥천지점이 옥천군 모든 기업이 거래하고, 옥천군민 모두가 편하게 거래하는 은행이 되겠다는 목표를 설정한 가운데 앞으로도 지금과 같은 미소로 고객에게 다가가기 위한 응원한다.

Communication



옥천지점이 여러 가지 목표를 세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바탕에는 쌍방향 소통과 ESG 경영 선도로 인한 전면 전자 결재화가 깔려있다.



Mini Interview



옥천지점
김미정 지점장

월요일이 기다려지는 지점

누구 하나 빠짐없이 다 같이 노력하고 참여하며 서로 믿고 챙겨주는 가족 같은 분위기를 조성해 출근하고 싶은 지점을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서로 근무하고 싶은 지점이 돼야 고객들에게 더 큰 에너지와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행복한 지점을 만들어 행복한 고객이 많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옥천은 노령인구가 많은 만큼 지점에 오시는 분들 모두를 가족으로 여기며 편안하게 업무 보실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건강한 명절 보내세요~

벌써 추석 명절입니다. 저의 명절 소원은 첫째도 건강, 둘째도 건강, 셋째도 건강입니다. 건강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살 수도 없으니 건강을 최고로 여기며 하루하루 행복하게 지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추석 명절 잘 보내시고 항상 한가위 같은 나날 보내세요~

김미정 지점장



항상 응원해

권윤미 팀장



너였으면돼

김은정 대리



너는 최고야

지윤정 대리



같이해보자

나를 프로일잘러로 만들어 주는
칭찬 한마디는?
□□□□□



유효정 과장



정말 애썼어

김태민 과장



역시 김우천

송현순 대리



역시 송이야

김도경 대리



고생 많았어

김채원 대리



충분히 멋져

한준호 경비원



안녕하세요



평촌서울나우병원 건축 모형
제28회 경기도 건축 문화상 '특별상' 수상

평촌서울나우병원 건물은 설계부터 건축 인터리어 전반에 걸친 통합설계로 아름다운 외관과 병원의 특성을 고려한 전문성 있는 설계 완성도 높은 건축물로 인정받으며 특별상을 수여받았습니다.

환자를 향한 따뜻한 진심 정형외과 병원의 정통을 이어가다

평촌서울나우병원 정재윤 대표원장
평촌지점 거래 기업



새롭고(New), 열려 있으며(Open), 따뜻한(Warm) 병원.
올해 초 보건복지부로부터 관절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은
평촌서울나우(NOW)병원의 이름 뜻이다.
그 안에는 매순간 환자 중심의 치료를 하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다.

- 2024 ○ 보건복지부 지정 관절 전문병원
- 2023 ○ 보건복지부 인증 의료기관
- 2023 ○ 정형외과 세부 분과 전문의 12인 진료
- 2022 ○ 신축병원 완공(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72)
- 2020 ○ 김준배 원장 '백년쓰는 관절 리모델링' 도서 출간
- 2019 ○ SAC 의료건강 사회공헌 대상 수상
- 2018 ○ 자체 개발 셀프운동법 '큐아리' 런칭
- 2017 ○ KHC(Korea Healthcare Congress) 환자 경험 모범사례 발표
- 2016 ○ 안양시민프로축구단 'FC안양' 메디컬 스폰서 협약
- 2015 ○ 3월 평촌서울나우병원 개원

원스톱 통합 시스템을 갖춘 정형외과 중점 진료 병원



평촌서울나우병원은 안양시 동안구에 자리한 정형외과 병원이다. 정형외과는 목부터 발끝까지, 소아부터 노인에 이르는 모든 연령의 모든 관절 부위와 척추에 대한 근육 및 힘줄 그리고 신경 문제에 대한 치료를 담당하는 근골격계 전문 치료과이다. 그동안 관절, 척추 병원은 많았으나, 정형외과 전 영역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병원을 찾기가 쉽지 않았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평촌서울나우병원은 2015년 개원 당시부터 우리나라에 새로운 형식의 정형외과 병원을 만들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1863년 미국 뉴욕에 설립된 HSS(Hospital for Special Surgery) 병원은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정형외과 전문병원으로, 그 수준이 세계 최고입니다. 평촌서울나우병원은 미국 HSS 병원을 지향점으로 두고 모든 관절 및 척추 질환의 통합적 치료가 가능케 했습니다.”

소아부터 노인까지, 목부터 발끝까지 전 연령별·분야별 정형외과 진료가 가능한 것은 평촌서울나우병원에 정형외과 세부 분과 전문의 12명 외에도 류마티스내과, 입원전담, 마취통증의학과, 근골격계 영상의학과 등 분야별 세부 전문의 19명이 병원에 상주하기 때문이다. 총 19명의 세부 전문의가 각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성을 발휘하는 구성원으로 역할을 하고 있으며 그 중 5명의 공동원장들은 서울대병원 정형외과 의국 선후배들로 뭉쳐있고 같이 동참하고 있는 의료진 역시 선후배들로 연결된 점은 평촌서울나우병원의 큰 강점이라고 할 수 있다. 정재윤 대표원장은 척추, 김준배 원장은 무릎, 이혁진 원장은 손·팔꿈치·소아, 윤필환 원장은 고관절, 박종현 원장은 무릎·어깨를 맡아 중점적으로 진료한다.

“수준 높은 의료 기술과 경험을 가진 전문의들이 한 자리에 있기에 평촌서울나우병원에서는 0세의 선천성 기형부터 100세의 고령 환자의 질환까지 진료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병동과 진료과별 전담 간호사제를 운영하고, 물리치료사와 운동



평촌서울나우병원의 특징

Step. 1

‘환자 중심(Patient First)’의 치료·병원 문화

모든 과정에서 질환과 치료에 대한 충분한 설명
환자경험매니저가 상주해 환자와 병원 간의 소통을 담당

Step. 2

‘질환별 표준진료지침’, ‘환자경험 평가’ 시행

표준화된 진료를 통한 적정진료 및 환자 만족
환자의 경험을 파악·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Step. 3

보건복지부 지정 ‘관절전문병원’, ‘인증의료기관’ 획득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의 결과
정형외과 관절 분야의 전문성을 인정받음

처방사가 한 팀이 되는 팀 케어 시스템과 같은 한 차원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와 같은 원스톱(One-Stop) 통합 시스템으로 환자분들이 하루 만에 진료-검사-최종 진단-치료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한국형 회전인공관절(b.r.q Knee)’, ‘최소침습술(MIS) 수술기구’ 선도하는 의료 시스템



평촌서울나우병원을 이해하려면 서울나우병원의 설립자 강형욱 이사장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강형욱 이사장은 서울대학교 의대 졸업 후 미국에서 30여 년간 정형외과 전문의로 활동했으며, 한국의 많은 슬관절 전문의들에게 영향을 끼친 분으로 2002년 분당에 서울나우병원을 개원했다. 이후 서양인과 한국인의 무릎 관절 형태가 다른 것을 발견하고, 2010년 한국인 무릎에 맞는 ‘한국형 회전인공관절(b.r.q Knee)’ 개발에 성공했다. 퇴행성관절염 등으로 무릎을 사용하지 못하는 노인 인구가 많은 우리나라에서 한국인 맞춤형 회전인공관절의 개발은 무척 획기적인 것이었다. 한국인의 생활 습관에 맞게 최대 150도까지 무릎을 꿇고 앉는 것도 가능하며, 기존의 인공관절 수명보다 2배 이상인 20년 이상의 수명을 유지할 수 있다. 이는 병원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보다 아픈 이들을 치료하는 정직한 병원을 세우겠다는 강형욱 이사장의 뜻이 담긴 결과였다.

“강형욱 이사장님은 평촌서울나우병원 김준배 원장님의 스승이자 멘토이시기도 한데요. 초기 평촌서울나우병원의 개원에 큰 역할을 하셨습니다. 병원 1층

역사관에 강형욱 이사장님께서 기증하신 조형물이 있는데 병원의 세 가지 핵심 가치인 정직, 정확, 정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항상 이 뜻을 잃지 말고 환자 중심의 병원 문화를 선도하라고 당부하셨습니다.”

평촌서울나우병원은 ‘한국형 회전인공관절’을 비롯, 기존 수술법보다 작게 절개가 가능한 ‘최소침습술(MIS) 수술기구’ 등 세계적인 수준의 의료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경기 서남부 지역에 정형외과 영역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병원이 생겼다는 소식은 입소문을 타고 빠르게 퍼져나가, 2015년 개원 당시 연간 내원 환자 수 4만 명에서 2023년 14만 명이라는 큰 성장을 이루었다. 나아가 2023년 보건복지부 인증 의료기관, 2024년 보건복지부 지정 관절 전문병원을 획득해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다. 현재 안양시민프로축구단 ‘FC 안양’과 프로농구단 ‘안양 정관장 레드부스터스’의 메디컬 스폰서 병원이며, 정재윤 대표원장은 KBO의무위원회 의무위원, LG트윈스 프로야구단의 홈경기 필드 닥터로 위촉되어 활동하면서 선수들의 부상방지 및 재활에 적극적인 의료자문 활동을 하고 있다.





환자 중심의 진료
국내 최고의 정형외과 전문병원으로



정재윤 대표원장은 의사의 의료 행위가 환자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 지 잘 알기에 환자 중심의 진료에 대한 가치를 거듭 강조했다.

“기억에 오랫동안 남은 환자분이 있는데요. 15년 전 교통사고로 척추가 골절되고 마비가 온 상태의 60대 여자분입니다. 수술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성공적으로 수술을 마쳤고, 3개월 동안 재활치료도 잘 받으셔서 걸어서 퇴원하셨습니다. 현재는 80대가 되셨는데 외래진료에 오실 때마다 그분도, 아드님도 항상 고마워하세요. 그런 진심 어린 말 한마디에 힘을 얻곤 합니다. 간혹 의사라는 직업에 대해 색안경을 끼고 보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의사는 개인의 자발적 사명감과 책임감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하거든

요. 환자와 의사가 서로를 이해하고 힘을 주는 관계가 된다면 더욱 살기 좋은 사회가 되리라 믿습니다.”

의료를 통한 ‘섬김·사랑·선교’라는 병원 설립 정신을 실천하고자 국내 및 저개발국가 대상으로 의료봉사 활동을 꾸준히 전개해 온 평촌서울나우병원. 앞으로 정재윤 대표원장이 꿈꾸는 평촌서울나우병원은 어떤 모습일까. “경기도를 넘어 중부권, 더 나아가 국내 최고의 정형외과 전문병원으로 자리매김하고, 세계 유수의 병원들과 협력하는 병원으로 성장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앞으로 긴 시간이 지난 후에도 환자를 위해 봉사하고 가치 있는 일을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고객에게 편안함을 주는
IBK기업은행!
항상 감사합니다.



Q. 평촌서울나우병원의 운영 철학은 무엇인가요?
A. 좋은 의사는 수술을 많이 하는 의사가 아니라 수술이 꼭 필요할 때를 알고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의사입니다. 저희 평촌서울나우병원의 의료진은 과도한 수술과 치료를 지양하고, 정직하고 정확한 진료를 바탕으로 꼭 필요한 치료만 시행함으로써 환자에게 신뢰받는 병원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환자 중심 의료 서비스를 최우선 가치로 삼으며 정형외과 영역의 전문화된 병원의 정통을 이어가는 것이 평촌서울나우병원의 운영 철학이자 목표입니다.

Q. IBK기업은행과의 인연을 소개해 주세요.

A. 사실 저희 병원과 IBK기업은행은 처음부터 인연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인연을 맺게 된 계기는 우선 지점장님의 제안서가 훌륭했구요. 무엇보다 안정성을 추구하고 고객의 니즈를 반영하는 IBK기업은행이 가진 기업 분위기가 저희 병원과 결이 맞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금융거래가 더 오랫동안 가능할 수 있도록 고객에게 편안함을 주는 기업문화가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해, 원장단의 결정 하에 주거래 은행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인연을 맺게 된 이후 평촌지점에서 정말 많은 부분을 신경 써주시고 저희도 신규 직원이 채용되면 IBK기업은행 계좌로 연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평촌서울나우병원
정재윤 대표원장

평촌지점이 평촌서울나우병원의
가치금융 동반자로서
함께 하겠습니다.



Q. 평촌지점을 소개해 주세요.

A. 1995년 개점 이후로 내년이면 30주년을 맞이하는 평촌지점은 수도권 중심지인 안양시 동안구에 위치하여 서울과 경기 남부 지역의 주요 도시들을 연결하며 수도권·경기도의 핵심 거점 점포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같은 건물에 IBK남중지역본부와 평촌WM센터, IBK투자증권 등 복합 금융 인프라가 갖추어져 최적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 가능합니다. 항상 고객의 곁에서 진심을 다하는 최상의 금융 파트너로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및 혁신기업, 기술형 미래기업 발굴과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평촌지점은 기업의 더 큰 성장과 금융·비금융의 모든 분야를 지원하는 지역 내 대표 금융기관입니다.

Q. 평촌서울나우병원과 평촌지점이 추구하는 미래의 모습은 무엇인가요?

A. 평촌지점의 동반성장 파트너, 평촌서울나우병원이 추구하는 가치는 ‘정직·정확·정통’입니다. 좋은 친구는 서로 닮아간다고 하듯, 평촌서울나우병원과 평촌지점은 서로를 거울처럼 비추며 공통의 목표를 향해 함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평촌서울나우병원은 환자 중심의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 내 대표 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평촌지점은 고객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여기며 평촌서울나우병원을 든든하게 지원하는 가치금융 동반자로서의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평촌지점
도상수 지점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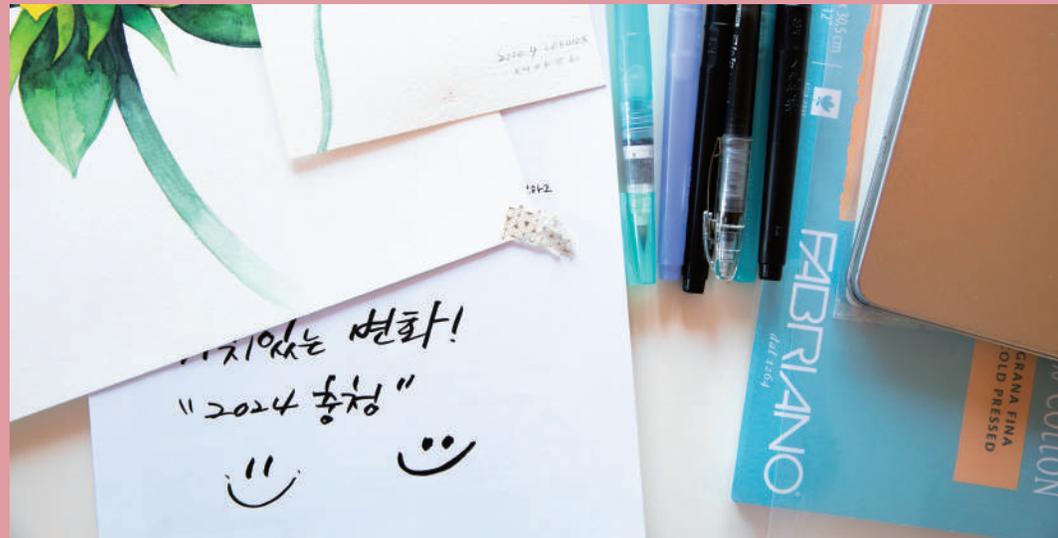
문장에

마음을 담는 시간

세종지점 장성운 지점장



상대를 생각하며 문구를 고르고 정성을 다해 붓으로 글을 적어나간다. 글귀와 어울리는 작은 그림을 그려 넣는 작업까지. 장성운 지점장에게는 마치 명상과도 같은 치유의 시간이다.



마음을 다스리는 시간

좋아하는 것을 마음껏 배우다

캘리그래피를 시작한 지 4년 차. 거의 매주 붓펜으로 작업을 하지만 장성윤 지점장의 자택에는 작업물을 찾아보기 힘들다. 그의 손을 거쳐 완성된 액자나 카드 등은 대부분 누군가의 선물로 전달된 상태이기 때문이다. “캘리그래피를 처음 배울 때부터 목적이 분명했어요. 주변에 조금 더 특별한, 정성을 담은 선물을 주고 싶은 마음이었죠. 실제로 수업 초반부터 작업한 카드 등을 바로바로 선물로 전달했어요. 그래서 막상 집에는 가족에게 준 선물과 습작 몇 장 말고는 작업물이 없네요(웃음).”

장성윤 지점장이 처음 캘리그래피를 배운 것은 팬데믹이 한창이던 2020년 4월이었다. 사람들을 만나기 힘들어지면서 오래전부터 배우고 싶었던 수업에 도전해 보게 되었다.

“제가 어린 시절부터 글씨 쓰기, 특히 붓글씨에 관심이 많았거든요. 초등학교 저학년 때 서예학원을 다녔

는데, 대회에도 몇 번 나갔어요. 붓을 잡고 있으면 마음이 참 편하고 좋아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는 펜글씨를 배우기도 했죠. 좋아하는 일이다 보니 아무 수업이나 듣고 싶지 않더라고요. 마음에 드는 수업을 듣기 위해 이것저것 많이 찾아본 것 같아요.”

붓글씨 수업을 기본으로 서체, 수업 방식 등 여러 방안을 고려한 끝에 청주에서 하는 캘리그래피 수업을 선택하게 되었다. 자택이 오창에 있는 장성윤 지점장은 매주 운전해 청주를 오가며 수업을 들었다.

“매주 토요일마다 수업이 있었는데, 편한 시간에 방문해 차를 한 잔 마시면서 작업을 진행했어요. 워메이지 않은 자유로운 분위기가 저와 아주 잘 맞았어요. 그래서 6개월간 빠지지 않고 수업을 들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목적이 명확해서일까? 수업을 듣는 동안 실력은 빠르게 늘었다. 캘리그래피를 배우고 정식으로 완성한



첫 작품은 어버이날 문구였다. 사랑과 감사의 글귀를 적어 부모님께 선물로 드렸다. 수업을 들은 지 채 한 달도 안 된 시기였다. 처음에는 구도 잡는 게 어려워서 클래스 선생님의 도움을 받았다. 선생님이 먼저 시범을 보이면 구도를 참고해서 자신만의 작업을 완성해 나갔다.

지금도 종종 다른 작업물을 보고 연습한다는 장성윤 지점장. 그동안 터득한 ‘캘리그래피를 잘하는 노하우’는 이렇다. 첫째는 ‘관심’이다. 원래 글씨 쓰는 것을 좋아했기 때문에 즐겁게 할 수 있었고 덕분에 빠르게 실력이 늘었다. 두 번째는 ‘여유 있는 마음’이다. 글씨는 급하게 쓰면 마음과 다른 결과물이 나온다. 템포를 늦추고 충분한 시간을 들여야 원하는 결과물을 얻을 수 있다. 세 번째는 많은 ‘연습’이다. 타인의 작업물도 충분히 보고, 실제로 많이 작업을 해봐야 자신만의 스타일도 완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글귀와 함께 마음을 전하다

우리는 살다 보면 참 많은 기념일을 마주한다. 기념일이 아니어도 작은 선물로 소소한 마음을 주고받을 일도 많다. 캘리그래피를 배운 덕분에 지점에서 고객에게 전달하는 선물 문구는 장성윤 지점장의 담담이 되었다. 고객 이외에도 인사이드동으로 헤어지거나 승진하는 주변 직원들의 축하 문구 또한 그가 담당한다.

“사실 제가 쓴 글씨를 ‘작품’이라고 부르기에는 조금 부끄러워요. 하지만 주변에 작은 선물을 할 때 캘리그래피로 정성 들여서 쓴 카드를 곁들이는 것만으로 ‘마음’을 담은 느낌이 들어요. 실제로 제가 직접 써서 드렸다는 것만으로도 감동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정말 뿌듯하죠.”

장성윤 지점장은 특히 캘리그래피로 적을 문구를 고르는 시간을 좋아한다. 선물 받는 사람에게 어울리거나 상황에 맞는 글귀를 찾는 과정 동안 그 사람에 대해 찬찬히 생각해 보게 된다고.



“제 종교가 기독교라서 관련 문구를 자주 적긴 하는데, 그런 선물은 대부분 같은 종교인에게 드려요. 비종교인에게는 생일이나 진급, 크리스마스 등 선물의 의미와 관련된 문구를 찾아서 적어 드리곤 하죠. 얼마 전 지점에서 전출간 직원에게 ‘자신의 그릇은 스스로 만드는 것이다’라는 의미의 문구를 적어서 선물했어요.”

캘리그래피의 활용도는 무궁무진하다. 크게는 액자를 만들 수도 있고, 카드를 멋스럽게 꾸미기에도 좋다. 화분이나 책 등 간단한 선물을 할 때도 손글씨로 꾸민 카드를 끼워 넣는 것만으로도 선물이 멋스러워진다. 캘리그래피 선물을 자주 하다 보니 임의로 낙관까지 만들었다.

“설명 없이 카드를 드리면 가끔 기성품을 구입한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도 직접 손으로 쓴 건 알아주셨으면 해서 요즘은 ‘제가 직접 썼어요’ 하고 알리기도 해요. 최근에는 제 이름 ‘윤’ 자를 활용



해 낙관도 만들었어요. 처음에는 조금 부끄러웠는데, 캘리그래피 선생님께 들어보니까 보통 지우개를 파서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낙관을 찍고 나니 손으로 작업했다는 느낌이 확실히 나더라고요. 그런데 여름이 되니 지우개가 녹아서 정식으로 도장을 파서 제작할까 고민 중이에요(웃음).”



천천히 손글씨를 쓰고 그림을 그리다 보면 자연스럽게 작품에 ‘마음’이 담긴다고.

4년 동안 캘리그래피를 유용하게 활용하다 보니 추가로 배우고 싶은 수업도 생겼다. 작업할 때 글귀를 꾸며주는 그림 실력을 업그레이드하고 싶어졌기 때문이다.

“캘리그래피를 지도해주셨던 선생님이 이번에 ‘어반 스케치’라는 클래스를 개설하셨더라고요. 특정 장소에 가서 그 모습을 스케치로 남기는 수업인데 정말 들어보고 싶어요. 수업을 듣고 나면 캘리그래피 작업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 마음까지 치유하는 캘리그래피

붓글씨를 쓰는 시간은 장성윤 지점장에게 명상과 같은 역할을 한다. 그는 작업하는 동안 다른 생각은 하지 않고 선물할 사람을 떠올리며 그에 맞는 문구를 찾고 글귀에 어울릴 그림을 고른다. 그렇게 구상을 하고 천천히 손글씨를 쓰고 그림을 그리다 보면 자연스럽게 작품에 ‘마음’이 담긴다고.

“우리는 글을 쓰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또 음악을 들으면서 스트레스를 해소하잖아요. 캘리그래피도 비슷한 효과가 있어요. 잡념이 없어지고 마음이 차분해지죠. 어찌 보면 명상 같은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마음이 차분해지고 스트레스가 해소되는 느낌이 좋아서 꼭 선물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어도 자주 작업을 한다는 장성윤 지점장. 복잡한 재료도 필요하지 않다. 굵기별로 붓펜 세 가지 정도와 12색짜리 휴대용 물감과 워터펜만 있으면 작업이 가능하다. 작은 가방에도 쏙 들어가는 간단한 재료지만 표현할 수 있는 폭은 한 없이 넓다. 필요할 때는 종이만 추가로 준비한다. 마음이 복잡할 때는 카페에 재료를 챙겨 가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며 마음을 다잡는다.

“은행 일이라는 게 고객을 상대하다 보니 스트레스 지수가 높아요. 사람들 사이에서 상처받는 일도 있을 수 있고요. 얼마 전에 직원권익보호관이 와서 검사했는데 저는 스트레스 지수가 아주 낮게 나오더라고요. 아무래도 캘리그래피 작업이 큰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바로바로 해소해 주니까요. 꼭 캘리그래피가 아니어도 좋아요. 스포츠, 책, 음악 등 나만의 마음훈련을 할 수 있는 취미활동을 꼭 가져보시라고 전하고 싶어요.”



끊임없이
성장하는



IBK항공 기업

IBK항공

마포

음성 텍스트 변환 플랫폼



소리를보는통로

음성을 인식해 실시간 자막을 보여주는 청각 장애인을 위한 음성인식 솔루션 기업



sovoro.kr

IBK항공

구로

글로벌 여행 커뮤니티 커머스



트립소다

전 세계 여행 정보부터 여행 동행까지! 전 세계 여행자들이 모이는 글로벌 여행 커뮤니티



tripsoda.com

IBK항공

부산

소아청소년과 원격진료 모델



다다닥헬스케어

소아청소년과 원격진료뿐만 아니라 디지털 AI 분석솔루션을 통한 영유아 대상의 헬스케어 전문 기업



smartstore.naver.com/boomcare

IBK항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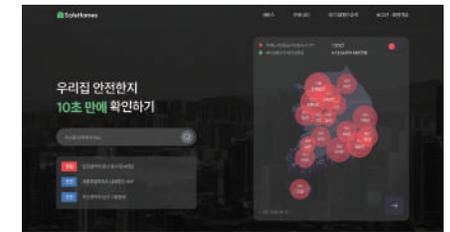
대전

부동산 금융 케어 서비스



테라파이

데이터베이스, 온라인 정보 제공 등 부동산 투자 자문 및 주거용 부동산 관리 정보 등을 제공하는 기업



safehomes.kr

IBK항공 마포

원활한 소통을 위한 지막 서비스



소리를보는통로(이하 소보로)는 인공지능 기반 문자 통역 소프트웨어 ‘소보로’의 개발사로, 현재 학교와 공공, 민간 등 900여 곳에 제품을 공급하며 난청인에게 의사소통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올해 기관 상담 창구용 ‘소보로Biz’를 출시하여 은행, 병원, 주민센터 등에서 고객 손님들과 난청인 내방객의 대면 상담 시 원활한 소통을 가능케 했다. 해당 서비스에는 **발화가 어려운 청각장애인 사용자의 양방향 소통을 위한 필담, TTS(Text-To-Speech), AAC(그림 상용구 선택 소통) 기능이 탑재되어 있다.** 소보로는 앞으로 비난청인에게도 하나의 서비스로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다양한 기능을 연구해 국내 시장에서 입지를 확보해 나갈 예정이다.



IBK항공 구로

여행 커뮤니티 플랫폼



트립소다는 여행 동행 매칭을 기반으로 한 국내 1위의 여행 커뮤니티 앱 서비스와 스몰 그룹 투어 기반의 여행 커머스의 결합을 통해 개별자유 여행자들에게 최상의 여행 경험을 제공하는 여행 커뮤니티 커머스 서비스이다. 트립소다는 여행 동행 커뮤니티의 성장을 기반으로, 자체 어드벤처 여행 브랜드인 ‘미라클 몽골’, ‘웨이포인트스’(중앙아시아), ‘슬라 카펫 라이드’(이집트) 등을 성공적으로 선보이고 있다. 지난해 **첫 투자를 유치한 이후 1년간 주요 지표가 3배 이상 성장했으며 최근 카이스트투자지주로부터 브릿지 투자를 유치, 자체 브랜드의 어드벤처 상품을 공격적으로 확보**하고, 커뮤니티와의 연결성을 강화해 여행 업계에서 독보적인 경제적 자를 확보해나가는 데 주력하고 있다.



IBK항공 부산

편리한 AI 진료 솔루션



다다닥헬스케어는 단순히 소아청소년과 원격진료뿐만 아니라 디지털 AI 분석솔루션을 통해 영유아의 아픈 상태를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아이가 더 아프기 전에 미리 예방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이다. **현재 다다닥헬스케어는 혁신 의료기기를 기반으로 집에서 간편하게 소아청소년과 원격진료를 받을 수 있는 기술을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있으며, 최근 영유아 특화 혁신 의료기기뿐만 아니라 AI 기반 소아청소년과 보조 진단 모델에 대한 사업 확장성까지 인정받았다.** 한편 다다닥헬스케어는 현재 글로벌 시장으로 범위를 확장하기 위해 노력 중이며 원격진료가 전면 허용된 일본 시장 내 원격의료 업체와 MOU를 체결해 글로벌 진출을 위한 발판을 마련 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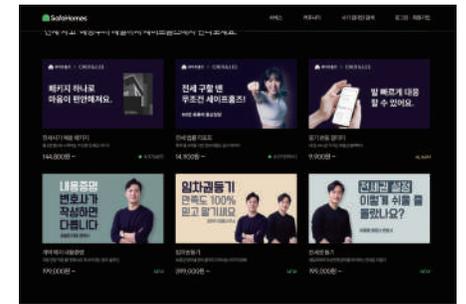


IBK항공 대전

부동산 권리분석 서비스



테라파이는 임대인보다 부동산 정보 및 권리 분석에 열악한 임차인을 위해 각종 정보를 제공하는 등 ‘전세 사기 예방 권리분석 리포트’를 서비스하고 있다. **주요 서비스로는 임대차 커뮤니티, 보증금 진단 리포트, 임차인 케어 서비스, 안심 중개 지도가 있다. 또 감정평가법인, 경매 옥션사, 전세사기피해대책위원회와의 협력을 통해 차별화된 데이터를 확보해 고객 맞춤형 정보를 전달 중이다.** 한편, 테라파이는 최앤리 법률사무소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법률적 안정성을 강화했다. 이 외에도 테라파이는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 경매 분석 리포트, 부동산 등기 변동 알림 서비스 등을 도입해 앞으로 부동산 거래를 하는 모든 사람이 안전하게 집을 구할 수 있도록 기술로 부동산 정보 불균형을 해소할 예정이다.





내 뱃살의 원인이 '먹방'이라고?

다이어트 중 대리만족을 위해 '먹방'을 봤는데
먹방이 부메랑이 되어 다시 비만을 불러온다면?
먹방의 불편한 진실을 확인해보자.

먹방 보다가 자연스럽게 배달 어플 터치

바쁜 현대 사회, 혼밥을 즐기는 이들 대부분이 혼밥 메이트로 '먹방'을 시청한다. 지난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 따르면 일상·여행·맛집, 뉴스·정치, 영화·엔터 등 온라인 동영상 유형에서 한국인이 가장 많이 시청하는 콘텐츠는 먹방(61%)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사람들이 먹방을 즐겨보는 이유는 무엇일까. 먼저, 밥심의 나라답게 누군가의 푸짐하고 자극적인 식사를 보며 얻는 대리만족이 크고, 또 자신이 알지 못하는 음식 조합, 신상품에 대한 정보 등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누군가는 먹방이 우리의 식습관을 나쁘게 만들고, 불필요한 식욕을 자극해 비만을 부추킨다고 말한다. 연세의대 예방의학교실에서 실시한 '먹방 시청과 비만 위험 간의 연관성' 연구에 따르면 먹방 시청이 비만으로 이어지는 대표적인 원인은 '따라 하기'로 나타났다. 인플루언서의 먹방을 보면서 빨리 먹기, 많이 먹기, 간식 먹기, 야식 먹기 등을 따라 해 운동과 사회적 상호작용 등 다른 활동에 대한 참여가 줄어들어 비만이 될 확률이 높다는 것이다.

개인의 의지와 성향에 따른 결과일지도

먹방과 비만의 상관관계를 파헤치기 위해 전남대 식품영양학부에서 먹방 시청이 체지방과 식(食) 행동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연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주당 먹방 시청 시간이 7시간 미만인 사람보다 14시간 이상인 사람의 체지방 지수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긴 시간 동안 먹방을 시청하면, 장기적으로 식습관이 나빠질 확률이 높고, 비만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경고하는 연구 결과다. 하지만 먹방 시청이 모두에게 비만을 불러오는 것은 아니다. 평소 자제력이 있고, 좋은 식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먹방에 대리만족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자제력이 없고 행동 모방심리가 큰 사람이라면 먹방 때문에 식욕이 더 커질 가능성이 크다. 좋은 식습관을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의 식사 장면을 통해 화면 속 인물과 같은 만족감을 느끼지만, 모방심리가 큰 사람은 '음식을 먹는 행위' 자체를 따라 하게 된다는 것이 전문가의 견해다. 한편, 먹방을 조금 더 건강하게 즐기려면 하이라이트 부분만 시청하기보다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하는 것을 추천한다. 어떤 것에 반복 노출되면 심리적으로 해당 물질에 대한 욕구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지금 내 다짐, 더 똑똑하게 기록하자!



하루를 마무리할 때 우리는 다이어리에
그날의 반성과 앞으로의 다짐을 기록한다.
하지만 혼자 본다고 해서 소리 나는 대로 쓸 수는 없는 법!
일과의 고단함으로 놓치기 쉬운 맞춤법을 소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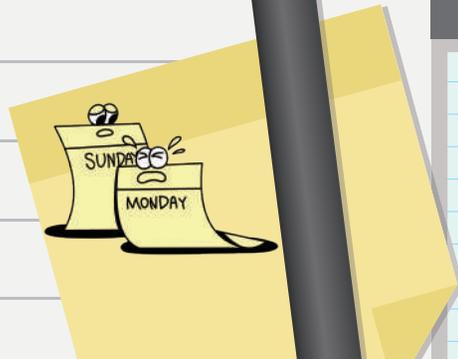


프로젝트 마감도 **몇일** 안 남았고,



어차피 해야 할 일이니까 힘내서 해결해보자.

오늘도 파이팅!



어차피 [어차피]로 강하게 발음하는 경우가 많아 헛갈리는 맞춤법 중 하나지만, ‘어차피’가 올바른 표현입니다. 또 ‘어차피’를 순우리말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어조사 어(於), 이를 차(此), 저 피(彼)로 이뤄진 한자어로, ‘이렇게 하든지 저렇게 하든지’라는 뜻을 나타냅니다.



구지 ‘구지’와 ‘굳이’의 발음 모두 [구지]이기 때문에 표기에 있어 헛갈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고집을 부려 구태어’라는 뜻을 나타내고 싶을 때는 ‘굳이’가 맞는 표현입니다. 아울러, 구지 외에도 굳이로 표현하는 경우가 있는데 둘 다 표준어가 아니므로 사용에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랫만에 ‘오랫만에’가 맞는 표기법입니다. ‘오랫만에’는 오랫동안이라는 명사에 부사격 조사 ‘-에’가 붙여진 형태입니다. 여기서 오랜만은 ‘오래간만’의 줄임말로 ‘어떤 일의 시점에서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라는 뜻을 나타냅니다. ‘오래만’은 하나의 단어로 띄어쓰기가 필요 없습니다.

몇일 ‘며칠’은 ‘그달의 몇째 되는 날’을 뜻하는 말로 우리말 ‘몇’과 한자어 ‘일(日)’의 합성어인 ‘몇일’에서 유래한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옛말 ‘며칠’에서 온 표현입니다. 맞춤법 개정 전에는 몇일과 며칠을 다 혼용했지만 개정 이후, ‘며칠’로 통일됐습니다.

어따대고 ‘언다 대고’가 올바른 표현입니다. ‘함부로 말을 하거나 행동하는 사람을 나무라는 상황에서 쓰는 말’입니다. ‘언다 대고’의 ‘언다’는 ‘어디에다’라는 단어의 줄임말로, 반어적인 의문문에 주로 사용됩니다. 아울러 줄임말에 동사 ‘-대고’가 붙은 것으로 반드시 띄어쓰기해야 합니다.





공감을 통해 우리는 더 나은 세계,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성장의 길목에서 만난 AI는 과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에 공감하며,
우리를 더 큰 세상으로 인도할까요?
AI와 함께 그려갈 미래에 대해 알아봅시다.

데이터 보호주의:

AI 시대의 새로운 현실과 대한민국의 대응 전략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이 일상이 되며 사회 전반에 걸쳐 혁신을 가져오고 있다. 사무실에서는 인공지능 기반 오피스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사업계획서나 제안서 아이디어를 얻고 생성형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핵심성과지표(KPI) 달성 방안을 모색하는 새로운 업무방식이 보편화되고 있다. 제조업 현장에서는 스마트팩토리를 뛰어넘는 인공지능(AI) 자율제조 확산 흐름이 거세다. 특히, 제조 현장의 AI 도입은 선택이 아닌 생존을 위한 필수 전략으로 자리매김했다. AI 자율공장은 각 공정의 발생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분석해 이상 상태를 감지·진단할 수 있어 AI 자율제조 시스템이 도입됨에 따라 품질·생산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인공지능과 데이터 : 격변하는 글로벌 경쟁

인공지능의 기저에는 사람의 뇌 작동 원리를 알고리즘화한 머신러닝(Machine Learning)과 딥러닝(Deep Learning)이 작동한다. 인공지능이 학습과 추론하는 과정에는 데이터가 사용되는데, 데이터는 학습과 추론 과정에서의 핵심 원천이다. 기업에서는 서버에 저장되는 방대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빅데이터 분석과 AI 머신러닝을 통해 비즈니스 솔루션을 창출하는 데이터 처리 프로세스를 거친다. 또한 AWS나 MS 애저 같은 클라우드 기업이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기술을 결합하여 새로운 비즈니스 가치를 만들어 낼 수 있다.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습하는 인공지능은 의료, 금융, 제조 등 다양한 분야에서 놀라운 성과를 보여준다. 이처럼 데이터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각 국가 간 데이터 확보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이에 인공지능과 데이터의 관계를 살펴보고 새롭게 등장하는 데이터 주권과 보호주의의 내용을 정리해 그 대응 방안을 살펴보기로 한다.



데이터 보호주의는 글로벌 정보기술(IT) 기업을 견제하면서 자국 기업을 육성하려는 전략이나 자국 데이터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하려는 정책적 추세를 말한다.

데이터 보호주의 부상 관련 Copilot 이미지 생성



데이터 보호주의 새로운 움직임과 사례

우리는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공급망 관리의 중요성과 국가 간 기술경쟁이 더욱 치열해지는 것을 경험하였다. 특히, 2022년 말 생성형 인공지능 출현에 따라 성능이 우수한 반도체 수급이 문제가 되면서 각국이 글로벌 경쟁을 넘어 자국의 기술을 우선시하는 ‘자국 우선주의’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미국의 중국 견제로 시작된 반도체 공급망 재편과 같이 ‘손에 잡히는’ 영역에서 시작된 자국 우선주의가 플랫폼-데이터와 같은 무형의 소프트 영역으로까지 확산되는 양상이다.

데이터 보호주의는 글로벌 정보기술(IT) 기업을 견제하면서 자국 기업을 육성하려는 전략이나 자국 데이터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하려는 정책적 추세를 말한다. 이에 따라 인공지능에서 ‘원유’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지키려는 각국의 경쟁이 치열하다. 유럽, 중국에 이어 인도도 개인정보 보호를 명분으로 데이터의 국외 이전 제한을 추진하고 있다. 국가 안보나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해외 플랫폼 업체에 대해 국가가 개입하고 통제하려는 시도는 계속 반복되고 있다. 세계 곳곳에서 거대 IT 기업의 글로벌 경영과 데이터 보호주의가 충돌하는 양상이다.

지난 4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중국계 동영상 플랫폼, ‘틱톡’의 강제 매각법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틱톡은 1년 안에 미국 기업에 운영권을 매각해야만 미국에서 서비스할 수 있다. 현재 미국 국민 1억 7천만 명이 틱톡

을 쓰고 있는데, 이는 개인정보가 중국 정부로 흘러갈 우려가 있다는 데서 비롯된 일이다. 이러한 조치에 대해 중국 정부도 즉각 반박에 나섰다. 중국 역시 ‘국가 안보’를 내세우며, 미국 기업 ‘애플’에 일부 SNS 앱을 중국 앱스토어에서 삭제해 줄 것을 요구했다.

유럽연합(EU)도 이른바 ‘자국 플랫폼 보호주의’를 내세우며 데이터 보호주의 흐름에 가세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개인정보 역의 이전에 따르는 절차를 강화하는 일반 개인정보보호법(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GDPR)을 2018년 5월부터 시행한 것과 더불어, 구글과 메타 등 해외 빅테크에 대해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기업이 규정에 어긋나는 행동을 할 경우 글로벌 연간 매출의 4%(최대)를 벌금으로 내야 한다. 이처럼 주요 국가들이 이른바 디지털 빗장을 내거는 것은 본격적인 인공지능 시대로 접어들면서 데이터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데이터 통제권을 외국 기업에 빼앗길 경우 경제 주도권을 잃을 수도 있고, 자국민 정보의 해외 유출 위험성도 높일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내에서 생성되는 데이터를 외국 기업이 가져갈 경우, 보안 문제도 있지만 데이터 기반 미래 먹거리 사업과 가치사슬 구축에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데이터는 인공지능 학습과 추론에 사용되기도 하지만 새로운 신제품 개발과 신서비스 개발의 원천이기 때문이다.

플랫폼-데이터 국경 높이는 나라들

 미국	· 중국 바이든 정부가 360일 내로 틱톡 미국 사업권을 매각하지 않을 시 틱톡 미국 서비스를 금지하는 법안 제정
 일본	· 라인야후에 네이버와의 자본 관계 재검토 등 요구 · 빅테크 독점행위 규제하는 ‘스마트폰경쟁촉진법안’ 마련
 유럽연합(EU)	· 디지털시장법(DMA),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 등 제정해 빅테크 압박
 중국	· 중국 내 애플 앱스토어에서 왓츠앱, 스레드 삭제

출처 : The JoongAng

우리의 대응 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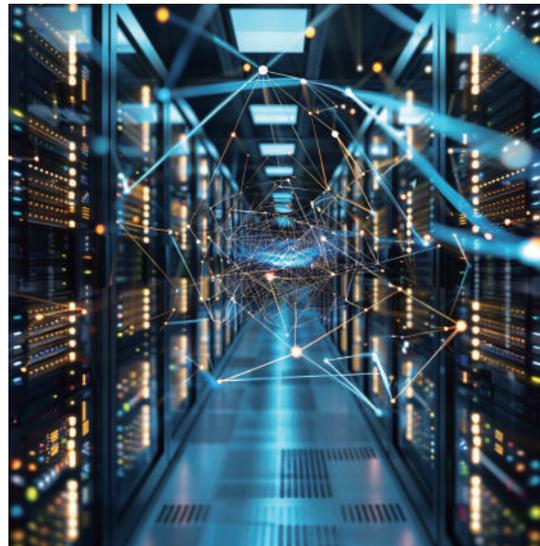
변화하는 글로벌 환경 속에서 대한민국은 데이터 보호 주의 시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차별적인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첫째, 글로벌 규제 동향 파악에 힘써야 한다. 대한민국은 글로벌 데이터 보호 관련 규제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고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특히 개인정보 보호 및 데이터 보호 관련 규제에 대한 이해를 높여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데이터 기반 산업 육성을 위해서 적극적인 지원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데이터 확보 및 활용 능력 강화에 대한 지원이 절실하다. 이에 정부는 기업들이 데이터를 용이하게 확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데이터 공유 플랫폼을 구축하고, 데이터 처리 및 분석 능력을 강화하는 교육 프로그램의 제공 역시 선행되어야 한다. 현재 데이터 기반 산업의 성장을 위해서는 데이터 과학자, 데이터 분석가 등 데이터 관련 핵심인재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정부는 교육기관과 협력하여 데이터 관련 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확대해야 한다.

셋째, 데이터 관련 규제 개선에 노력해야 한다. 데이터 기반 산업의 성장을 위해서는 지나치게 엄격한 규제를 완화하고, 기업들의 사업 활동을 촉진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데이터 보호와 AI 개발의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 데이터 보호를 강화하면서도 AI 개발에 필요한

데이터 보호주의는 인공지능 시대의 중요한 쟁점이다. 대한민국은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글로벌 규제 동향을 파악하고 데이터 기반 산업을 육성하며, 국제 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 강화, 데이터 윤리적 활용 확보, 투명한 데이터 관리시스템 구축 등의 노력도 시급하다. 개인정보 보호 관련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활동도 강화해야 함은 물론이다.

넷째, 국제 협력 강화와 국제기구 참여에도 신경 써야 한다. 국제기구 참여 확대를 통해서 데이터 보호 관련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국제 규제 논의 과정에 목소리를 더해 대한민국의 입장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데이터 보호 분야에서 선도적인 국가들과 양자 협력을 추진하여 데이터 공유 및 상호 인정을 위한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균형감 있는 정책이 필요한 시점

데이터 보호주의는 인공지능 시대의 중요한 쟁점이다. 대한민국은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글로벌 규제 동향을 파악하고 데이터 기반 산업을 육성하며, 국제 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데이터 보호와 인공지능 개발의 균형을 맞추어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정부와 기업, 시민 사회가 협력하여 노력한다면 대한민국은 데이터 보호주의 시대에도 경쟁력을 유지하고 미래 사회를 선도할 수 있다. 국내 기업을 보호하면서도 글로벌 빅테크로부터 우리 데이터를 보호할 수 있는 균형감 있는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인공지능은 사회·경제 모든 분야와 관련되기 때문에 정부와 민간이 함께 협력해 경쟁력 확보에 매진해야 한다. 또 전 세계가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노력과 함께 AI의 위험성을 인식해 다양한 수준의 규제 도입을 활발하게 논의하는 만큼 글로벌 규제 동향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 결국, 글로벌 스탠더드는 적극 수용하면서도 인공지능 경쟁력에 도움이 되는 글로벌 거버넌스 정립에는 능동적·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다.

요일제공휴일의 도입

경제적 파급효과는?

Day Off



정부가 공휴일을 특정 날짜가 아닌, 요일제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설 때 제대로 쉬고 경기 활성화도 꾀하겠다는 건데, 이미 미국을 포함한 해외 주요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제도다. 정부는 지난 7월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역동경제 로드맵’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선진형 근무 휴식 시스템을 만들어 노동 생산성을 높이고 내수도 활성화하겠다고 하며 이르면 2026년부터 요일제 공휴일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요일제공휴일이란?

현재는 휴일제가 날짜로 지정돼 있다 보니 이른바 공휴일과 주말 사이에 평일이 끼이는 ‘징검다리’ 휴일이 발생하기도 한다. 요일제공휴일이란 이를 개선하는 방안으로, 금요일이나 월요일을 공휴일로 지정해 주말과 이어 사흘간 쉬게 하는 방안이다.

올해 10월의 공휴일을 보면 개천절은 10월 3일, 한글날은 10월 9일, 이런 식으로 특정 날짜에 고정돼 있다. 이걸 요일로 바꾸게 되면 앞으로 개천절은 10월 첫 번째 금요일, 한글날은 10월 두 번째 금요일이 될 수 있다. 결국 징검다리 휴일이 아니라 금토일, 토일월처럼 3일 연휴를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설 연휴부터 성탄절까지 주요 공휴일에는 대체 휴일제가 적용돼서 평일 하루를 더 쉬고 있다. 대체공휴일을 도입해 확대 중이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고 1월 1일과 현충일 등은 대체휴일을 적용하지 않아 연도별 공휴일 수에 편차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대체공휴일의 경우 주말과 겹치는지 확인해야 하는데, 요일제공휴일은 아예 3일 연휴를 예측해서 쉴 수 있게 된다. 여기에 대체휴일이 적용되지 않는 신정과 현충일은 대체공휴일이 가능한 기념일로 지정할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안정적인 휴일 수를 보장하고 연휴 효과를 극대화해 휴식의 효율성 제고 및 내수 활성화 측면에서도 도움이 될 거라는 게 정부의 예측이다.

경제 활성화와 맞닿아 있는 해외의 공휴일제도

현대경제연구원은 지난해 발표한 ‘대체공휴일 확대의 경제적 파급 영향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대체공휴일 1일의 경제 전체 소비지출액은 약 2조





4,000억 원으로 추정되며, 이를 통한 생산유발액은 약 4조 8,000억 원, 부가가치유발액은 약 1조 9,000억 원, 취업 유발인원은 약 4만 명으로 추정된다"라고 추산한 바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공휴일제도는 요일지정제를 도입한 해외 주요국 대비 안정성이 떨어지고, 토요일과 일요일 모두를 대체공휴일로 보장받는 영국 등에 비해 휴일의 절대적인 일수도 부족한 상황이다. 요일제공휴일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나라는 미국과 일본, 영국, 호주, 중국 등이 있다. 낱짜의 의미가 없는 공휴일은 대부분 월요일로 지정해 토요일로 연속되는 휴일을 구축했다.

미국에는 월요일 공휴일법이 있다. 1968년에 처음 만들어지고, 1971년부터 시행된 Uniform Monday Holiday Act(월요일 공휴일 법)에 의거해 시행되고 있다. 이후 좀 더 늘어나서 마틴 루터 킹의 날, 대통령의 날, 메모리얼 데이, 노동절, 콜럼버스 기념일, 추수감사절 등이 요일제 공휴일로 지정돼 있다.

일본도 '해피먼데이' 제도를 도입해 성인의 날과 경로의 날 등을 특정한 낱짜가 아닌 월요일로 지정했다. 영국은 성금요일, 부활절 월요일, 노동절, 춘계 휴일 등이 요일제 공휴일로 지정돼 있다.



주요 국가의 공휴일 지정 현황

구분	한국	일본	미국	호주	영국	중국
공휴일 수	15일	16일	11일	12일	8일	11일
요일지정	X	4일	6일	7일	5일	X
대체공휴일	낱짜 지정 공휴일 일부(13일)	낱짜 지정 공휴일 전부				

출처 : 기획재정부

행복추구권과 휴식권의 구체적 실현과 경제적으로도 파급효과가 크다는 점에서 현재의 휴일보장법령체계를 전환시킬 필요가 있다.

한국법제연구원이 2015년 발표한 '국민의 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특히 일본이 대체휴일제, 국민의 휴일에 덧붙여 해피먼데이제도를 도입한 배경에는 내수진작을 통한 경제활성화, 관광산업을 중심으로 하는 서비스산업의 육성이라는 경제정책적 관점이 존재한다. 법제연구원은 "해피먼데이제도의 도입에 따른 경제효과를 연간 2조 엔(약 18조 6,806억 원)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관광 입국의 실현을 통한 경기부양을 목표로 연차 활용을 통한 장기휴가제도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사적이라 할 수 있다"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지식정보사회를 맞이하고 있는 오늘날 휴일과 휴식의 보장은 우리 헌법 제10조가 천명하고 있는 행복추구권과 휴식권의 구체적 실현이며, 이는 경제적으로도 파급효과가 크다는 점에서 현재의 휴일보장법령체계를 전환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먼저 따져보아야 할 근무시간과 업무 효율

안정적인 휴일 보장 이전에 우리나라 근무시스템도 해외 주요국에 비해 절대적으로 경직된 것이 사실이다. OECD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획일적·경직적 근무제도로 경제력에 비해 노동생산성이 37개국 중 33위를 차지할 정도로 상당히 낮은 편이다. 또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 도입·활용도 저조하고, 장시간 근로 관행 등 업무 효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고용노동부가 2022년 실시한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에 따르면 유연근무제도를 도입한 곳은 25.1%에 불과했다. 2022년 기준 OECD 대비 한국 근로자들은 185시간, 23.1일 더 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OECD 33개국 임금근로자의 연간 평균 실근로시간

순위	국가명	근로시간	순위	국가명	근로시간
1	콜롬비아	2,381	11	폴란드	1,712
2	멕시코	2,335	12	캐나다	1,702
3	코스타리카	2,242	13	호주	1,693
4	칠레	2,026	14	그리스	1,687
5	이스라엘	1,905	15	헝가리	1,661
6	한국	1,904	16	일본	1,626
7	미국	1,822	17	아일랜드	1,624
8	에스토니아	1,783	18	포르투갈	1,607
9	뉴질랜드	1,747	19	리투아니아	1,595
10	체코	1,717	20	슬로베니아	1,594
OECD 평균		1,719			

출처 : 기획재정부

한국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이면 30분 이상, 근로시간이 8시간이면 1시간 이상 휴게시간을 주어야 한다. 반면 미국은 30분(주마다 근로시간 차이), 영국·프랑스 20분(근로시간 6시간 이상), 독일 30분(근로시간 6시간 초과) 등 해외 주요국은 근무시간 내 휴게시간을 유연하게 적용해 조기퇴근 및 근무시간의 업무집중도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일·생활 균형이라는 개념은 아직 법령으로 명확하게 규정된 것은 아니다. 일·생활 균형의 개념에 관하여 다수의 연구에서는 일과 일 이외의 영역에 적절한 수준의 시간을 분배함으로써 삶에 만족스러워하는 상태라고 정의한다. 초기에는 여성 근로자의 모성보호를 대상으로 삼았던 일·가정 양립제도가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일·생활 균형제도로 확장되면서, 제도의 방향과 범위 역시 개인의 일·생활 균형을 위한 근로시간 유연화 및 단축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다.

요일제공휴일의 장기적 효용성

앞서 요일제공휴일 관련 법안은 국회에서 여러 번 발의됐지만, 통과되지 못했다. 본래의 공휴일이 가진 의미를 잃게 한다는 반발 외에 공휴일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 재계 등에서 반대 목소리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2011년에도 정부가 개천절 등 일부 공휴일을 요일지정제로 발표하자 공휴일과 관련된 단체들이 기념일 제정의 의미가 반감된다며 반대에 나서기도 했다.

해외 주요국은 근무시간 내 휴게시간을 유연하게 적용해 조기퇴근 및 근무시간의 업무집중도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일·생활 균형이라는 개념은 아직 법령으로 명확하게 규정된 것은 아니다.



휴가 및 공휴일제도의 개선을 통해 국민여가시간이 확충될 때 국내관광 시장은 성장할 수 있으며, 관광산업이 보유하고 있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감안할 때 민간소비 활성화와 고용 창출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

이후 각 기념일의 직·간접 당사자인 관련 단체들이 가세하면서 관련 법안들은 번번이 무산됐다. 하지만 요일 지정 공휴일제도의 시행에 대해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은 이미 지난 2009년에 발표한 ‘국내 관광수요 확대를 위한 휴가·공휴일제도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공휴일 수의 변동 없이 연휴가 구축되는 효과가 있으므로 경제계의 부담도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밝힌 바 있다. 보고서는 또 “휴가 및 공휴일제도의 개선을 통해 국민여가시간이 확충될 때 국내관광 시장은 성장할 수 있으며, 관광산업이 보유하고 있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감안할 때 민간소비 활성화와 고용 창출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주요 선진국에서도 이와 같은 자유시간 정책이 실효를 거두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일본의 경우 휴가 및 휴일제도 개편 이후 숙박여행을 비롯한 국내관광이 증대됐다. 국민 1인당 평균 숙박여행의 경우 2006년 2.8박에서 2009년 4.0박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내여행 동행인 특성 조사 결과 가족 46.2%, 부부 23.1%, 친구 21.7%로 나타나 가족친화도 증대됐다. 일본 국토교통성에 따르면 당시 휴일 확대에 대한 기업 부담은 2.8조 엔으로, 거시적 관점에서는 사회 편익이 비용을 초과한 것으로 분석됐다.

해외 사례와 같이 우리나라도 징검다리 연휴나 주 중간에 딱 낀 공휴일보다 요일제공휴일을 도입하면 휴식의 효율성 제고 및 내수 경제 진작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정부는 향후 휴일이 미래 생산성 제고 등 장기적 차원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휴일의 안정성을 확립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한편, 기업과 개인은 휴일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노력 등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요일제공휴일을 도입했을 때 어떤 효과가 날지부터 체크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안에 연구용역을 마치고, 내년에 본격적인 도입을 추진해 내후년인 2026년쯤 시행할 계획이다.

국제경제의 최고 관심사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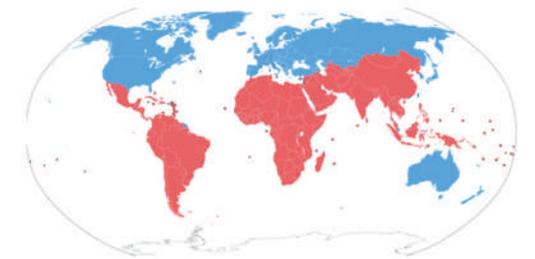


미·중 패권전쟁과 미국우선주의가 지속되고 있다. 그 와중 서구 제국주의 열강의 오랜 식민통치를 청산하고 식민주의에서 독립한 제3세계 신생국가들의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다. 이들은 냉전체제 하의 미국과 소련 간의 패권 경쟁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기도 했다. 이제 미·소 간의 갈등이 미·중 간의 전면적 대결로 옮겨간 상황에서 강대국에 대한 비판이 이들 국가의 울림에 담기기 시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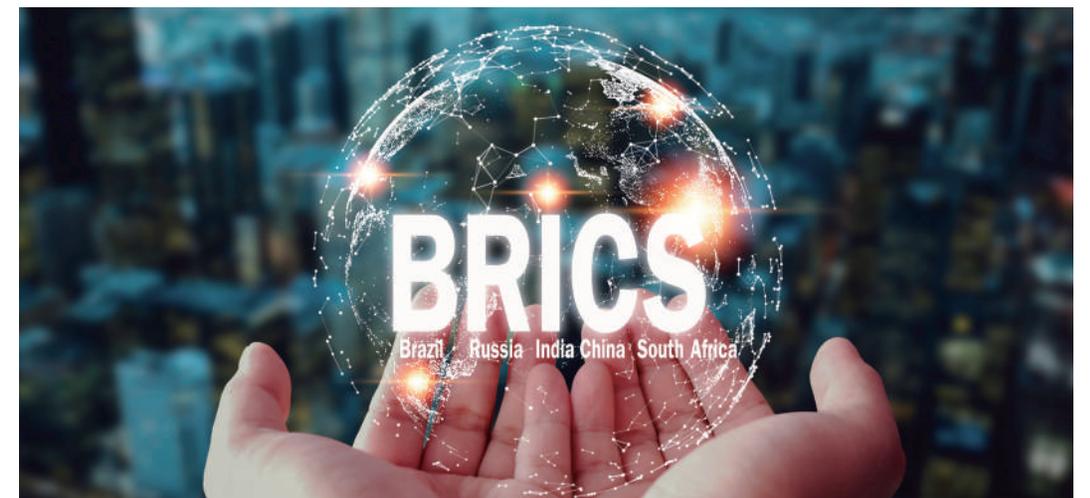
글로벌 사우스의 등장 배경

돌이켜 보면 G7(주요 7개국)에서도 미국만 잘 나가는 세상에서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 공화국으로 구성된 브릭스(BRICS)는 그 저변을 확대하고자 했다.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 질서의 '대안'을 지향하는 브릭스가 설립 14년 만인 지난해 중대 전기를 맞았다. 기존 5개국에서 아르헨티나, 이집트, 에티오피아,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UAE)를 포함하는 11개국으로의 확장을 발표한 것이다. 이들은 일제히 국제사회에서 '미국 리더십의 실패'를 천명했고 중남미의 볼리비아와 베네수엘라를 브릭스 가입 의사를 표명했다. 다만 2023년 10월 하비에르 밀레이(Javier Milei)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 참모진의 의견을 반영해 브릭스 가입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점점 많은 국가가 미·중 패권전쟁에 지쳐가고 기후변화, 코로나 팬데믹 등을 겪으며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특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글로벌 공급망이 와해하자 미국-서방 동맹그룹과 중국-러시아 연합과는 별개의 목소리를 내기를 희망하는 개발도상국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들은 글로벌 사우스

(Global South)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남반구나 북반구의 저위도에 위치한 120여 개발도상국을 지칭하는 개념으로 차츰 정착하고 있다. 글로벌 사우스는 자국의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 서방 강대국(Global West), 중국-러시아 등 주요 국가 간 관계에서 벗어나 전략적 균형을 취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준다. 미국과 중국이 자국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는다고 보고 국제질서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더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려는 일련의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역시 국제관계에서 인식의 방향을 전환하고 이들과의 협력을 강화해야 하는 국면에 놓였다.



아래 빨간색 부분이 '글로벌 사우스'에 해당한다. 출처: 위키백과





글로벌 사우스는 남반구나 북반구의 저위도에 위치한 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중남미 카리브해 국가 등의 제3세계 개발도상국을 통칭하여 일컫는 용어다. 인도, 남아프리카공화국, 브라질 외에 멕시코를 위시하여 120여 개 국가로 구성된 집합체다. 이는 북반구에 있는 미국, 유럽 등의 선진국을 가리키는 글로벌 노스(Global North)에 대한 자주성을 강조한다. 이들은 미-EU와 중-러 사이에서 전략적 균형을 추구하며 주목을 받고 있다. 어찌 보면 과거 글로벌 노스의 식민 통치와 현재의 국제 질서 지배에 대항하기 위한 개발도상국 집합체를 의미한다고 하겠다.

그간 인도는 인구와 경제력을 배경으로 글로벌 사우스 대표를 자임해왔다. 이들의 본격적인 부상은 2022년 2월 발발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이 있다. 이들은 러시아 제재와 관련하여 UN 총회의 결의안 표결에서 자주적으로 결의했다. 2023년 10월 발발한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에서도 하마스에 대한 비판은 자제했다.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봉쇄와 공습을 비판하는 중국, 러시아와 인식을 같이했다. 그리고 미국의 상이한 전쟁 자세를 비판했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비난하면서도 이스라엘에는 정반대 입장을 취한다며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했다.

글로벌 사우스에 주목할 필요성

우선, 글로벌 사우스는 경제성장률, 지정학적 블록화 대응, 글로벌 공급망 재편 차원에서 중시된다. 자원과 인구라는 두 가지 축을 발판으로 빠른 속도로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늘리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 인구 상위 20개 국가 중 글로벌 사우스 국가는 15개국이다. 상당수 국가는 선진국보다 높은 경제성장률을 자랑한다. 이 외에도 젊은 인구, 정부의 인프라 투자 등에 힘입은 높은 성장 잠재력은 도외시할 수 없는 사실이다.

둘째, 이들 국가는 우방국을 중심으로 ‘프랜드쇼어링(Friend-Shoring)’ 현상을 늘리고 있다. 이는 미국에서 생산 시설을 운영하기 어려운 기업이 우방국(Friend)을 생산기지로 낙점하고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믿을 만한 동맹끼리 뭉치면 상품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자칫 지정학적 블록화와 교역의 분절화 현상을 야기할 수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과 중국이 비판세 무역장벽을 강화하여 프랜드쇼어링할 경우를 가정하여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력을 추산한 바 있는데, 이런 블록화가 진행되면 우리나라 GDP가 약 4%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우리나라가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입지를 다져가는 글로벌 사우스를 중시해야 할 가장 큰 이유가 여기에 있다.

셋째, 자원외교의 중요성이다. 이들 국가의 풍부한 자원을 감안할 때 각 지역의 수요를 정확히 알고 협력을 강구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이들 국가는 자국의 산업 육성과 관련한 인프라 구축에 관심이 높다. 아세안(ASEAN)은 2차 전지 소재 핵심 광물자원, 중동은 도시 인프라와 플랫폼경제, 남미와 아프리카는 교통물류 인프라와 농업 및 식품 가공, 인도는 수소융합경제 등에 있어서 도약을 꿈꾸고 있다.

우리나라는 글로벌 사우스의 등장과 재편을 구조적으로 장기화될 축의 전환으로 인식해야 한다. 강대국 위주로 시행해 온 우리의 국제관계 협력에 있어서 인식의 전환을 추진해야 함은 물론이다.



세계 경제의 블록화와 협력의 방향성

미국과 중국에 편중된 경제에서 수출-투자시장 다변화 노력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중장기적 관점에서 글로벌 사우스와의 포괄적 경제협력 채널을 구축하여 지정학적 불확실성에 제대로 대응할 필요성이 높다고 하겠다. 인도는 국익과 실용주의를 앞세워 이곳에서 다양한 진영과 손을 잡는 ‘다자(多者)동맹’ 외교를 펼쳐왔다. 글로벌 사우스의 목소리를 대변하겠다고 2023년, 2024년 두 차례에 걸쳐 ‘글로벌 사우스의 목소리 정상 회담’을 개최했다. 중국이 일대일로 프로젝트(13년), 글로벌 발전 이니셔티브(21년), BRICS+로의 외연 확대로 이들과의 협력을 중요시해 온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러시아는 대외정책의 하나로 글로벌 사우스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미국은 다국적 인프라 투자 사업을 중점 추진하고 있다. 그런 와중에 중국의 일대일로가 가진 인프라 투자의 부채함정과 투명성 문제를 강조해 왔다. 여기에 일본도 한몫해 다양한 방식으로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하고 있다.

세계 경제는 블록화를 통해 변화하고 있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증폭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글로벌 공급망 재편은 일시적 현상이 아니다. 우리나라는 글로벌 사우스의 등장과 재편을 구조적으로 장기화될 축의 전환으로 인식해야 한다. 강대국 위주로 시행해 온 우리의 국제관계 협력에 있어서 인식의 전환을 추진해야 함은 물론이다. 중점 추진 방향은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를 통한 국제협력 강화, 수출입 교역 확대, 자원투자 활성화등이라고 하겠다. 따라서 다자 협력을 주도하며 경제 채널을 다각화하는 전략에 매진할 때다. 우리나라는 식민 통치와 전쟁에 의한 가난, 독재의 어두운 경험에서 경제 성장과 민주화를 동시에 이루어 낸 예외적인 성공 사례이기에, 글로벌 노스와 글로벌 사우스를 연결하는 역할에 있어 책임자임을 강조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 미리 알아보는 절세 꿀팁!

재산세는 고정된 세금이 아닌
절세 가능한 세금이다. 주택과 주택 외 토지
절세 팁을 확인한 후, 고지서를
한 번 더 체크하여 절세할 부분이 있는지
검토해 보자.



PROPERTY TAX



재산세는 일정한 재산의 보유에 따라 매기는 지방세로, 지방세가 재산세라면 국세는 종합부동산세이다. 두 세목 모두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자에 과세대상을 보유한 사람이 납세의무자가 된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재산세 절세 팁은 부동산 취득 시기를 6월 1일 이후로 하는 것이다.

재산세 과세대상은 토지, 건축물, 주택의 부동산 이외에도 항공기 및 선박이 있으며, 취득세의 과세물건과 비교해 볼 때 그 범위가 작다. 재산세 과세대상으로서 부동산은 '토지, 건축물, 주택'으로 되어 있다. 여기서 7월분 재산세는 주택분 재산세의 절반과 건축물·선박·항공기분 재산세를 부과하며, 7월 16일부터 31일까지가 납부기간이다. 주택분 재산세의 나머지 절반과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부과한다. 주택과 주택 외 토지로 나누어 절세 팁을 알아보자.

1

주택 재산세 절세 팁

첫째, 임대주택 등록을 고민해 보자. 지자체에 임대주택 등록을 하면 재산세를 25~100% 감면받는다. 장기임대로 2채 이상 등록한 경우 재산세 감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 3에 따라 전용면적 40㎡ 이하는 100%, 60㎡ 이하는 75%, 85㎡ 이하는 50%다. 그러나 주택의 가액요건 및 기한을 지키지 못하였을 때 소급하여 5년 이내 감



면된 재산세를 추징하는 등 그 요건과 사후관리가 엄격하므로 이를 꼭 숙지하여 임대 주택 등록 여부를 고민하여야 한다.

둘째, 주택담보 노후연금보증을 위하여 담보로 제공된 주택(1가구 1주택에 한정)에 대해서는 매년 재산세의 25%를 감면받는다. 주택공시가격 5억 원 이하는 25% 감면, 5억 원을 초과하면 5억 원에 해당하는 재산세의 25%를 감면받는다.

셋째, 업무용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등록하면 미래에 더 큰 세금이 나올 수 있다. 대부분 오피스텔은 업무용으로 건축물 재산세가 부과된다. 그러나 재산세 변동 신고를 통해 주거용 오피스텔로 변경하면 주택분 재산세로 더 고지금액이 적어진다. 이는 주택이 과세표준 계산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더 낮고, 세율도 더 낮기 때문이다.

그러나 과연 이것이 이득이 될지는 고민해 보아야 할 문제다. 명확한 주거성으로 본인이 인정한 상황이 되므로 주택 1채로 명확해진다. 이에 따라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의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못 받거나 중과세를 적용받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주택 수가 늘어서 중과세율 적용받는 경우, 환급받았던 오피스텔의 부가가치세 추징받는 경우 등이 발생하여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상황이 펼쳐질 수 있다.

2

주택 외 토지 재산세는?

첫째, 주택은 주택별로 재산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공동명의 주택은 주택 1채 전체에 대한 재산세를 산출한 후 지분별로 나누어서 고지된다. 그리고 분리과세토지도 토지

별로 재산세를 부과한다. 그러나 별도합산 및 종합합산토지는 개인별로 시군구 지역 내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해 과세표준을 계산하고 누진세율을 적용하므로 공동명의 시 과세표준이 낮아지고 낮은 세율이 적용되어 재산세 절세 효과가 있다.

둘째, 노후 생활 안정자금을 지원받기 위하여 담보로 제공된 농지에 대해서는 토지공시가격이 6억 원에 해당하는 재산세액은 면제한다.

Check! 재산세 공동사항

우선 재산세 고지서를 받게 되었을 때 지자체에서 잘 계산했을 것으로 생각하여 습관적으로 납부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간혹 잘못 반영된 고지서를 받는 경우가 있으니, 다음의 항목을 꼭 살펴보도록 하자.

- ☑ 계산이 잘 되어 있는지 과세표준 및 세율을 확인하자. 특히 공동지분 부동산의 경우 지분 반영이 잘 되었는지 확인하자.
- ☑ 본인의 부동산 취득 시점이 6월 1일 이후인데 고지서를 받은 건 아닌지 취득날짜를 확인하자.
- ☑ 오피스텔은 업무용인지 주거용인지 구분 여부를 확인하자.
- ☑ 보유 부동산의 구분 및 개인별 합산이 잘 반영되었는지 확인하자.
- ☑ 재산세 감면대상(임대주택, 주택연금보증 등)의 경우 감면 적용 여부 및 감면율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확인하자.

마지막으로 재산세가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재산세 액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납 신청이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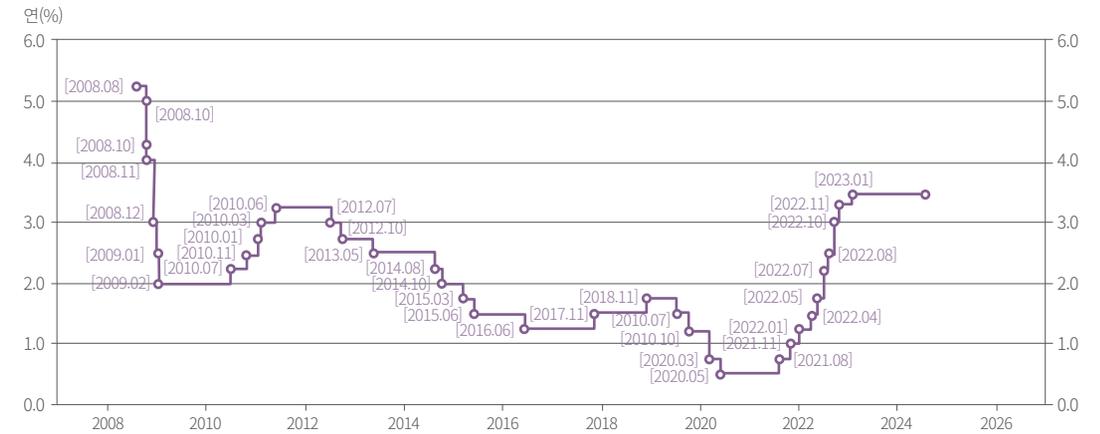
- 500만 원(본세+도시지역분) 이하 : 250만 원(9월) + 나머지 금액(12월)
- 500만 원(본세+도시지역분) 초과 : 1/2 금액(9월) + 1/2 금액(12월)



금리에 억눌렸던 수요의 '작용과 반작용'

지난 2022년과 2023년, 금리 부담에 따른 '수요·거래 절벽' 심화
금리 인하 임박한 2024년 하반기, 억눌린 수요층들의 반작용 진행
당장의 '금리' 변화에 일희일비 말고 이제는 '상수(常數)'로 인식해야

2021년 8월 본격적으로 오르기 시작한 기준금리는
2023년 1월 인상을 끝으로 연 3.5% 수준에서 1년 이상
동결 기조를 달리는 중이다. 금리가 부동산 시장에서 문
제를 야기한 부분은 2021년 연 0.5% 수준에 불과했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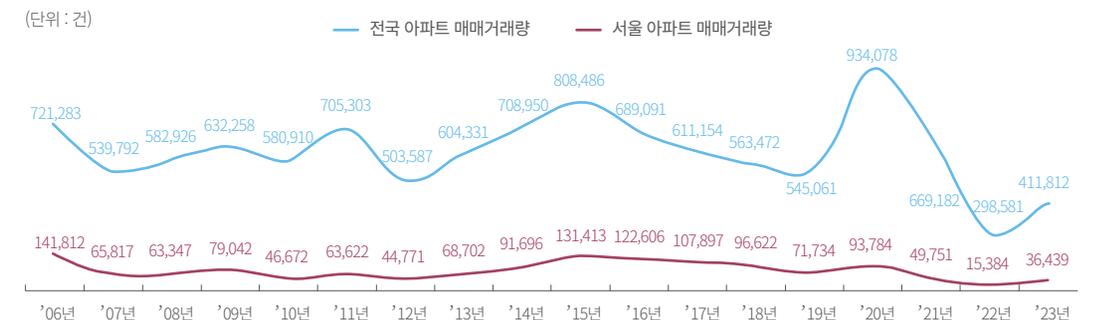
(주1) 2008년 2월까지의 기준금리 목표

기준금리가 불과 1년 만에 연 3.0%를 넘어서는 등 급격한
변화 부분에 있다. 즉 금리 영향으로 대출자 이자 부
담이 크게 뛰었고, 결국 어디까지 오를지에 대한 미래
불확실성에 수요 위축이 상당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
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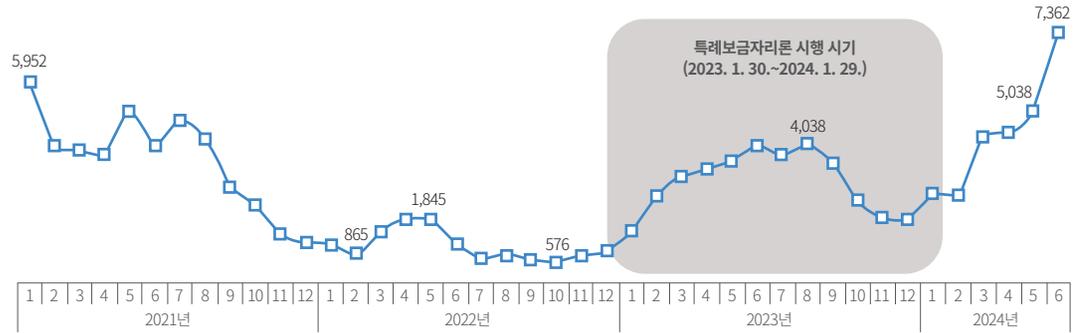
금리 인상으로 인한 수요 위축 결과는 데이터로도 확인
된다. 2022년 전국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29만 8,581건,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1만 5,384건으로 2006년부터

관련 통계가 집계된 이래 가장 적다. 여기에 2023년
의 매매거래량도 관련 통계가 집계된 이래 역대 두 번
째로 적다. 이처럼 금리 부담에 내 집 마련 속제를 나중
으로 미뤘던 수요층들이, 최근에는 인하 기대를 높이
면서 본격적으로 시장에 유입 중이다. 과학 시간에 배
운 '작용과 반작용' 법칙에 따라 거래 절벽 이후의 회복
탄력성 또한 그에 못지않게 상당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아파트 매매거래량 추이



자료 : 한국부동산원



(주1) 계약일 기준 (주2) 2024.06.20 조사 기준

자료 : 서울시부동산정보광장, 부동산R114 편집

서울 거래량 증가는 잠재된 실수요층 유입 효과

2024년 6월 기준(7월 31일 조사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7,362건으로 1월(2,614건)과 2월(2,576건) 대비 3배 수준의 폭증세를 기록 중이다. 이는 최근 5년 사이 거래량이 가장 많았던 2020년의 월평균 거래량 수준으로, 2020과 2021년은 서울 아파트 가격이 급등한 시기라는 점에 비춰보면 수요 유입 정도에 대한 의미 부여가 가능하다. 즉 그동안 이연(移延)된 실수요층이 신축 분양가와 재고주택 전월세가격 상승세에 따라 본격적으로 매수세에 들어갔다는 평가다. 특히 전 은행권에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제도가 시행 중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과거와 같은 영끌 대출은 애당초 불가능하며,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증과세가 살아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투기수요가 가세한 것으로도 평가하기 어렵다.

가계부채 증가에 놀란 정부, 스트레스 DSR 도입 경고

정부는 거래량 증가로 주택담보대출 중심의 가계부채 규모가 크게 늘어나자 스트레스 DSR 도입을 예고하며 대출규제 강화를 경고하는 중이다. 스트레스 DSR은

스트레스 DSR 도입 계획

1. DSR이 적용되는 전업권·모든 대출 대상으로 적용
2. '과거 5년 내 최고 대출금리와 현시점 금리 간 차이'를 기준으로 하되, 가산금리의 하한(1.5%), 상한(3.0%)을 설정
 - 혼합형/주기형 대출도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하되, 고정금리 적용되는 기간 등 감안하여 완화 적용
3. 금융 이용자의 불편, 업권 준비상황 등 고려하여 순차 시행
 - 은행권 주택담보대출부터 '24. 2. 26. 우선 시행하고 시행 상황 등 보아가며 '24년 중 전업권·전체 대출로 확대
 - '24년 상반기는 스트레스 금리의 25%, 하반기는 50% 적용하고, '25년부터는 스트레스 금리를 그대로(100%) 적용

자료 : 국토교통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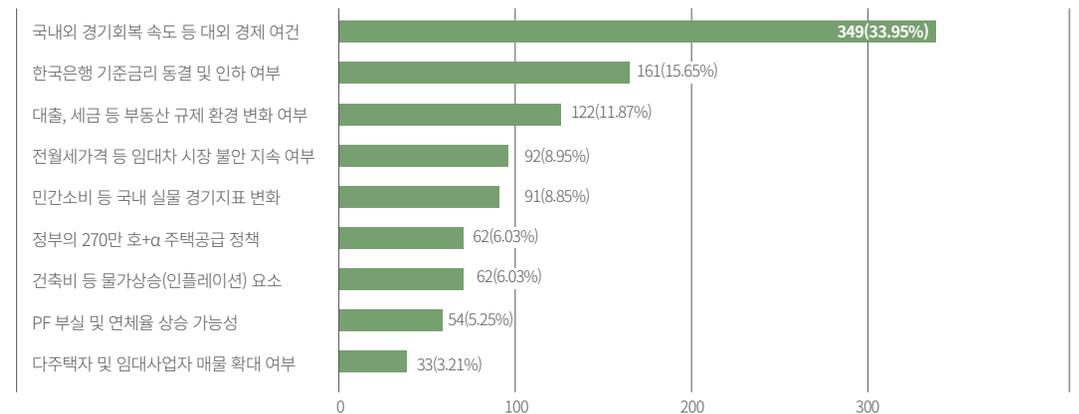
변동금리 대출 등을 이용하는 차주를 대상으로 DSR 산정 시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해 대출한도를 축소하는 제도다. 스트레스 금리는 매년 2회 변경되며 현시점은 1.5%로 책정됐다. 최근 정부가 스트레스 DSR의 2~3단계(50~100%) 적용 시점을 2025년 초에서 올해 9월(2단계, 50%)과 2025년 7월(3단계, 100%) 적용으로 변경했다. 따라서 9월 이후에는 스트레스 금리가 0.75%(1.5% 스트레스 금리에서 50% 적용)로 적용되는 만큼 부동산 시장에는 수요 감소와 수요 증대가 동시에 발생하는 상황이다. 그 이유는 대출 한도가 줄어들면서 이탈

되는 수요도 물론 존재하지만, 스트레스 금리에 대한 100% 적용까지 아직 1년여의 시간이 남아 있는 만큼 미리 의사결정에 나서려는 수요도 동시에 가세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스트레스 DSR 도입 이슈는 스트레스 금리의 100% 적용 시점까지 부동산 시장에서 다소 중립적인 이슈로 평가된다.

당장의 '금리' 변화에 일희일비 말고 이제는 '상수(常數)'로 인식해야

최근 정부가 8.8 공급대책을 발표한 것처럼 금리는 수급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한다. 지난 금리 인상 충격파에 따라 2022년과 2023년 주택 매매거래량이 급감했지만, 의식주에 포함된 필수재는 그 수요가 뒤로 밀릴 뿐 사그라지지 않는다는 의미다. 이러한 금리 특징으로 인해 수요자 인식에서도 일부 변화가 감지된다. 부동산R114가 지난 7월까지 전국 1,028명을 대상으로 '하반기 주택 시장 전망'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소비자 10명 중 3명은 2024년 하반기 핵심 변수로 '국내외 경기회복 속도 및 대외 경제 여건(33.95%)'을 1순위로 꼽았다. 한국은행의 연속 동결로 인해 불확실성이 줄어든 금리 이슈가 뒤로 밀리고 경제성장률 및 수출과

2024년 하반기 주택 시장 주요 변수(응답=1,028명)



(주) 응답 비중이 낮은 일부 의견은 제외함

자료 : 부동산R114

스트레스 DSR 단계별 시행 방식

		1단계	2단계	3단계(잠정)
시행시기	은행권	(기준) '24. 2월 ~'24. 6월 (변경) '24. 2월 ~'24. 8월	(기준) '24. 7월 (변경) '24. 9월	(기준) '24년 초 (변경) '25. 7월
	2금융권	-	주택담보대출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기타 대출
스트레스 금리		기본 스트레스 금리의 25% 적용	기본 스트레스 금리의 50% 적용	기본 스트레스 금리의 100% 적용

관련된 거시 경제 이슈가 선두로 급부상한 분위기다. 따라서 지난 2년 동안 수요층 의사 결정에서의 핵심 이슈였던 금리 변수는 부동산 시장에서 여전히 중요한 축이지만, 주택 같은 필수재에 대한 선택을 금리 인하 시점과 무조건 연계시킬 필요는 없다. 즉 올해 하반기와 2025년 금리 인하 기대감이 있지만 그렇다고 과거와 같은 초저금리로 돌아가는 것도 아니므로, 인하에 대한 과도한 기대감을 자제하고 이제는 '금리' 변수를 부동산 시장에서 적용기가 끝난 '상수(常數)'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상당 기간 금리라는 변수가 부동산 시장을 좌지우지했지만, 결국 경제학의 기본 원리에 따라 가격은 수급 문제를 따라간다는 의미다.



은둔자들, 에곤 실레, 1912년, 캔버스에 유채, 181×181cm, 레오폴트 미술관, 빈

실레, 나르시시즘에 빠진 위험한 재능

유럽을 찾는 여행자들에게 오스트리아의 빈은 흔히 ‘클래식 음악과 Klimt의 도시’로 기억된다. 적지 않은 여행자들은 신부른 궁이나 호프부르크 궁을 둘러보고, 벨베데레 미술관에 전시된 Klimt의 ‘키스’를 본 것으로 만족하며 빈을 떠난다. 그러나 조금 더 시간을 할애해서 빈 국립오페라 하우스 근처, 레오폴트 미술관에 가본 이라면 빈을 다르게 기억할 것이다. 그들에게 빈은 에곤 실레(1890~1918)의 도시로 각인될 것이 분명하다.

Egon Schiele

문화·예술의 중심지였던
오스트리아 빈

이 미술관은 무서울 정도로 대담하고 혁신적인 실레의 자화상과 색다르고 개성 넘치는 풍경화들을 여럿 소장하고 있다. 이 천재적인 작품들이 실레의 나이 스무 살에서 스물 서 넷 사이에 창작되었다는 점 그리고 그 천재성이 불과 28년의 삶 끝에 지상에서 사라졌다는 점은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한 감정을 불러일으킨다. 대체 재능이란 얼마나 신비한 것인지, 신은 어째서 이토록 놀라운 재능을 한 청년에게 주고, 그 청년의 생명을 불과 28년 만에 앗아간 것인지에 대해 말이다.

에곤 실레가 활동하던 당시의 빈, 지금으로부터 한 세기 전의 빈은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의 수도이자 유럽 전체의 수도나 마찬가지였다. 인구가 이미 200만을 넘었고 황제 프란츠 요제프 1세가 거주하고 있었으며 문학, 음악, 미술, 건축, 심지어 의학에서까지 새로운 작품과 저서들이 쏟아져 나왔다. 1899년 빈의 개업의 지그문트 프로이트가¹⁾ ‘꿈의 해석’을 출간해 큰 센세이션을 일으켰다. 예술에서는 화가 구스타프 클림트²⁾와 작곡가 구스타프 말러³⁾, 두 명의 ‘구스타프’가 빈의 예술가들을 이끌고 있었다. 영원할 것 같았던 빈의 영광은 그러나 오래가지 못했다. 1차 세계대전이 1918년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의 패배로 끝나면서 제국은 해체되었다. 제국이 영광의 마지막 끄트머리로 다가가던 시점에 시작된 실레의 전성기는 그 종말과 함께 덧없이 끝났다.

1) Sigmund Freud, 1856-1939, 오스트리아의 정신분석학자, 정신분석의 창시자
2) Gustav Klimt, 1862-1918, 오스트리아의 화가, ‘황금빛 화가’라 불린다.
3) Gustav Mahler, 1860-1911, 오스트리아의 지휘자이자 작곡가

클림트를 능가하는
천재적 재능

실레는 1890년 오스트리아 남부의 툴린에서 태어났다. 철도역장인 아버지 아돌프 유겐 실레는 아내 마리와의 사이에서 여섯 자녀를 낳았으나 셋은 사산되거나 일찍 사망했다. 멜라니, 에곤, 게르티. 두 명의 딸과 한 명의 아들만 무사히 성장했다. 아이들의 절반이 이렇게 죽어버린 이유는 아버지 아돌프가 매독 환자였기 때문이었다. 일곱 살 때부터 그림에 놀라운 재능을 보였으나, 다른 학과목들은 모두 낙제생이었던 실레는 열다섯 살에 아버지의 죽음을 겪었다. 매독으로 인한 광증이 아돌프의 죽음을 불러왔다. 자신이 숭배하던 아버지가 성병인 매독으로 사망했다는 사실은 사춘기 소년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그에게 이제 성(性)은 새 생명이 탄생하는 통로가 아니라 죽음으로 향한 길로 기억되었다.

1906년 실레는 빈 미술 아카데미에 합격했다. 학교의 보수적인 가르침은 실레에게 그리 깊은 인상을 남기지 못했다. 실레는 ‘악마의 재능’이라는 교수들의 한숨 섞인 찬탄을 들으며 건성으로 학교에 다니다 1909년에 자퇴를 선택했다. 그러나 재학 중에 만난 28년 연상의 선배 구스타프 클림트의 작품 세계는 그에게 새로운 예술의 길을 보여주었다. 클림트 역시 실레의 탁월한 재능에 찬탄을 감추지 못했다. “선생님, 제가 재능이 있다고 보시나요?”라는 실레의 질문에 클림트는 이렇게 대답했다. “ 많아. 그런데 너무 많아.” 실레가 자신의 드로잉을 클림트의 드로잉과 교환하자고 제안하자 클림트는 “왜 자네 드로잉과 내 걸 바꾸려고 하지? 자네 것이 훨씬 더 나은데?”라고 되문기도 했다. 클림트의 주선으로 1909년 실레는 오스트리아 최대의 전시 행사인 ‘쿤스트쇼’에 참가할 수 있었다.

너무 빨리
사라진 천재

어쩌면 실레 본인도 자신의 재능이 클림트의 그것을 뛰어넘는다고 생각했을지 모른다. 실레가 스물두 살에 그린 ‘은둔자들’이란 작품은 수도사의 의상을 입은 두 남자를 그리고 있다. 젊은 수도사는 순교자처럼 가시 면류관을 쓴 채 날카로운 시선을 던진다. 그 남자에게 기댄 중년의 수도사는 죽은 듯이 눈을 감고 있다. 젊은 수도사는 실레의 얼굴, 중년의 수도사는 클림트의 얼굴과 흡사하다.

실레의 재능은 넘치지만 동시에 위험한 것이었다. 그의 드로잉들, 누드의 자화상들에는 말라비틀어진 남자, 남녀의 구별이 불분명한 나약한 남자의 모습이 거듭 등장한다. 실제의 실레는 큰 키에 마른 체격을 가진 멋쟁이였다. 그는 자신의 외모를 마음에 들어 했고 잘생긴 만큼이나 이기적인 남자였다. 자신을 헌신적으로 살피주던 여성 발리 노이첸과 동거하다 그녀를 미련 없이 버리고 양갓집 규수 에디트 하름스와 1915년 결혼했다. 결혼

직후 실레가 1차 대전에 징집되어 프라하의 병영으로 떠나자 에디트는 주저 없이 남편을 따라 프라하로 갔다. 실레는 운 좋게 전방이 아닌 후방에서만 근무했고 징집 중에도 계속 그림을 그릴 수 있었다.

1918년 2월, 뇌출혈로 쓰러졌던 클림트가 56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빈을 대표하는 화가의 죽음이었다. 스물여덟 살의 실레가 빈 분리파의 리더로 추대되었다. 이 해에 열린 49회 분리파 전시회에서 실레의 그림 48점은 모두 높은 가격에 팔려나갔다. 오스트리아 정부가 에디트의 초상을 사들였고 취리히, 프라하, 드레스덴에서 전시 요청이 왔다. 실레는 성공과 부를 움켜쥐었다. 그가 그토록 갈망하던 것들이었다. 이제 실레는 위험한 누드, 불길하도록 뻔뻔 마르고 비틀어진 자화상에서 벗어나 ‘가족’과 같이 안전한 그림들을 그리기 시작했다. 그는 성공한 화가가 되어 가족과 함께 안락하게 사는 꿈을 꾸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지금까지 실레에게 호의적이던 운명은 그가 안전한 길을 택하려 하자 삼시간에 태도를 바꾸었다.

1918년 가을, ‘스페인 독감’이라 불리는 정체불명의 전염병이 세계를 덮쳤다. 1차 세계대전의 사망자가 900만 명이었던 데 비해, 스페인 독감의 사망자는 2천만 명에 달했다. 10월 28일, 임신 중이던 에디트가 스페인 독감으로 세상을 떠났다. 그로부터 사흘 뒤인 10월 31일에 실레 역시 독감으로 사망했다. 겨우 28년의 짧은 생이었다. 영광은 순식간에 실레를 찾아왔고, 또 이렇게나 덧없이 그를 버리고 말았다.

좌) 가족, 에곤 실레, 1918년, 캔버스에 유채, 150×160cm, 벨베데레 미술관, 빈
우) 자화상, 에곤 실레, 1915년, 펜과 유채 드로잉, 49×31.5cm, 레오폴트 미술관, 빈



“스스로를 믿는 순간 어떻게 살아야 할지 깨닫게 된다.”

요한 볼프강 폰 괴테(1749~1832)

우리는 남에게 인정받기 위한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를 표현하고 발산해야 비로소 완성되는 존재다. 적지 않은 혼돈 속에서 옳은 나를 만들려면 언제나 ‘나다움’을 바로 세워야 하는 법. 세상이 정답이라 말하는 길이 아닌 내가 정답이라 생각하는 길을 걷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각도를 조정해야 우리는 고유한 존재가 될 수 있다.

나도 몰랐던 나 그리고 낮가림 속에서 외면했던 나와 마주해 그곳에 나의 습관과 바람, 생활의 흔적들을 자연스럽게 쌓아보자. 혼자가 되는 것을 두려워 말고, 기꺼이 혼자가 되어 지극히 내적인 나를 탐구해 나간다면 우리는 지금보다 더 큰 바다를 향해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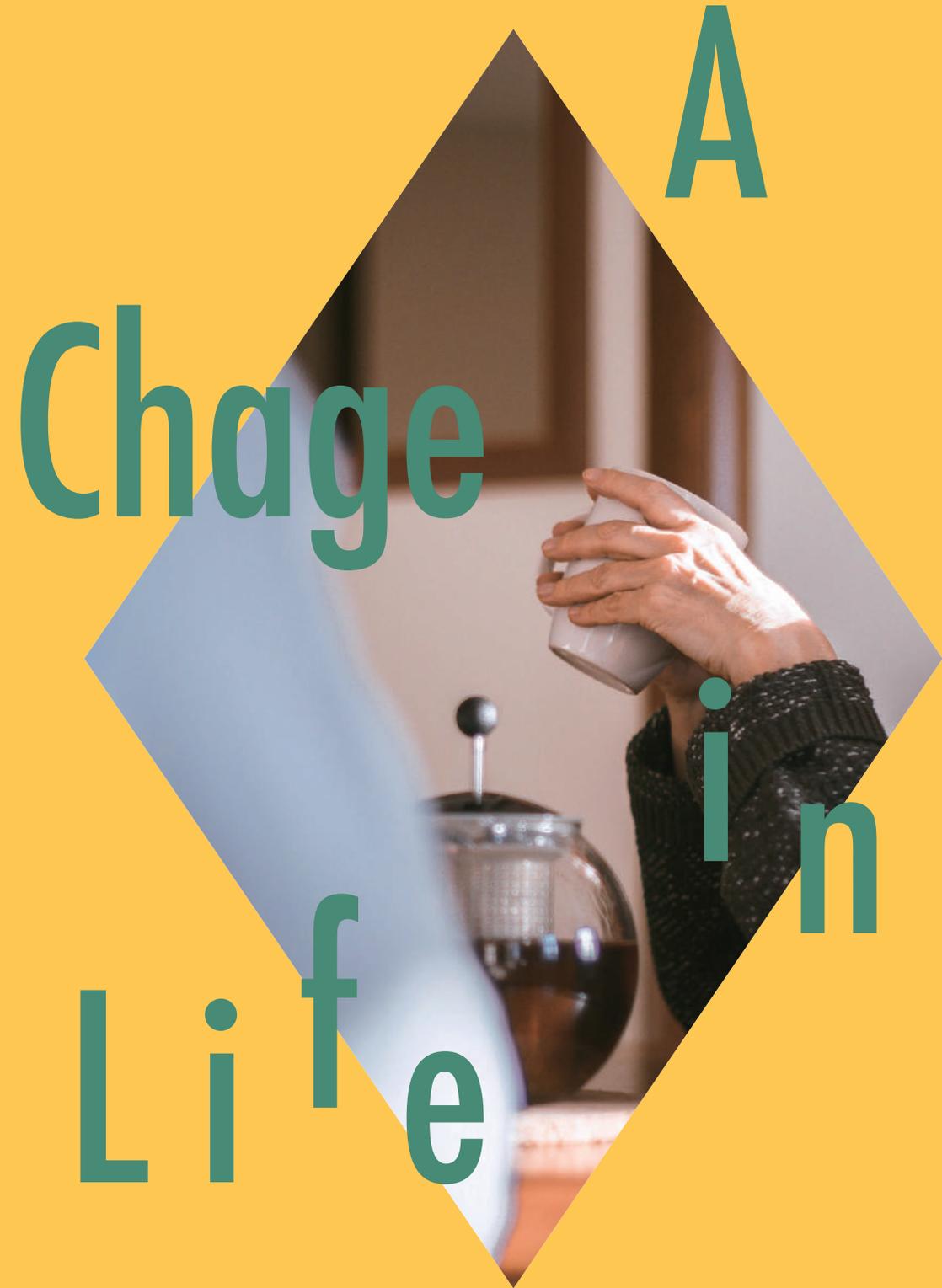
2024년 <아름다운 은퇴>는 다양한 세대를 아우르는 테마를 선정해 함께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가을호의 테마는 ‘나다움’으로 누구도 따라 할 수 없는 고유한 나의 가치를 알아보는 방법에 대해 전합니다.

21세기 들어와 인구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시각이 혼란스러워졌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인구의 고령화가 유사 이래 제일 빠르게 진행되는 현실에서는 기존의 익숙했던 도식이 바뀌어야 하기 때문이다. 일반적인 변화의 흐름은 탄생에서 죽음까지의 전생애(全生涯)를 기존의 시기보다 더 세분화해야 하는 것이다. 그동안 익숙했던 중년기 다음에 노년기가 오고 죽음으로 생애가 끝난다는 기존의 시각으로는 길어진 삶을 정확하게 그리고 효과적으로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각 시기는 저마다의 심리적 특징과 발달과제가 존재한다.

숙년기(熟年期)에 다다른 우리의 자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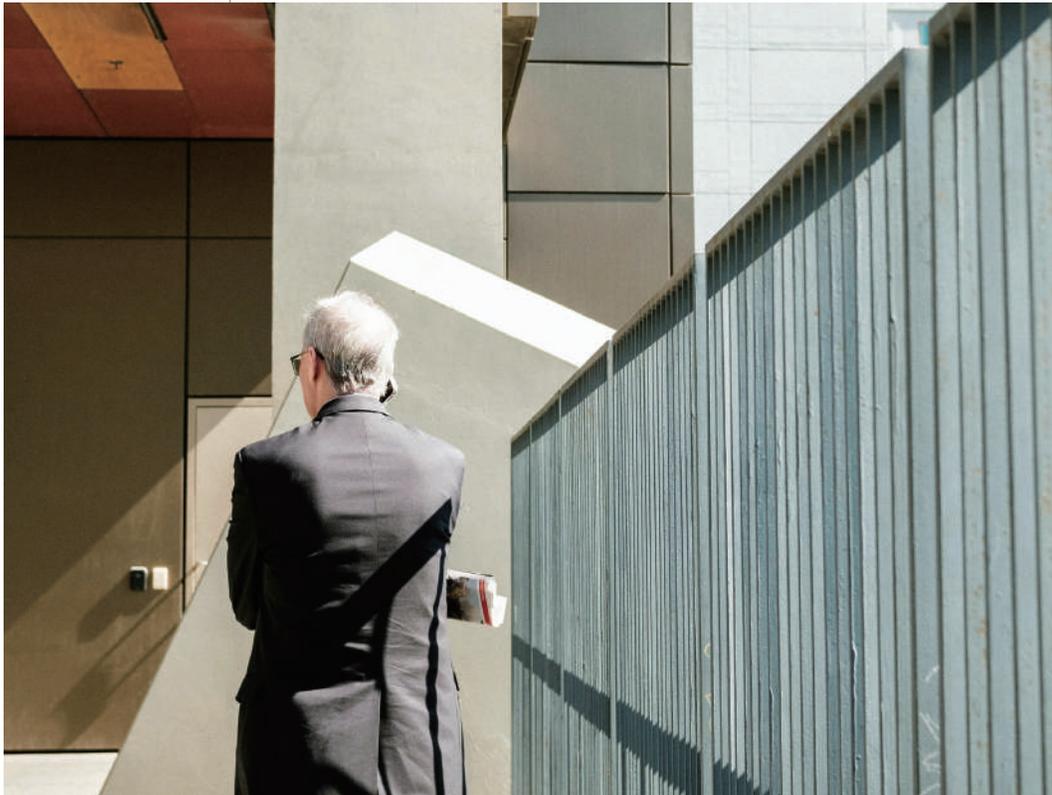
고령화에 따른 생애 변화

중년기와 노년기를 바라보는 시각도 마찬가지로이다. 중년기는 청년기와 노년기의 가운데(中)에 있는 시기이다. 다른 말로 하면 청년기의 발달과제를 성공적으로 마쳐야 하고 동시에 노년기의 발달과제를 수행할 준비를 해야 하는 시기이다. 청년의 발달과제는 한마디로 하면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다. 동시에 직업을 갖고 독립적으로 경제생활을 하는 것이다. 정신분석가 프로이트(Sigmund Freud)의 말을 빌리면 행복한 삶의 두 기동 “Lieben(사랑하고) und Arbeiten(일하다)”의 기초를 튼튼히 하는 것이다. 그리고 중년은 두 기동을 잘 쌓아 올리고 완성하는 것이다. 즉 자녀들을 잘 키워 독립된 성인으로 키우고 안락한 노년을 위한 제반 준비를 철저히 하고 현직에서 퇴임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렇게 중년기를 이해하는 것은 20세기 전반에서나 효과적일 수 있었다. 왜냐하면 20세기 후반부터 인류의 수명이 길어지고 결혼율과 출생률이 떨어지고 직업관이 바뀌는 등 다양한 변화가 급속히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동시에 결혼과 자녀의 출생을 경험하는 시기 자체가 다양할 뿐만 아니라 직장에서 퇴임하는 시기도 사람에 따라 다양해졌다.



중년기와 노년기 사이에 ‘숙년기(熟年期)’라는 새로운 시기가 있어야 한다.
이 새로운 시기를 ‘숙년기’라고 부르는 이유는 인생에서 심리적으로
제일 무르익은 시기라는 특징과 동시에 과제가 있기 때문이다.

일반 회사의 경우 대부분 정년이 60세로 정해져 있지만 정년을 다 채우고 퇴임하는 경우는 10% 안팎에 불과한 형편이다.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직장인들은 평균 49세에 첫 직장을 그만두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두 번째 직장을 찾는다. 그렇기에 50세부터 노년기로 들어간다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 이제는 퇴임한 후 제2, 제3의 경력을 가지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본인이나 주위에서 오히려 권장할 정도로 생애 주기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숙년기의 출현

따라서 50세 이후 새로운 직장을 찾아 자기 자신을 가꾸고 인생을 행복하게 살기 위해 제2의 경력을 가지는 젊은 중년들이 새롭게 생겨났다. 그렇기에 이들에게 걸맞은 발달단계를 규정하고 그 특징을 연구하는 것이 시급해지고 있다. 전생애발달을 공부하는 필자의 소견으로는 중년기와 노년기 사이에 ‘숙년기(熟年期)’라는 새로운 시기가 있어야 한다. 생물학적 나이로 언제 숙년기가 시작되는지 정확히 말하기는 어렵다. 인생의 중반 이후부터는 생물학적 나이가 큰 의미가 없을 정도로 개인차가 크기 때문이다.

이 새로운 시기를 ‘숙년기’라고 부르는 이유는 인생에서 심리적으로 제일 무르익은 시기라는 특징과 동시에 과제가 있기 때문이다. 숙년기는 인생에서 제일 무르익은 시기이자 절정에 다다른 시기라는 의미이다. ‘자기실현’을 삶의 목표로 설명한 정신의학자 융(Carl Gustav Jung)은 우리 삶에서 중년이 돼서야 비로소 자기실현을 이룰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인생 후반기 삶의 중요성을 설파했다. 그에 따르면, 자기실현은 그동안 별로 빛을 보지 못한 우리 성격의 억눌렸던 부분들이 힘을 얻어 삶의 전면에서 나타나는 것이다. 즉 젊었을 때는 무의식으로 억압되어 있던 욕구가 표면으로 표출되고, 이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면서 무르익는 삶을 사는 시기가 된다는 것이다.

가장 대표적인 심리적 변화 중의 하나는 남성이 점차 여성화되어 가고 동시에 여성은 남성화되어 가는 현상이다. 태어날 때 우리는 남성성과 여성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양성(兩性)적 성향이 있다. 하지만 성장해가면서 남자는 남자답게 또는 여자

는 여자답게 성장하라는 사회적 압력에 따라 젊은 남자에게는 상대적으로 남성성이 두드러지고 여성성은 억압되는 경향을 보인다. 하지만 중년 이후에는 남자에게도 억압되어 있던 여성성이 표면에 나타나게 되고 여자에게도 억압된 남성성이 표현된다. 그래서 남자는 여성화되고 여자는 남성화되는 경향을 띠게 되는 것이다. 용에 따르면 성숙한 성격은 어느 한 면도 억압되지 않고 다 같은 강도(強度)로 나타나 원(圓) 모양을 띠게 된다. 그래서 성숙한 성격을 다른 말로 ‘원만(圓滿)하다’고 표현한다. 모든 특성이 동일한 강도로 표현되는 것이 모가 나지 않은 것이고, 그 결과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좋아진다.

또 숙년기는 자녀 양육의 책임에서 점차 벗어나는 시기이기도 하다. 자녀들이 청소년기에 도달하면 부모로부터 심리적으로 독립해야 하므로 자녀의 양육에 투자하던 많은 양의 심리적 에너지를 이제는 다시 원래 자신의 참모습으로 돌아가는 데 사용하려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게 된다. 물론 숙년기 초기에는 여성에게 ‘빈 둥지 증후군’이 나타나 우울증을 겪는 경우도 있지만 이는 일반적인 것이 아니고 또 극복될 수 있는 증상이기도 하다.



숙년기는 진정한 자기실현을 하는 시기이므로 ‘나’, 즉 ‘자기(自己)’를 만나야 한다. 그동안 별로 관심을 두지 않고 마음속 깊이 묻어두었던 진정한 ‘나’를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

숙년기에는 일의 의미가 단순히 경제적 소득이나 사회적 인정의 욕구를 뛰어넘어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일을 하면서 자신을 표현하고 싶어 하는 욕구가 강해진다. 숙년기에서 일은 자신을 표현하는 중요한 도구가 된다. 중년 이후에 이직(移職)을 많이 하고 자신의 사업을 하려는 욕구가 강해지는 것도 자기실현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나도 이제는 남 좋은 일 그만하고 내 사업을 하고 싶어”라는 이야기를 주위에서 많이 들을 수 있다.

발달과제와 ‘나’와의 만남

매 시기는 이루어야 할 심리적 과제가 있다. 예를 들면 청소년기에는 정체성을 확립해야 한다. 그렇다면 숙년기에 달성해야 하는 심리적 과제는 과연 무엇일까? 그것은 자신의 삶의 의미를 찾는 것이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에서 이제는 책임과 의무에서 벗어나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일을 찾아 몰두하고 싶은 마음을 돌봐야 한다.

각 시기의 발달과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대상과 좋은 만남이 있어야 한다. 숙년기에도 당연히 만나야 할 대상이 있다. 숙년기는 진정한 자기실현을 하는 시기이므로 ‘나’, 즉 ‘자기(自己)’를 만나야 한다. 그동안 별로 관심을 두지 않고 마음속 깊이 묻어두었던 진정한 ‘나’를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 진정으로 자신이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것을 하는 삶의 절정(絶頂)의 시간을 맞볼 수 있다. “이제야 내가 누구이고 인생이 무엇인지 알 만한” 시기가 되는 것이다. 숙년기는 정말 하고 싶었던 일을 능숙하게 하라는 자연(自然)의 배려이다.

Profile.

글. 한성열
고려대학교 학부와 대학원, 미국 시카고대학교에서 심리학을 공부하고 박사학위를 받았다.
고려대학교 심리학부에서 30년 교수 생활을 마치고 명예 교수로 추대받았다. 계속해서 상담심리, 문화심리, 전생애발달심리에 관심을 두고 공부하며, 『이제는 나로 살아야 한다』, 『심리학자의 마음을 빌려드립니다』 등 다수의 저서와 역서가 있다.

요즘엔 ‘옛’것이 더 ‘힙’하다

매일 똑같이 굴러가는 일상에서도 우린 항상 새로운 것을 찾는다. 하지만 생전 처음 보는 것을 찾기란 어려운 일이다. 이에 옛것에 힙(Hip)을 더해 모든 걸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는 힙 트렌디션이 열풍이다.

하나의 놀이터가 된 전통시장

한복, 약과, 국가유산 등 옛것에 대한 MZ세대의 관심이 심상치 않다. 옛것에 대한 MZ세대의 관심을 힙 트래디션이라 정의하는데, 힙 트래디션은 ‘최신 유행이나 세상 물정에 밝은’이라는 뜻을 가진 형용사 힙(Hip)과 전통(Tradition)을 합친 말로, 전통문화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젊은 세대의 소비 트렌드를 말한다. 이러한 힙 트래디션 열풍에 가장 큰 수혜를 본 곳이 바로 ‘전통시장’이다. 힙 트래디션과 레트로 열풍으로 옛 향수를 느낄 수 있는 장소와 간식을 찾는 MZ세대가 늘면서 전통시장이 젊은 층의 놀이터로 떠오른 것이다. 실제로 한 연구소에서 2019년(1~4월)부터 2023년(1~4월)까지 전국 주요 전통시장 15곳의 매출을 분석한 결과, 2023년에 발생한 매출이 2019년 같은 기간에 발생한 매출의 149%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상승 바탕에는 기성세대 외 MZ세대의 전통시장 유입이 깔려 있다.

많은 시장 중 MZ세대 사이에서 가장 핫한 시장은 충남 예산시장이다. 백종원 더본 코리아 대표와 협업해 새롭게 단장한 예산시장은 복고 감성과 다양한 먹거리를 제공하며 큰 성공을 거두고 있다. 예산군에 따르면 2024년 1월 한 달 동안 30만 명이 넘는 방문자가 예산시장을 방문했다. 이는 2019년 대비 2023년 MZ세대 고객의 방문 증가율이 934%에 달한 수치다. 또 휴가철, 해외여행 대신 ‘촌캉스(농촌+바캉스)’를 떠나 가마솥에 밥을 지어 먹으며 시골 생활을 체험도 MZ세대 사이에서 유행 중이다.



할매 입맛이 이제는 MZ픽

힙 트래디션 열풍은 놀거리에서 그치지 않고 음식, 굿즈 등 다양한 분야로 확장하고 있다. 그중 흑임자, 약과, 팔 등 전통 먹거리가 젊은 세대 사이에서 큰 인기다. 전통 디저트 중 가장 많은 사랑을 받는 약과는 다양한 식품업계에서 현대적인 감성에 맞게 리뉴얼하며 지금은 편의점에서도 쉽게 만날 수 있는 국민 간식이 됐다. 약과 외에도 팔에 대한 니즈가 높아지면서 지난해에는 길거리 붕어빵 판매점 위치를 찾아주는 스마트폰 앱이 등장하기도 했다.

약과로 시작된 전통 간식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은 크롱지, 양갱, 개성주약 등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특히, 개성주약은 고려 시대 개성 향토 음식으로 개인이 만들기 어려운 전통 한과임에도 SNS를 통해 레시피가 공유되는 등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이와 관련, 현재 인스타그램에 ‘개성주약’ 검색하면 4만 8,000여 개의 게시물이 뜰 정도다. 전통 한과가 이만큼의 인기를 끌게 된 이유는 MZ세대의 특성 과도 관련 깊다. 개성 있고 특이한 문화를 향유하는 MZ세대가 경험하지 못했던 과거를 오히려 새롭게 인식해 고려 시대 디저트인 개성주약 등에도 흥미를 갖는 것이다. 힙 트래디션 관련 먹거리는 디저트뿐만 아니라 주류로까지 번지고 있다. 소주나 맥주보다 다소 가격이 높더라도 국내산 재료를 쓰고 품미가 좋은 전통주를 눈을 돌리고 있는 MZ세대의 소비 취향에 맞춰 주류 업계에서는 위스키 대신 전통주를 이용한 하이볼 제품을 출시해 MZ세대의 입맛을 저격하고 있다.





©국립박물관문화재단

©케이스티파이

굿즈 사러 박물관 간다

힙 트래디션 열풍에 따라 전통문화를 활용한 굿즈도 인기다. 국립박물관의 굿즈 스토어 ‘뫼즈’에서는 텀블러, 손수건, 우산 등 국가유산을 누구나 가깝게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제품을 판매 중이다. 그중 가장 인기 있는 제품은 ‘반가사유상 미니어처’다. 국보 83호인 반가사유상은 구리로 만들어 도금한 삼국시대 말기의 불상이다. 이 제품은 특히 유명 아이들이 구매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한때 품절 대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전통 굿즈에 대한 인기가 늘면서 관련 상품 매출액도 늘었다. 국립박물관문화재단에 따르면 국가유산 상품 매출액은 힙한 감성으로 재탄생한 굿즈의 인기를 바탕으로 지난해 역대 최고 매출액인 149억 원을 기록했다.

이에 국립중앙박물관은 계속해서 다양한 굿즈를 출시 중이다. 최근에는 김홍도의 작품에 등장하는 선비를 모티브로 한 ‘취객 선비 3인방 변색 잔 세트’를 출시해 큰 인기를 끌었다. 이 제품도 젊은 층의 취향을 저격하며 SNS에서 큰 화제를 끌었고 지금은 예약 판매를 통해서만 구매할 수 있는 상태다. 또 스마트폰 꾸미기에 진심인 Z세대 사이에서 케이스티파이와 국립중앙박물관이 콜라보한 ‘유물 디자인 케이스’가 인기다. 전통문화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했다는 점에서 다양한 연령대 소비자들의 호응을 얻었으며, 출시 첫날부터 컬러버레이션 시리즈 가운데 판매율 1위를 기록했다.

익숙함에서 나오는 세련미

예스러우면서도 클래식한 멋을 동시에 지니고 있는 그랜파코어룩은 할아버지의 옷장에서 꺼낸 듯한 스타일을 뜻한다. 발레코어, 바비코어 등 뚜렷한 테마를 가진 패션이 인기를 끈 가운데 그랜파코어룩 역시 많은 패셔니스타의 시선을 사로잡는 중이다. 기존에 갖고 있던 무난한 아이템들, 그리고 실제 조부모의 옷들로 스타일링을 완성할 수 있는 만큼 접근성이 좋은 것이 특징이고 실제로 할아버지의 옷을 재활용해 연출할 수도 있어 최근 가치 소비를 추구하는 MZ세대들의 소비 흐름과도 부합한다. 그랜파코어 스타일 대표 아이템은 고전적인 느낌의 케이블 스웨터나 오버핏의 옥스퍼드 셔츠, 럭비 셔츠 등으로 지나치게 화려하지 않아 데일리룩으로 연출하기에도 용이하다. 이와 관련 이랜드윌드에 따르면 스파오의 남녀공용 럭비 스웨트셔츠의 작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누적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17% 증가했다. 같은 기간 케이블 스웨터류와 오버핏 옥스퍼드 셔츠류 매출도 각각 27%, 57% 성장했다.

이러한 트렌드에 힘입어 국가유산에서 기업 행사를 여는 일도 많아졌다. 젊은 세대가 한옥이나 국가유산을 힙한 장소로 여기기 때문에 기업들이 제품을 홍보하거나 새롭게 런칭할 때 국가유산을 활용하는 것이다. 지난 3월 경북공군정전에서 열린 ‘구찌 2024 크루즈 패션쇼’가 대표적인 예이다. 전통문화를 단순히 옛것으로 보지 않고 트렌드와 접목해 생활 속에 녹여내고 있는 MZ세대들. 이러한 관심이 일회성 유행에 머무르지 않고 꾸준한 관심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전통문화를 현대적인 관점으로 재해석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미래신경과의원
전성호 원장

행복한 마음가짐이 파킨슨병 예방의 첫걸음

3대 노인 질환 중 하나인 파킨슨병은 스스로 본인의 몸을 컨트롤하기 어려워
환자와 가족 모두에게 큰 영향을 끼치는 질환이다. 내 몸을 지키기 위해선 인생에서
행복하고 건강한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자료(2022)에 따르면 파킨슨병 환자 수는 근 5년간 15%가량 증가했다고 합니다. 파킨슨병은 어떤 질환인가요?

파킨슨병(Parkinson's disease)은 중추 신경계에 영향을 미치는 퇴행성 신경 질환으로, 주로 운동 기능에 문제를 일으킵니다. 이 질환은 신경 세포의 손상으로 인해 뇌의 특정 부분에서 도파민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의 생성이 감소하면서 발생하는데요. 도파민은 신경 세포 간 신호를 전달하여 몸의 움직임을 부드럽게 조절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죠. 이러한 도파민의 결핍은 자세가 구부정해지고, 근육 떨림과 강직, 이동이 느려지는 등 생활에서 움직임에 불편함을 느끼고, 자기 몸을 컨트롤할 수 없게 만듭니다. 환자와 그 가족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안타까운 질환입니다.

뇌졸중, 치매와 함께 파킨슨병까지 3대 노인 질환으로 흔히 이야기합니다. 파킨슨병은 실제로 노인 연령대에서 많이 발병하나요?

파킨슨병의 발병 평균 연령은 약 60세로 알려져 있으며, 이 연령대 이상에서 발병률이 급격히 증가합니다.

60세 이상의 사람 중 약 1% 정도가 파킨슨병을 겪는 것으로 보고되며, 85세 이상의 고령자에게서는 발병률이 약 4%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발병 위험은 증가하기에 파킨슨병은 주로 노인 질환으로 분류됩니다. 하지만 60세 이하에서 파킨슨병이 발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체 파킨슨병 환자의 약 5~10%가 50세 이하에서 발병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를 '조기 발병 파킨슨병'이라고 합니다.

또 20~40세 사이에 발병하는 경우를 '청년형 파킨슨병'이라고 하는데 이는 매우 드물지만 존재합니다. 따라서 파킨슨병은 꼭 노년층에만 한정된 질환은 아니며, 다양한 연령대에서 나타날 수 있는 신경 퇴행성 질환입니다.

파킨슨병과 치매는 무엇이 다른가요? 두 질환 비교를 통해 공통점과 차이점 구분 부탁드립니다.

파킨슨병은 주로 운동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퇴행성 뇌 질환으로, 도파민 신경세포의 손상이 주요 원인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인지 기능 저하가 발생할 수 있지만, 초기에는 주로 운동 증상이 두드러지죠. 반면에 치매는

인지 기능 저하가 주요 증상인 퇴행성 뇌 질환으로,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파킨슨병과 달리, 치매는 초기부터 기억력 저하와 같은 인지 기능 장애가 주요 증상으로 나타납니다. 또 초기 증상으로 파킨슨병은 우울증, 수면장애, 자율신경계 문제 등이 나타나지만 치매는 공격성, 무관심과 같은 성격 및 행동 변화로 관찰됩니다. 두 질환은 모두 뇌의 퇴행과 관련된 질환이지만, 발병 기전과 증상이 다르며, 이를 통해 두 질환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파킨슨병의 대표적인 증상으로 근육의 떨림, 강직, 행동이 느려짐 외에 놓치면 안 되는 증상은 어떤 게 있을까요?

근육의 떨림, 강직, 행동이 느려짐 외에도 파킨슨병 초기 또는 진행 중에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증상이 있는데요. 의심해 볼 만한 특징적인 증상은 자세 불안정 및 균형 문제, 글씨체가 점점 작아지고 읽기 어려워지는 소필증 등의 글씨체 변화, 표정의 감소, 말이 점점 어눌해지거나 발음이 불분명해지거나, 목소리가 약해지거나, 단조로운 어조로 말하는 경향 등이 있습니다. 또 우울증, 불안 등의 심리적인 증상도 있고 또 빈뇨, 배뇨 곤란, 변비 등의 자율신경계 이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근육의 움직임을 조절하는 신경계의 영향으로 장과 방광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죠.

또 대표적인 파킨슨병 초기 증상 중 하나는 수면장애가 있습니다. 불면증 및 렘수면 행동 장애(RBD)인데요. 이는 렘수면 중에는 몸이 마비된 상태여야 하는데 꿈속에서 싸우는 행동을 실제로 하거나, 수면 중에 심하게 움직이거나 소리를 지르는 등의 행동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잠꼬대가 심한 것도 파킨슨병의 증상 중 하나로 보기도 합니다. 렘수면 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 중 많은 수가 향후 파킨슨병이나 다른 신경 퇴행성 질환(루이소체 치매, 다계통위축증 등)으로 발전합니다. 혹시 심한 잠꼬대가 지속해서 나타난다면 파킨슨병을 포함한 신경 퇴행성 질환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신경과 전문의와 상담하는 것을 권합니다.



파킨슨병의 진단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또 파킨슨병에는 어떤 치료들이 있는지, 어떤 기준으로 치료를 결정하는지도 궁금합니다.

파킨슨병의 진단은 주로 임상적 평가를 통해 이루어지며, 환자의 병력과 신체검사(신경학적 검사)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병력 청취→신경학적 검사→뇌의 구조적 이상을 확인하기 위한 영상 검사(MRI, CT 스캔 등) 그리고 레보도파(Levodopa) 같은 도파민 대체 약물을 사용해 증상의 호전을 관찰하기도 합니다. 레보도파 약물로 인해 증상이 감소하는 등 긍정적인 반응은 파킨슨병 진단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지표가 되기 때문이죠. 이외에도 약물 치료, 뇌심부자극술(뇌의 특정 부위에 전극을 이식해 전기 자극으로 운동 증상을 조절), 물리치료, 언어치료, 비약물적 관리 등 파킨슨병의 증상을 조절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파킨슨병 치료는 환자마다 다르게 접근해야 하며, 주치의와의 지속적인 상담을 통해 치료 방침을 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스트레스는 신경 퇴행성 질환의 악화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일상에서 스트레스 관리에 신경을 쓰는 것은 파킨슨병뿐만 아니라 모든 질환 예방의 중요한 생활 습관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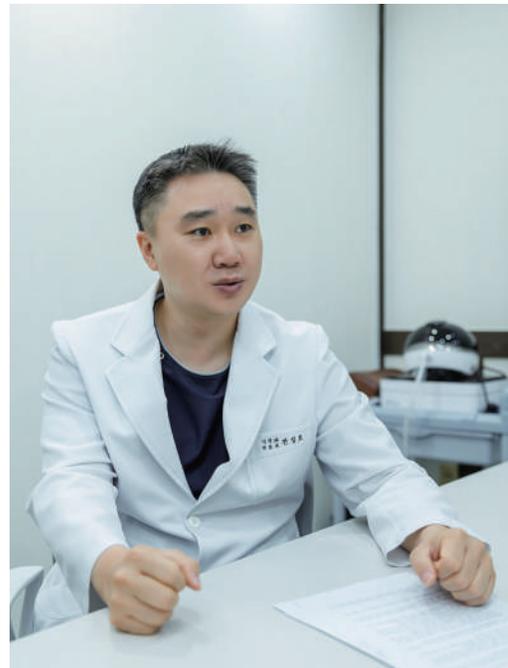
아직 파킨슨병은 불치병으로 취급되고 있습니다. 학계는 파킨슨병 완치에 대해 어떤 입장인지 궁금합니다.

파킨슨병은 현재로서는 완치가 불가능한 질환으로 취급되고 있습니다. 이는 파킨슨병이 뇌의 도파민을 생성하는 신경세포의 손상 및 소실로 인해 발생하는 퇴행성 질환이기 때문입니다. 이 손상된 신경세포를 복구하거나 재생하는 방법이 아직은 없기에, 병의 진행을 막거나 되돌릴 수 있는 치료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사용되는 대부분의 치료법은 증상을 완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계에서는 파킨슨병의 근본 원인인 신경세포의 손상을 늦추거나 멈추는 방법을 찾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경세포 재생을 목표로 한 연구도 활발히 진행 중이며, 줄기세포 연구는 손상된 도파민 신경세포를 대체할 수 있는 세포를 생성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줄기세포를 이용해 손상된 도파민 신경세포를 새롭게 만들어 뇌에



이식할 수 있다면, 파킨슨병을 치료할 가능성이 열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방법은 아직 초기 연구 단계에 있으며, 안전성, 효능, 그리고 윤리적인 문제들이 해결되어야 합니다.

파킨슨병의 완치를 목표로 하는 연구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존재하지만, 최근 과학적 발전과 연구 결과들을 보면, 파킨슨병의 진행을 지연시키거나 특정 증상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새로운 치료법들이 개발될 가능성은 높습니다. 특히 신경세포 재생 및 유전자 치료와 같은 분야에서 큰 진전이 이루어진다면, 파킨슨병 치료의 패러다임이 크게 변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파킨슨병이 가까운 미래에 완치될 가능성은 작지만, 지속적인 연구와 임상 실험을 통해 점차 환자들의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는 새로운 치료법들이 개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의학은 꾸준히 발전하고 있으며, 이러한 연구들이 언젠가는 파킨슨병 치료에 혁신을 가져올 수 있다고 믿습니다.



끝으로 파킨슨병을 예방 또는 치료에 도움이 되는 생활 습관, 효과적인 운동법, 음식 등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일주일에 최소 3~4회, 30분 이상 걷기, 자전거 타기, 수영 등 심혈관 건강을 개선하고, 도파민 수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 유산소 운동을 추천합니다. 또 균형 잡기 연습(한 발로 서기), 태극권, 요가 등은 파킨슨병 환자들이 자세를 개선하고 넘어질 위험을 줄이는 데 효과적인 운동이고요. 음식으로는 베리류의 과일, 시금치, 브로콜리, 당근 등 항산화제가 풍부한 음식들이 신경세포 손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고, 연어, 고등어, 참치 등 지방이 많은 생선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포함되어 있어 염증을 줄이고 뇌 건강을 유지하는 데 좋습니다.

무엇보다 스트레스는 신경 퇴행성 질환의 악화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일상에서 스트레스 관리에 신경을 쓰는 것은 파킨슨병뿐만 아니라 모든 질환 예방의 중요한 생활 습관입니다. ‘도파민 중독’이 아닌 건강하고 활기찬 삶에서 나오는 도파민 분비, 긍정적 스트레스와 엔도르핀 등 행복감을 주는 호르몬의 역할은 우리의 몸과 마음 건강에 매우 밀접해 있습니다. 삶에서의 만족, 감사함, 즐거움, 행복을 누리며 건강한 노후와 그 미래를 기대하며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Profile.

- 전성호 신경과 전문의
- 미래신경과의원 대표원장
- 가천의대길병원 외래교수
- 인하대병원 외래교수
- 대한신경과학회 정보이사
- 대한신경과의사회 수가개발위원장/공보이사
- 대한노인의학회 정보통신이사
- 대한디지털임상의학회 정보통신이사

Check list.

전성호 원장이 알려주는 일상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파킨슨병 초기 증상 체크리스트!

- 1 최근에 글씨체가 작아지거나 불규칙해졌습니까?
- 2 움직임이 느려지거나, 활동을 시작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 3 손, 발, 턱에서 떨림이 나타납니까? 특히 휴식 중에 발생합니까?
- 4 한쪽 팔을 움직이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걸을 때 팔을 흔들지 않습니까?
- 5 표정이 줄어들고, 무표정해 보인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까?
- 6 균형을 잡기 어렵고, 자주 넘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듭니까?
- 7 무기력감, 우울증, 불안감 등이 자주 발생합니까?
- 8 후각이 예전보다 둔해졌습니까?
- 9 변비가 심하거나, 배뇨에 문제가 생겼습니까?
- 10 수면 중에 심한 잠꼬대(렘수면 행동 장애)가 있습니까?

위 항목 중 5개 이상 해당한다면, 파킨슨병의 가능성을 고려하고 신경과 전문의와 상담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파킨슨병에 대한 우리의 자세



파킨슨병은 불치병이라는 점과 삶의 많은 제약이 걸리는 도전적인 질환인 만큼 무서운 질환으로 여겨질 것입니다. 하지만 적절한 치료와 관리, 그리고 긍정적인 태도로 증상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음을 기억하고, 이 질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적극적인 전문의와의 상담 등으로 질환에 대해 정확한 지식과 이해를 바탕으로 극복하고자 하는 긍정적인 자세가 중요합니다.

우주 경제(space economy)의 현재와 미래

Space Economy

지난 5월 우주항공청이 개청 됨에 따라 우주 경제에 관한 관심이 날로 커지고 있다. 선진국들은 이미 우주개발의 주도권을 민간으로 넘기고 있다. 우주개발을 민간이 주도하면서 혁신의 속도는 점점 빨라지고 있다. 이제 우주 경제는 막대한 이익을 가져다주는 기회의 장(場)이 되었다.



현재 전 세계 우주 경제의 규모는 2021년 기준으로 469억 달러 규모로 추산된다. 그리고 당분간 위성 서비스는 우주 경제의 주력이 될 가능성이 크다.

우주 경제의 핵심은 위성 서비스

인류의 첫 위성은 1957년 소련의 스푸트니크 1호다. 이때부터 현재까지 우주 경제의 대부분은 위성TV, 위성통신과 같이 주로 위성 서비스에서 만들어졌다. 주로 정부나 대형 통신사가 운영 주체였다. 이들은 이러한 위성을 기반으로 TV를 중계하고, 해외 카드 결제 서비스, 국제영상통화 서비스, 내비게이션 서비스 등을 만들어 일반 기업에 팔았다.

인터넷이 일반화되면서 이런 서비스는 인터넷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하지만 아직 인터넷이 닿지 않는 바다 위나 하늘 위, 땅이 넓어 기지국 건설에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경우, 또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는 위성 서비스가 유일한 해법이다. 그 밖에도 위성 서비스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다양한 분야에서 꾸준히 사용되고 있다.

• **기후변화 감시** 160개 이상의 기후 위성이 궤도를 돌고 있다. 위성은 바닷물의 온도, 수증기의 양, 남극 및 북극의 얼음 면적의 변화, 구름의 이동 방향을 관측하고 이를 통해서 각국에 갑작스러운 기상이변에 대응토록 각종 정보를 제공한다.

• **세계 식량 자원 감시** 농작물의 경작 상황은 식량안보와 직결되는 문제이며, 식량부족은 전 세계 경제에 막대한 파급력을 가져온다. 세계 식량 자원을 감시하기 위해 위성에서 촬영한 이미지로 전 세계 주요 농작물의 경작 면적, 경작 현황 등을 파악하고 있다.

• **군사 자원 감시** 주요 군사적 자원의 이동 상황, 개발 상황 등을 각국의 정부는 개별적인 위성을 통해 감시하고 있다.

현재 전 세계 우주 경제의 규모는 2021년 기준으로 469억 달러(한화 약 650조 원) 규모로 추산된다. 그리고 대부분 위성 서비스로부터 창출되고 있다. 당분간 위성 서비스는 우주 경제의 주력이 될 가능성이 크다.

스푸트니크 1호



tipping point, 독이 무너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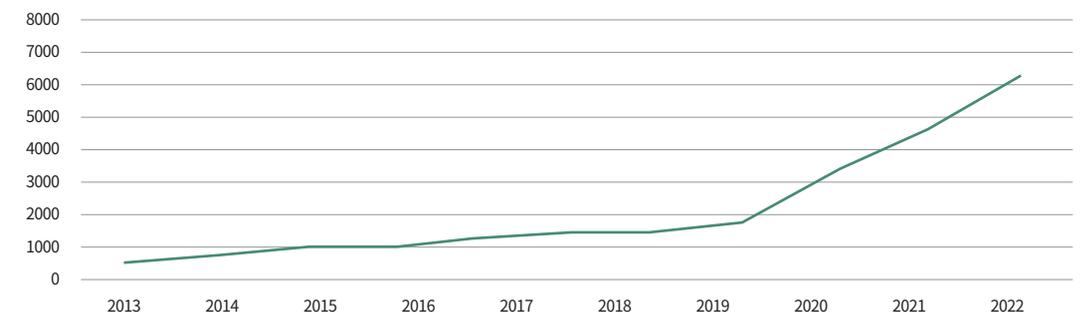
10년 전 위성 발사 비용은 킬로그램당 65,000달러(한화 약 9천만 원) 수준이었다. 지금은 발사체 재활용 기술, 고중량발사체 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킬로그램당 1,500달러(한화 약 2백만 원) 수준까지 낮아졌다. 10년 전보다 95% 이상 낮아진 셈이다. 이렇게 비용이 줄어든 데에는 AI 기술을 통한 설계혁신, 3D 프린팅 기술 등 관련 기술의 동반 발전 때문이다.

발사 비용뿐만 아니라 위성 제작 비용도 낮아졌다. 우선 태양전지판의 경량화 및 고성능 배터리 기술 등의 기술이 발전하면서 위성의 무게가 예전 대비, 1/100 수준으로 가벼워졌다. 위성을 상업적인 목적으로 대량 생산하면서 생산 단가도 낮아졌다.

10년 전만 해도 위성 제작에 대당 10억 달러(한화 약 1조 3천억 원)가 소요되었는데 지금은 소형위성 하나를 만드는데 10만 달러(한화 약 1억 4천만 원) 정도면 가능하다.

이렇게 위성에 들어가는 비용이 현저하게 낮아짐에 따라 위성을 통해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민간기업이 우주산업에 적극적으로 들어오고 있다. 투자도 줄을 잇고 있다. 2021년 기준 민간기업의 우주산업 투자는 100억 달러(한화 약 138조 원) 수준으로 매년 급속히 증가 추세다. 과거 10년 동안 민간기업에 대한 투자는 10배 이상 늘어났는데, 이에 비해 같은 기간 정부투자는 오히려 50% 이상 줄었다. 확실히 우주 경제의 주도권이 민간으로 넘어온 셈이다.

운영중인 위성 수



더 커지는 위성 서비스 시장

2024년 World Economic Forum에서 발표한 우주 경제의 규모는 매년 9%씩 성장해서 2035년에는 1,750 billion 달러(한화 약 2,400조 원)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중 가장 높은 성장이 예상되는 분야는 위성 인터넷 서비스이다. 왜 위성 인터넷 분야가 가장 유망한지 한 가지 예를 들어보자.

현재 위성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통신사의 경우 고도 3만 6천km 높이에 있는 위성을 사용한다. 회선 속도는 2Mbps 정도이다. 반면 현재 위성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미국 스타링크는 고도 550km 높이의 저궤도 위성을 사용한다. 거리가 가까우니 회선 속도도 빨라 50 ~ 500Mbps까지 가능하다. 저궤도 위성은 속도가 빠른 대신에 서비스할 수 있는 면적은 고궤도 위성

보다는 상대적으로 좁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지구 전체를 저궤도 위성으로 서비스하려면 대략 4만 2천 개 정도의 위성이 필요하다. 스타링크는 2023년 현재까지 4,300대 이상의 위성을 이미 쏘아 올렸다. 그리고 2027년까지 목표량을 채운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현재는 위성 인터넷보다 일반인터넷망을 사용하는 것이 속도나 비용 측면에서 유리하다. 하지만 향후 6G 통신으로 가면 주파수대가 현재보다는 5배 이상 짧아지면서 기지국도 지금보다 훨씬 촘촘히 세워야 한다. 따라서 6G 기지국 구축 비용은 천문학적으로 늘어난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저궤도 위성을 사용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자율주행차, 도심 항공교통, 3D 가상현실 등 모든 미래산업에 6G 통신은 필수기 때문이다.



우주산업은 앞서 나온 혁신적인 제품들보다 더 큰 삶의 변화를 가져다줄 것이고, 앞으로 아주 긴 시간 동안 세계 경제의 중요한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다음으로 관심을 가지는 분야는 위성 인터넷 수신기, 터미널 장비, 위성용 통신 chip 제조 분야다. 지금도 위성 인터넷을 쓰려면 전용 수신기가 필요하다. 현재는 78만 원 정도로 비교적 고가지만 위성 인터넷이 많이 보급되면 수요도 같이 늘어나 가격도 많이 낮아질 것이다. 자율주행차나 도심 항공교통에서 위성 6G 통신을 하려면 터미널 장비나 통신용 전용 chip이 차량에 내장되어야 하므로 이들 시장의 동반 성장도 예상된다. 그 밖에도 게임, 사물인터넷, 원격의료, 지능형 무기 운영 분야 등도 엄청난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위성 서비스 시장의 성장이 심우주 탐사를 촉진한다

위성 서비스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안정적인 수익 창출이 가시화되면서 심우주 탐사영역도 같이 부상하고 있다.

심우주 탐사는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은 물질을 가져다가 인류가 사용할 자원으로 사용하는 것인데, 예를 들면 달에는 70억 인류가 1만 년 동안 에너지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헬륨-3이라는 물질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달에만 이러한 종류의 물질이 1,500조 달러 정도 매장되어 있으리라 과학자들은 추정하고 있다.

막대한 가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주 경제에서 심우주 탐사영역은 아직 미미하다. 기술적으로 넘어야 할

난제가 아직 많이 때문이다. 하지만 위성 서비스 시장의 수익이 심우주 탐사 연구·개발에 꾸준히 재투자되면서 심우주 탐사영역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우주 경제는 이제 시작

전기가 처음 세상에 나오고 전 세계적으로 전파되기까지 50년이 걸렸다. 자동차는 60년이 걸렸다. 이외에도 휴대폰, 인터넷 등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은 혁신적인 제품들이 정점을 맞이하기까지 대부분 30년 이상의 시간이 걸렸다. 우주산업은 앞서 나온 혁신적인 제품들보다 더 큰 삶의 변화를 가져다줄 것이고, 앞으로 아주 긴 시간 동안 세계 경제의 중요한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Profile.

글. 최원훈
공학박사. 모토로라, IBM 근무를 거치고 현재는 퓨처게이트 주식회사 대표, 연구소장을 역임하고 있다. 한양대학교, 롯데그룹, SK그룹 강의를 담당하기도 했다.

은퇴자금 4% 인출 규칙, 제대로 알고 잘 활용하자



은퇴자금은 모으는 것도 어렵지만 어떻게 인출할지를 결정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다. 개인의 기대여명을 알기 어렵고 향후의 경제 및 금융시장의 상황도 미리 알기 어렵기 때문이다. 은퇴자금을 인출하는 방법 중 하나로 “4% 인출 규칙”을 제대로 알고 잘 활용해보자.

“4% 인출 규칙”을 제대로 알자

“4% 인출 규칙”은 은퇴 첫해에 적립된 자금의 4%를 인출하고, 이후 매년 인플레이션에 따라 인출액을 조정하여 은퇴자금이 30년 동안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전략이다. 이 규칙은 1994년에 윌리엄 벤젠(William P. Bengen)이 “Journal of Financial Planning”에 논문으로 소개하였다.

4% 인출 규칙에 따르면 은퇴 첫해에는 포트폴리오 가치의 최대 4%까지 인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은퇴를 위해 100만 달러를 저축했다면 은퇴 첫해에 4만 달러를 쓸 수 있다. 은퇴 2년 차부터는 직전 연도에 인출한 금액을 금년도의 인플레이션율로 조정한다. 인플레이션이 2% 상승했다면 4만800 달러(4만 달러 × 1.02)를 인출하고, 반대로 인플레이션이 2% 하락한 경우 3만 9,200 달러(4만 달러 × 0.98)를 인출한다. 3년 차에는 2년 차에 인출한 금액에 3년 차의 인플레이션을 적용하여 인출 금액을 조정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이후에도 매년 인출 금액을 인플레이션에 연동하여 조정하는 것이다. 그런데 은퇴자들이 하는 한 가지 흔한 오해는 4% 법칙에 따라 은퇴 기간 매년 포트폴리오 가치의 4%를 인출해야 하는 것으로 안다는 것이다. 또한 매년 인출하고 남은 금액은 보통주 50%와 중기 국채 50%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지속적으로 리밸런싱한다고 가정한다.



벤젠은 이러한 가정하에 1926년부터 1976년까지 50년에 걸쳐 시작된 은퇴를 살펴보았는데, 3% 인출률을 적용하면 모든 고객의 포트폴리오가 은퇴를 시작한 연도와 관계없이 50년을 지속하였다. 4% 인출률을 적용하면 대부분 고객의 포트폴리오가 50년을 지속하나, 그렇지 못한 고객의 포트폴리오도 최소 35년 이상 지속하였다. 반면 5%의 인출률을 적용하면 포트폴리오 수명이 50년을 지속하는 고객 수가 크게 줄어드나 최소 20년은 지속하는데, 6% 인출율을 적용하면 50년을 지속하는 고객은 극히 일부이고 20년에 미치지 못하는 고객 수도 많아진다.

또한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너무 적은 주식을 보유하는 것이 너무 많은 주식을 보유하는 것보다 더 많은 해를 끼친다는 것이 밝혀졌다. 포트폴리오 수명 측면에서는 주식 비중이 50%일 때 최적이었으며, 25% 이하일 때 수명이 크게 짧아졌다. 하지만 부의 창출이라는 2차 목표까지 고려한다면 주식 비중을 75%까지 높일 것을 제안했다. 결국 벤젠이 제시한 4% 규칙은 50~75%의 주식 비중을 전제로 한다.



그런데 수익률 시퀀스 위험이 존재하여 은퇴 초기에 시장 상황이 불리하면 포트폴리오가 조기 고갈될 가능성이 있다. 반대로 강세장 초기에 은퇴하면 포트폴리오 가치가 많이 증가할 수도 있다. 문제는 미래의 시장 성과를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이지만, 다행히 벤젠의 연구는 1929~1931년(주식 61.0% 하락), 1973~1974년(주식 37.2% 하락), 1937~1941년(주식 33.3% 하락) 등 극심한 시장 하락기에 은퇴한 경우까지 고려했다. 이러한

최근에는 시장 상황에 따라 보다 유연한 접근방식이 주목받고 있다. 물론 이들 대안적 접근방식 역시도 완벽한 것은 아니다.

경우에도 4% 규칙을 따르면 포트폴리오가 최소 30년 이상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1929~1931년 대공황기보다 1973~1974년 시장 하락기 직전에 은퇴한 사람들이 4% 규칙하에서 더 큰 어려움을 겪었다. 그 이유는 1973~1974년에 물가가 22.1%나 급등하자 생활 수준 유지를 위해 연간 인출금을 대폭 늘려야 했던 반면, 1929~1931년에는 오히려 15.8% 하락하는 디플레이션이 나타나자, 인출금을 줄일 수 있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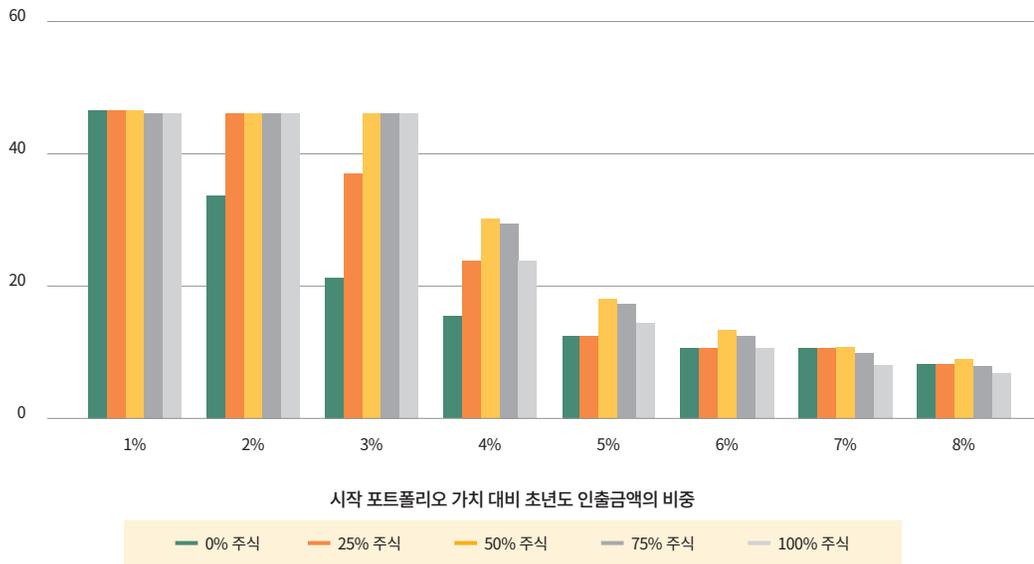
“4% 인출 규칙”은 여전히 유효한가

벤젠의 4% 인출 규칙은 미국에서 오랫동안 은퇴 설계의 기본 원칙으로 여겨졌지만, 그 유효성에 대한 논쟁은 최근에도 계속되고 있다.

4% 인출 규칙의 유효성을 옹호하는 입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논거를 제시한다. 첫째, 벤젠의 연구는 1926년 이후의 장기 시장 데이터를 활용하였으므로 다양한

인출을 지속할 수 있는 최소 연수

주: 1926~1976년 Ibbotson Data의 최악의 경우를 가정함



출처 : William P. Bengen, “Determining Withdrawal Rates Using Historical Data”, Journal of Financial Planning, October 1994, p. 175.





시장 국면을 포괄하여 검증되었다. 둘째, 4%의 인출률은 대부분의 시나리오에서 포트폴리오가 30년 이상 지속될 수 있도록 보수적으로 설정된 것이다. 셋째, 4% 규칙은 일반 투자자들도 쉽게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는 간단한 원칙이다.

반면, 4% 인출 규칙의 한계를 지적하는 견해는 다음과 같은 논거를 든다. 첫째, 저금리 기조와 기대수명 증가 추세가 맞물릴 때 4%는 다소 높은 인출률일 수 있다. 둘째, 은퇴 초기 시장 충격이 장기 포트폴리오 성과에 미치는 시퀀스 위험을 간과하고 있다. 셋째, 천편일률적인 4% 규칙보다는 개인의 위험 선호도, 건강 상태, 예상 수명, 은퇴 목표 등에 맞춰 인출률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넷째, 50%의 채권 비중이 적절한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렇듯 논쟁이 진행됨에 따라 최근에는 시장 상황에 따라 인출률을 조정하는 동적 인출 전략, 주식시장의 상황이 좋을 경우 채권 비중 축소, 시장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환경에서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인출률을 3%로

하향 조정, 은퇴 후 목표 생활 수준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을 계산하여 인출률을 정하는 목표 기반 인출 규칙 등 보다 유연한 접근방식이 주목받고 있다. 물론 이들 대안적 접근방식 역시도 완벽한 것은 아니다.

국내에서 4% 인출 규칙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미국에서 행해진 논쟁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도 4% 인출 규칙이 유효한지는 논쟁이 될 수 있다. 이는 4% 인출 규칙이 미국 자본시장의 경험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4% 인출 규칙의 유효성을 검증한 통계는 미국의 자본시장 역사, 경제성장률, 인플레이션, 금리, 주식 및 채권 시장의 변동성과 같은 요소들을 반영한다. 그러나 한국 자본시장은 미국 자본시장에 비해 상대적으로나 절대적으로 작고, 주식시장 역시 특정 산업이나 기업에 더 집중되어 있다. 이러한 차이가 4% 인출 규칙의 적용 가능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4% 인출 규칙을 적용하여 타당성이 있을지 검증한 실증논문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도

려해야 한다. 향후 이러한 실증논문이 많이 나와서 타당성이 검증된다면 인출 방법으로 확고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는 하나의 가설로 받아들이는 것이 좋을 것이다.

따라서 한국과 같은 다른 시장의 경제적 및 금융적 조건을 고려할 때, 4% 인출 규칙을 직접 적용하기 전에 사전에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인출률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개인의 은퇴 계획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규칙을 맹목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재무 상황, 은퇴 목표, 그리고 투자 선호도를 고려하는 것이다.

은퇴자금 관리를 위한 시사점

우리나라에서 4% 인출 규칙을 적용하려면 자본시장의 고유한 특성과 경제적 여건을 고려하여 규칙을 조정하고 개인화할 필요가 있다. 은퇴 계획의 수익률과 리스크 프로파일에 맞게 개별화되어야 한다. 이는 재무 상담사와 상담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한국 시장에서의 은퇴 계획을 더욱 견고하게 만들 수 있다.

더욱이, 한국 주식시장의 특성과 한계를 고려하여 투자 지역을 다양화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러한 접근방법은 전반적인 포트폴리오 위험을 분산시키고, 다른 시장의 성장 기회를 포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결론적으로, 4% 인출 규칙과 같은 일반적인 은퇴 전략은 지역적 특성과 개인의 재무 목표에 맞게 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일회성으로 조정될 것이 아니라 경제 및 금융시장의 상황을 고려하여 유연하고 융통성 있는 전략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 나아가 인출 금액의 적정성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할 것이다. 벤젠은 은퇴자금이 소진되지 않고 보존되어 상속되는 것을 지향했는데, 은퇴자금의 규모가 크지 않을 경우 4% 인출 규칙에 따라 인출한 금액이 생활비에 부족할 우려가 있다. 이러한 점을 극복하려면 인출하는 금액이 생활비로서 적절한 수준이 되게 하는 것과 은퇴자금이 완전하게 보존되는 것보다도 사람의 수명보다 짧게 소진되지 않게 하는 것 사이에서 적절한 절충점을 찾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Profile.

글. 오영수
연금, 건강보험, 은퇴 분야에 대해 30년 넘게 연구해 왔다. 저서로는 『은퇴혁명 시대의 노후설계』, 『백세시대 생애설계』(공저), 『고령사회의 사회보장과 세대충돌』 등이 있다.

일회성으로 조정될 것이 아니라
경제 및 금융시장의 상황을
고려하여 유연하고 융통성 있는
전략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



서울과 주요 수도권 부동산 시장 불안 심리 커져

서울 아파트 전세시장이 2023년 4월 마지막 주 이래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고금리로 매매와 전세 가격이 급락한 이후 3년 만에 서울 아파트 전세 비중이 최고치다. 수도권과 서울의 전세 및 매매 상승이 지속되지만, 지방은 전체적으로는 하락 폭이 유지되거나 줄어드는 현상이다. 올가을을 지나고 나서 내년 상반기가 돼야 최소한 안정화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든다. 이러한 현상이 왜 발생하고 있는지를 여러 각도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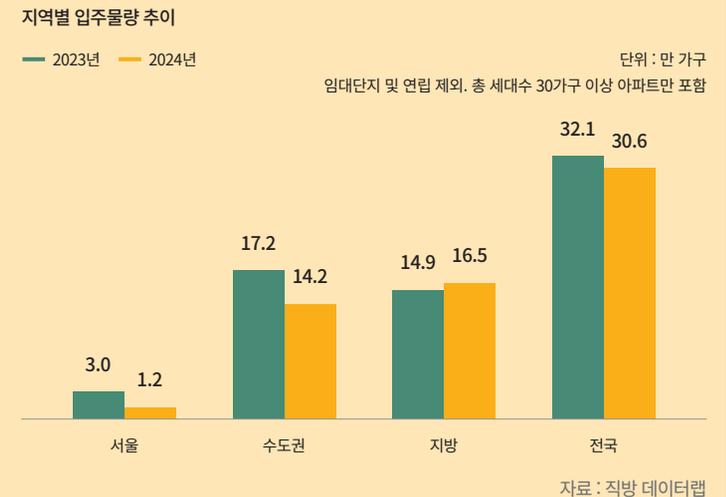
인플레이션과 전세

전세는 인플레이션 헤지(inflation hedge)로, 즉 인플레이션만큼 오르는 게 정상이다. 문제는 인플레이션보다 더 높게 오르는 경우이다. 불과 2년 전과 지금은 양상이 크게 달라졌다. 2021년과 2022년은 역전세를 우려할 정도로 예외였다. 2022년만 보면 당시 서울 아파트 전세 가격은 5.45% 하락했다. IMF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22.41%)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떨어진 것이다. 예전 전세 가격 고점 대비 현재 전세 가격은 여전히 낮은 편이다. 이 와중에 금리인하 전망이 나온다. 물론 금리인하가 전세 가격과 아파트 가격 인상의 절대 조건은 아니다. 정부는 주택 담보대출 금리가 급격히 낮아지는 것을 용인하지 않을 듯하다.

수급 불균형

입주 물량 부족 현상 심화다. 올해 서울아파트 입주 물량은 2만4139가구로 전년 3만570가구 대비 21% 줄었다. 고금리에 자재비와 인건비가 올랐다. 금융당국은 부실 프로젝트 파이낸싱(PF)에 대한 옥석 가리기를 주문했다. 건설 현장의 자금줄은 완전히 얼어붙었다. 금융회사들이 신규 PF 대출을 거의 허용하지 않았다. 만약 신규아파트 공급 부족이 온다면 2025~2026년은 공급이 거의 없어 주택가격이 더욱 불안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직주 근접(職住近接), 주택 멸실, 소득 수준 상승으로 서울의 신규 아파트 수요는 타이트하다. 공급이 이를 맞춰주지 못하면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부족한 것은 주택 물량에서 아파트 신규 입주 물량이다. 지방의 입주 물량 과다 및 미분양과는 다른 이야기다.

신규아파트 공급 부족이 온다면 2025~2026년은 공급이 거의 없어 주택가격이 더욱 불안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빌라(다세대·연립) 비아

서울은 아파트가 50%, 빌라가 50%이다. 아파트를 얻을 목돈이 없는 사람들이 선호하는 것이 빌라다. 관리·주차 등 편리성에서는 아파트와 견줄 수 없지만 출퇴근이나 통학이 용이한 서울·수도권을 벗어나지 않고도 싼값에 전·월세를 구하기 쉬워서다.

그러나 빌라 전세사기로 인해 임대차 수요에서 아파트로의 쏠림현상이 심해져 불균형이 커지고 있다. 잇따른 빌라 사기로 빌라포비아가 확산한 탓에 아파트 수요만 확장되고 있어 아파트 전세가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 빌라에서 전세는 줄고 월세가 늘고 있다. 월세가 부담되니 대출받아 아파트로 옮겨가는 인구가 늘고 있다.

임대차 2법 만기 도래

7월 말부터 계약갱신청구권 종료 물량이 시장에 나오고 있다. 임대인들이 향후 4년 치 임대보증금을 미리 올리면서 전세 시세가 더욱 요동칠 수 있다. 2020년 7월 31일, 임대차 기간을 2+2년으로 연장하는 ‘계약갱신청구권’과 재계약 시 임대료 상승 폭을 5%로 제한하는 ‘전월세상한제’가 시행되었다. 이제 4년이 지나니 그 혜택을 못 받게 되는 것이다.

서울, 수도권(인기 수도권, 비인기 수도권) 지방 간의 가격 차가 더 벌어질 것 같다. 서울은 대체재가 없다. 인허가와 착공 모두 급감하고 있다. 이 상황에서 하루빨리 공급 물량을 제대로 보급하도록 규제와 금융을 손봐야 하는 상황이 급하게 다가오고 있다.



이 악순환의 고리를 손보지 않고서는 서울 주택시장의 안정을 찾기는 상당히 어려워 보인다. 서울 전세 가격 상승이 매매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는 것은 시기의 문제라는 게 중론이다.



서울 주택 보급률이 93.7%(2022년 기준)를 기록하며 최근 3년 연속 하락해 13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보급률은 주택 수를 가구 수로 나눈 것으로, 100%가 되면 주택과 가구 수가 같다는 의미다. 주택 보급률 하락의 가장 큰 원인은 1인 가구 급증이다. 1~2인 가구 증가로 당분간 가구 수는 줄지 않고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수도권 주택 공급에 물꼬를 터줄 3기 신도시 입주마저 수년이 더 걸릴 전망이다. 당초 3기 신도시 입주 시기는 2025~2026년으로 예정됐다. 토지 보상 문제 등으로 일정이 2년 안팎으로 늦춰질 전망이다.

최근 건설 현장에 ‘공사비 쇼크’가 덮쳤다. 분양 가격만 급등시킨 게 아니다. 무섭게 된 자재비, 치솟은 인건비로 사업성까지 저해할 정도가 됐다. 이제 재건축·재개발 현장은 전쟁터를 방불케 한다. 공사비를 올려 받지 못하면 손실을 보는 건설회사와 가구당 수억 원의 추가 부담금을 내야 하는 조합원 간 갈등이 첨예해졌다. 공사비를 올려도 유찰을 거듭하는 현장도 늘었다. 아파트 공급 일정이 밀리며 금융비용도 눈덩이처럼 불고 있다. 사업성이 떨어지는 악순환이 계속된다. 이 악순환의 고리를 손보지 않고서는 서울 주택시장의 안정을 찾기는 상당히 어려워 보인다. 서울 전세 가격 상승이 매매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는 것은 시기의 문제라는 게 중론이다. 하반기에 서울에 후분양 물량이 공급되는 등 물량이 증가하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Profile.

글. 조원경
1990년 행정고시(재경직) 합격. 1991년부터 기획재정부에서 국제금융심의관으로 국제업무에 하며 근무했다. 2020년 울산광역시 경제부시장으로 근무하며 산업 현장에서 뛰었다. 2022년 7월부터 울산과학기술원(UNIST) 글로벌 산학협력센터장 겸 교수로 근무하고 있다. 중앙일보 ‘돈의 세계’, 한국경제신문 ‘비즈니스 인사이트’, 한국일보 ‘세계사로 읽는 경제’ 등의 칼럼니스트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다.

Aqua Scape



집에서 즐기는 물멍 보고 있으면 힐링되는 아쿠아스케이프

알록달록한 물고기가 푸릇푸릇한 수초들 사이로 유유히 수영한다. 정성스럽게 꾸민 어항을 보며 물멍, 물고기멍을 하다 보니 마음이 편안해진다. 물고기를 돌보는 모든 반려인들이 입을 모아 하는 말이다.

물고기를 통해 느끼는 희로애락(喜怒哀樂)

반려동물 천만 시대인만큼 우리 사회에서 다양한 동물들과 반려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흔히 키우는 강아지와 고양이 다음으로 인기 있는 반려동물은 바로 ‘물고기’라는 사실! 물고기에 흥미가 없던 사람도 막상 ‘물멍’, ‘물고기멍’을 하다 보면 수초 사이를 움직이는 작고 소중한形形色색 물고기에 마음을 빼앗겨 버린다.

물고기 세계에 입문하려면 먼저 알아야 할 단어들이 있다. 물고기를 키우는 사람들끼리 통하는 단어, 바로 ‘물생활’과 ‘물생활 접습니다’이다. ‘물생활’은 물고기를 키우는 취미를 가지고 있는 것을 뜻하고, 반대로 ‘물생활 접습니다’는 물고기 키우기를 중단한다는 뜻이다. 그 외에도 물잡이(어항에 물고기가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과정), 물깨짐(어떤 이유로 물속 상태가 나빠진 상태), 물맞담(새로운 물고기를 입수하기 전 물에 적응시키는 과정), 봉달(물고기, 수초 등 물생활 용품을 구매하는 것) 등이 있다.

최근 새로운 취미를 찾다가 물생활을 시작한 김태영 씨는 물고기가 주는 희로애락으로 인해 하루하루가 새롭다고 말한다. 최근 데려온 ‘플래티넘 화이트 라이어테일 몰리’ 2쌍이 새끼 9마리를 낳았을 때 얻은 기쁨과 물고기들끼리 서로 싸우고 새끼가 죽었을 때의 분노와 슬픔, 사료를 주기 위해 손가락을 수조 위로 올렸을 때 따라오는 즐거움까지 물고기를 키우기 전에는 이 작은 물고기로 인해 다양한 감정을 느끼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한다. 그렇게 물고기의 매력을 알게 되자 자신만의 수조를 짓는 취미가 더해졌다. 바로 아쿠아스케이프다.



내 방에 작은 바다 아쿠아스케이프(Aqua-scape)

물고기를 키우는 매력 중 하나는 바로 아쿠아스케이프(Aqua-scape)다. 아쿠아스케이프란, 수중을 의미하는 아쿠아(Aqua)와 풍경을 의미하는 랜드스케이프(Landscape)의 합성어로 자연에서 취할 수 있는 수초·돌·유목 등을 활용해서 수중 정원을 만드는 예술 활동을 말한다. 이러한 활동을 하는 것을 아쿠아스케이핑(Aqua-scaping)이라고 부른다. 수중 자연환경의 재현을 목표로 시작된 아쿠아스케이프가 점차 심미적이고 예술적인 부분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지금의 모습으로 자리가 잡혔다. 2000년대 초반에 발생한 분야지만 마니아층에서만 인기 있던 아쿠아스케이핑 취미가 팬데믹을 겪으면서 실내에서 즐길 수 있는 힐링 취미, 불멍·물멍이 떠오르며 점차 대중적인 인기를 얻게 됐다. 물론 물고기도 생명인 만큼 물고기를 키우기 시작했다면 신경 써야 하는 것들이 매우 많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하지만 크기부터 색깔까지 다양한 종류의 물고기를 내 손으로 직접 만든 수중 정원에서 반려하는 것은 경험하지 않으면 모를 즐거움이다. 색다른 취미를 찾고 있었다면 물생활에 흠뻑 빠져보자.

처음 ‘물생활’을 시작하는 당신에게
추천하는 반려물고기



Danio rerio

제브라다니오

파란 줄무늬가 특징인 작은 열대어로, 깊이 저렴하고 튼튼해서 처음 물생활을 시작할 때 키우기에 좋다. 수질은 20~24°C가 적당하지만, 다양한 수질과 온도에 잘 적응하며 활발한 성격과 강한 생명력을 갖고 있다.



Neon Tetra

네온테트라

아마존강에 서식하는 소형 테트라 열대어로 여러 마리가 모이면 균형하는 습성으로 인해 떼를 지어 다니는 모습이 매우 아름답다. 파란색과 붉은색의 대비가 특징이며, 다른 열대어들과도 잘 어울려 초보자가 키우기에 적합하다.



Sumatra barb

수마트라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섬 출신의 열대어로 보통은 수마트라 바브로 부른다. 성질이 매우 사나운 것으로 유명해 순한 성격의 다른 물고기들과의 합사는 어렵다. 하지만 튼튼하며 잘 자라 초보자에게도 추천한다.



Betta

베타

다양한 종류가 있는 베타는 눈길을 끄는 화려하고 아름다운 지느러미를 갖고 있어 관상어로 인기가 많다. 단독 생활을 좋아해 특별한 장비가 필요 없는 작은 어항에서도 잘 자라는 특징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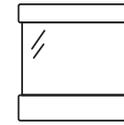


Guppy

구피

‘물생활은 구피로 시작해서 구피로 끝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물생활 초보부터 전문가까지 아우르는 가장 대중적인 관상어로 평가받는다. 형태와 색채가 아름답고 다양한 품종이 있으며, 엄청난 번식력을 갖고 있는 것이 장점이자 단점이다.

아쿠아스케이프를 이루는
요소 및 주의사항



어항(수족관)

물고기의 종류와 수, 수조 스타일 등을 고려해 준비한다. 물고기 특징에 따라 다르지만, 초보자는 2차 (60*35cm) 어항이 좋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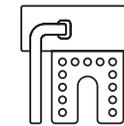
소일 바닥재, 조명, 이산화탄소 발생기

영양분이 함유된 소일 바닥재와 조명은 수초의 성장을 돕고, 식물 생태 환경과 어항 분위기를 조절한다.



돌·나무·식물

실제 자연과 비슷한 환경을 위해 적절한 돌과 나무, 아름다운 수초와 식물이 필요하다.



여과기

물의 흐름을 만들어 물이 고이지 않고, 부패하지 않도록 만들어준다.



모래, 루트 등 다양한 장식

다양한 소재를 활용하여 아쿠아스케이프 디자인을 보 완하고 장식한다.

Tip!

- * 아쿠아스케이프의 첫 번째 목표는 수중 자연환경 재현이다. 환수는 필수이며, pH와 물속 박테리아 조절, 수초 영양분 공급 등 모든 생물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깨끗한 수조환경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 * 아쿠아스케이프로 수중 정원을 만들었다면 2주 정도 기다린 후 물고기를 넣는 것이 좋다. 수조 속 생태 환경이 천천히 안정화되는 과정이 필요하다.
- * 물고기 사료를 줄 때는 5분 안에 물고기들이 다 먹을 정도의 양만 제공한다. 과급 시, 남은 사료가 물속에서 부패해 수질이 깨져 물고기가 죽을 수도 있다.

요즘 감성과
낭만은
과거에서 찾는다

다시 유행하는
레트로 아이템

레트로(Retro)란, 과거의 모양, 제도, 풍습 등으로 돌아가거나 그것을 본보기로 삼아 그대로 좇아 하려는 것을 말한다. 역시 유행은 돌고 도는 법. 요즘 '레트로 아이템'이 우리 사회에 트렌드로 자리 잡았다. 레트로 아이템에는 누군가의 추억이, 누군가의 새로운 재미가 가득하기 때문이다.

Again

Retro





촌스러움에서 힙함으로의 변신

레트로 패션 아이템

상대적으로 MZ세대들이 많이 다닌다는 홍대, 성수 등 서울 거리를 걷다 보면 크롭탑과 로라이즈 팬츠, 자신의 체형보다 2배는 큰 상의와 통 넓은 바지, 미니스커트와 청청패션(청자켓-청바지), 헤어밴드까지 자신의 취향과 개성을 뽐내는 MZ세대들의 패션이 눈에 띈다. 각자의 취향 속에 하나로 통일되는 이 패션은 일명 'Y2K 패션'으로, 2000년대 유행했던 패션 아이템들이다. 요즘 시대와 맞지 않는 감성인 줄만 알았던, 촌스럽게 여기던 1990~2000년 패션 아이템들이 20년이 훌쩍 넘는 지금 부활하기 시작했다. 옛날 것에서 '힙(Hip)'함을 발견하고, MZ세대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이다.

이러한 레트로 패션의 부활을 돕는 데는 유명 아이돌의 역할도 컸다. 인기 걸그룹 에스파, 뉴진스가 각 그룹만의 분위기로 복고적인 뮤직비디오, Y2K 감성 패션을 선보여 많은 MZ세대 팬의 인기를 끌었다. 특히 멤버 모두 2000년대 중후반에 태어나 자신만의 취향과 개성을 중요시하는 젠지(Gen Z)세대를 대표하는 뉴진스가 경험해보지 않은 Y2K 패션과 감성을 자신들만의 스타일로 재해석하며 많은 10·20대들에게 세기말 감성이 자연스레 스며들게 되었다.

Retro

이외에도 빅로고 티셔츠, 힙색, 틸트 선글라스, 젤리슈즈, 굽창밴드, 머핀핀 스타일 또한 레트로 패션 아이템으로 등장한 가운데 MZ세대가 자주 사용하는 온라인 쇼핑몰인 '지그재그'는 레트로 감성이 담긴 플라워 패턴 아이템 거래액이 45배 이상 급증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비대면 생활과 일상에서 억눌림을 받았던 것이 화려한 패턴, 빅로고, 비비드한 컬러 등 Y2K 감성이 가득한 패션으로 표출되고 있으며, 이는 20세기에서 21세기로 넘어가는 갑작스러운 변화에 따른 대중들의 불안한 심리가 개성 있는 Y2K 패션으로 나타난 것과 비슷한 경향이라는 의견이 있다.

아날로그 감성으로 취향 저격한

레트로 음악 아이템

패션과 함께 다시 사랑받고 있는 Y2K 아이템들이 있다. 먼저 필름 카메라. 스마트폰의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자연스럽게 추억으로 사라졌던 필름 카메라가 아날로그 감성을 찾는 이들로 인해 인기 있는 레트로 아이템이 되어 돌아왔다. 조금은 불편하더라도 스마트폰 카메라와는 전혀 다른 필름 카메라만의 빈티지한 감성과 색감으로 여행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필수 준비물이 된 것이다. 관련 업체들도 사람들의 수요를 반영하여 아날로그 감성을 담은 필름 카메라, 캠코더 등으로 활발한 마케팅을 보여주고 있다. 두 번째로 CD플레이어. 라이프스타일 앱 '오늘의 집'에 따르면 지난 5월, CD플레이어 키워드 검색량은 300% 증가했다. 필름 카메라와 마찬가지로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수요가 적어졌던 CD, CD플레이어가 감성 인테리어 아이템 및 레트로 아이템으로 MZ세대의 소비를 끌어낸 것이다. 카세트테이프, CD, LP 등 추억의 물건으로 요즘 아이들의 노래를 듣는 것이 '손민수 하고 싶은(따라 하고 싶은)' MZ세대 사이 핫한 아이템이 되었다.

레트로 문화는
중장년층들에게 과거의
향수와 추억을,
젊은 세대들에게 재미와 새로움,
특별한 경험까지 선물하는
매력적인 문화가 되었다.



한 시대를 풍미했던 애플의 MP3 플레이어인 ‘아이팟 클래식’도 2022년 공식적으로 단종을 발표했지만, 최근 아날로그, 레트로 아이템의 인기로 아이팟 또한 수요가 많아져 중고마켓에서 원가보다 비싼 값으로 리퍼 제품을 구매하는 수요가 늘었다. ‘아이팟+줄 이어폰 감성’이라며 요즘 흔히 쓰는 무선 이어폰이 아닌 줄 이어폰을 사용하는 것이 인기를 끌며 10~20년 전 유행했던 음악 아이템들로 MZ세대 사이에 레트로 열풍이 불고 있다.

추억과 재미, 맛까지 사로잡은

레트로 음식 아이템

요즘엔 정수기를 사용하거나 생수를 사 먹는 경우가 많지만, 어릴 적 냉장고 안에 시원한 보리차를 꺼내먹었던 추억이 있다면 이 레트로 아이템에 마음을 빼앗길 것이다. 그 때 그 시절 보리차 물통으로 유명했던 추억의 ‘델몬트 유리병’이다. 롯데칠성음료에서 추억 속 오렌지 주스인 델몬트 유리병을 기존보다 작은 버전으로 출시했다. 이 또한 레트로 문화의 영향을 받은 것. 델몬트 유리병만의 네모난 디자인과 독특한 그림감, 주스의 맛을 그대로 구현하여 많은 이들에게 향수를 불러일으켜 출시와 동시에 완판의 기록을 세웠다.

또한 롯데웰푸드에서는 1983년 출시한 ‘블루베리껌’을 13년만에 재출시했다. 또 ‘쥬시 후레시’, ‘이브껌’, ‘후레시민트’ 등 ‘부활! 롯데껌’ 캠페인을 통해 과거 인기를 끌었던 껌들을 재출시하며 레트로 시장에 더욱 불을 붙였다. 덕분에 롯데웰푸드 매출은 약 25% 성장하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또 (주)하림은 예스러운 감성을 패키지에 녹인 ‘레트로 닭볶음탕용’ 닭고기 신제품을 출시했으며, 오뚜기와 롯데ON도 40년 전 ‘3분 카레’ 출시 초기 디자인을 그대로 살린 ‘3분 레트로 카레·짜장’을 한정판으로 판매, 2000년대 초 1020에게 인기를 끌었던 ‘한스델리’와 ‘캔모아’는 이마트24와 손잡고 편의점 레트로 음식으로 재탄생했다.

이렇게 레트로 문화는 음악, 식품에까지 영향을 주어 중장년층들에게 과거의 향수와 추억을, 젊은 세대들에게 재미와 새로움, 특별한 경험까지 선물하는 매력적인 문화가 되었다.

레트로, 아날로그 감성으로

모든 세대가 공감하고 소통하다

이러한 레트로 아이템의 유행은 국내뿐만이 아니라 해외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미국 경제전문지 ‘포춘’에 따르면 최근 미국, 영국 등 Z세대의 소비 양상이 레코드 음반, CD, 실물 책 등 아날로그 형태로 급격하게 증가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마찬가지로 해외의 젊은 세대들에게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때 그 시절의 아날로그, 레트로 감성이 요즘 통하는 감성으로, 힙한 문화로, 재밌고 새로운 개성으로 통하는 것이다.



Agoin

어떤 점이 MZ세대에게 과거의 유행을 따르게 만드는 것일까? 지난 8월, 국내에서 개봉한 영화 <빅토리>는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90년대 세기말 감성을 가득 담은 레트로 소품들과 1999년 자유롭고 개성 넘치는 당시 사람들의 스토리를 담아 부모와 자녀 모두 함께 재밌게 즐길 수 있는 영화로 개봉 전부터 사람들의 눈길을 끌었다. 이렇듯 예능·드라마·영화 등 전문가들은 미디어를 활발하게 이용하는 현세대의 특징으로 인해 각 분야의 레트로 아이템들이 특히 MZ세대에게 큰 파급력을 일으켰다고 이야기한다. 다양한 분야에서 성공을 거두고 있는 아날로그 감성과 레트로 아이템. 20년 전, 젊은 시절 부모님의 패션과 물건이 현재 자녀들의 취향을 저격하며, 색다르고 개성 있는 문화로 자리 잡고 있다. 어쩌면 이러한 레트로 아이템이 세대 간의 차이를 좁히고, 공감하게 하며, 서로를 더욱 이해하는 매개체로 발전되는 좋은 시작점이 아닐까?

참고

- 2000년대 대학가 휩쓴 그때 그 브랜드, 레트로 열풍 타고 편의점 들어왔다, 조선일보, 2023.06.12.
- “레트로 계속간다”...플라워 패턴 아이템 거래액 45배 이상 급증, 이데일리, 2024.05.22.
- ‘레트로 감성’ Z세대 덕에 ‘아날로그 경제’ 다시 뜬다, 글로벌비즈, 2024.07.07.
- Y2K패션·필름카메라·이브껌...레트로엔 ‘추억’과 ‘재미’ 녹아있다, 국민일보, 2024.07.22.
- Y2K도 힙하게...뉴진스의 ‘세기말’ 스타일링, 한국일보, 2024.08.11.

알고리즘에 잠식되지 않도록

조현서의 <Feed : Dam>

「IBK 아트 스테이션 2024」의 두 번째 전시인 조현서의 <인시티그램>이 지난 8월 12일 개막했다. 기술 진보와 이에 대한 호기심을 창작 매개로 활용하는 조현서. 그의 포부와 과감함이 돋보이는 대형설치 작품 <Feed : Dam>이 IBK기업은행 본점 로비에 색다른 활력을 불어오고 있다.



Q __ 안녕하세요. 인터뷰에 앞서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A __ 안녕하세요. 설치 미술과 미디어아트를 하는 작가 조현서입니다. 우수 신진작가를 발굴하고 지원하는 「IBK 아트 스테이션 2024」 두 번째 작가로 선정되어 무척 감사한 마음입니다. <인시티그램>은 처음부터 큰 규모를 상상하며 제작한 작업인데 IBK기업은행 덕분에 많은 분들에게 보여드릴 수 있어 설레고 기쁩니다.

Q __ 전시 제목이 <인시티그램>입니다. 이번 전시와 전시 작품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A __ <인시티그램>은 현대인이 가장 애용하는 SNS 중 하나인 인스타그램(Instagram)과 도시(City)를 합친 말입니다. 빌딩숲으로 이루어진 도시 풍경과 폭포처럼 쏟아지는 피드 풍경을 은유한 것으로, 이번 전시를 통해 디지털 플랫폼을 바탕으로 계속해서 생산 및 소비되는 이미지의 풍경을 도시인의 삶에 빗대어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더 자세히 설명하면 이번 작품은 인스타그램의 어떤 플로우(flow)와 풍경을 보고 그 데이터를 그대로 출력해 물리적인 풍경을 만든 작업이었습니다. 모바일 환경에서는 데이터가 소비되는 순간 흔적이 소멸하기에 우리는 피드의 흔적을 잘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소비의 흔적을 영수증이라는 매체로 기록하고, 그것이 쌓여 거대한 풍경이 된다면 관람객에게 새롭게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만든 작품입니다.

「IBK 아트 스테이션 2024」에서 선보인 작품은 <Feed : Dam>으로, 인공지능을 활용해 피드 속 이미지를 제어(변형)해보는 작품입니다. 인공지능에 의해 변형된 이미지를 영수증에 출력했을 때, 하나의 폭포처럼 보여 댐을 활용해 작품을 만들어봤습니다.

Q __ 작품을 통해 어떤 의미를 전달하고 싶으셨나요?

A __ 피드 속 이미지를 참고해 새로운 이미지를 뽑아내는 것은 SNS뿐만 아니라 SNS를 이용하는 사람

들의 모습과도 닮아있다고 생각해요. 포스팅 속 다른 사람의 이미지를 학습 및 소비하고, 이로써 자기 이미지를 인스타그램에 다시 생성하는 과정들 말이죠. 때문에 SNS가 운영되는 시스템을 최대한 유사하게 구현하고자 했습니다. 작품을 보시면 특정 값을 넣거나 특정 알고리즘을 통해 이미지 변형을 의도하는데, 이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을 똑같이 구현하기 위한 단계입니다. 이제 거기에 변수를 넣어보면서 우리가 지금 가질 수 있는 가능성들은 무엇인가 질문해보고, 또 실험해 보는 과정이라 보시면 작품 해석에 도움이 되실 거예요.

Q __ 대중에게 어떤 작가로 남고 싶으신가요?

A __ 관람객들에게 조금 더 넓은 세상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천편일률적인 방법이 아닌 새로운 가능성과 상상할 기회를 제공해 더 다채로운 삶으로 나아가는데 기여하는 작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Q __ 전시를 감상한 IBK기업은행 직원과 관람객에게 전하고 싶은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A __ 어떤 거래를 하다가 영수증이 계속 뿔뿔 나오는 걸 보고 영감을 얻어 시작한 작업입니다. 행원들께서는 아마 거래나 돈의 흐름, 그리고 소비, 유통에 관한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실 것 같은데요. 그런 흐름이 쌓였을 때, 작품과 같은 물리적 풍경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IBK 아트 스테이션 2024」의 두 번째 주자, 조현서 작가가 이번 전시를 계기로 더욱 성장하여, 한국 현대미술의 대표하는 젊은 작가로 거듭나기를 바란다. 조현서 작가의 개인전 <인시티그램>은 IBK기업은행 본점 로비에서 9월 6일까지 만나볼 수 있다.

IBK기업은행이 맺어준 사랑, 오래오래 행복하게



사랑과 일, 두 마리 토끼를 잡은 이들이 있으니 바로 IBK기업은행 제1호 글로벌 커플, 박형주 차장과 야오천페이 과장이다. 이 둘은 지난 8월 10일, 동료에서 이제는 평생의 고락을 함께할 부부가 될 것을 맹세했다.

지난 8월 10일, IBK기업은행 본점 대강당에서 IBK기업은행 제1호 글로벌 커플이 탄생했다. 이날의 주인공은 광명역지점 박형주 차장과 청다오분행 야오천페이 과장으로, 해당 커플은 지난 2020년 8월, 중국 청다오에서 처음 만나 오랜 기간 인연을 쌓아온 사이이다. 박형주 차장이 중국지점으로 발령받으면서 만난 두 사람은 동료로 지내다가 연인 관계로 발전하여 1년여 간의 연애 끝에 지난 8월 10일 백년가약을 약속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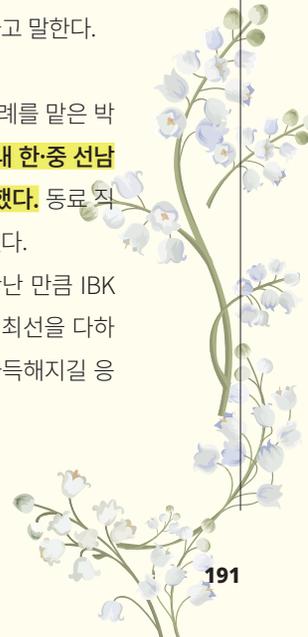
박형주 차장은 청다오 첫 방문 당시, 서무 담당으로 현지 가이드 역할을 맡은 야오천페이 과장과 많은 소통을 했으며, 현지 업무와 중국 현지 생활에 적응하는 동안 많은 의지를 했다고 한다.

현지에 있을 당시에는 동료로서 서로를 대했지만, 한국으로 복귀한 박형주 차장이 먼저, 자신의 마음을 깨닫고 자신의 마음을 야오천페이 과장에게 고백, 지난해 여름 두 사람은 본격적인 교제를 시작하게 됐다. 한국과 중국 해외 장거리 커플로, 만남에 있어 큰 제약이 많았을 것 같지만 거리는 이들의 걸림돌이 되지 않았다. 오히려 서로를 더 애뜻하게 만들었고, 서로에 대한 애정을 아낌없이 표현하는 요소가 됐다.

사내 커플이자 제1호 글로벌 커플인 두 사람은 업무에 대한 고민뿐만 아니라 근무 지점 및 업무가 달라 고민을 나누는 과정에서 업무 능력이 확장되는 장점이 있다고 말한다.

한편, IBK기업은행에서도 첫 글로벌 부부의 탄생을 축하하는 분위기다. 주례를 맡은 박봉규 경영지원그룹장은 **“IBK기업은행이라는 오작교를 건너 최초로 은행 내 한-중 선남선녀의 결혼이 성사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두 사람의 앞날을 축복했다. 동료 직원들도 두 남녀의 결혼이 조직 분위기를 활기차게 만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형주 차장과 야오천페이 과장은 IBK기업은행을 통해 소중한 인연을 만난 만큼 IBK기업은행과의 인연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회사 생활과 결혼생활 모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들의 다짐처럼 두 사람의 앞날에 지금과 같은 행복이 가득해지길 응원한다.



01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에 장학금 전달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학업에 매진하고 있는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 675명에게 장학금 13억 1천만 원을 전달했다. 장학생으로 선발된 대학생들은 향후 소외계층 아동들에게 경제교육 봉사활동을 하는 'IBK기업은행 대학생 봉사단'에 참여해 나눔을 이어갈 예정이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꿈을 향해 나아가는 학생들에게 작은 보탬이 되길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중소기업 근로자를 꾸준히 지원하는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기업은행은 중소기업 근로자의 복지향상을 위해 2006년 IBK행복나눔재단을 설립한 후, 지금까지 총 815억 원의 재원을 출연했다.



02

'2024 파리올림픽' 활약 사격단 환영 행사 개최

'2024 파리올림픽' 사격 10m 공기권총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오예진 선수와 25m 속사권총에 출전한 송종호 선수를 초청해 축하하는 시간을 가졌다. 오예진 선수는 지난 7월 28일 여자 사격 10m 공기권총 결선에 진출해 압도적인 기량을 선보이며 올림픽 결선 신기록으로 금메달을 따냈다. 오예진 선수의 금메달은 여자 공기권총 10m 대한민국 최초의 금메달이다. 이날 행사에서 김성태 은행장은 오예진, 송종호 선수에게 포상금과 함께 격려품을 전달하며 “앞으로도 우리 IBK사격단 선수들이 대한민국을 대표해 국제대회에서 우수한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지원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03

IBK사격단 금메달 획득 기념 이벤트 실시

IBK사격단 소속 오예진 선수의 '2024 파리올림픽' 금메달 획득을 기념해 '예진이가 금일봉 씹니다' 이벤트를 실시했다. 이번 이벤트는 기업은행 개인 체크·신용카드 회원 중 오예진 선수의 출생 연도인 2005년 출생자이면서, 월평균 이용 금액 10만 원 미만 고객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벤트다. 혜택은 이벤트 기간 내 10만 원 이상 사용 시 1만 원 청구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오예진 선수가 여자 10m 공기권총 종목에서 대한민국 최초의 올림픽 금메달을 획득해 매우 기쁘다”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혜택을 통해 고객들과 함께 이 기쁨을 나눌 것”이라고 밝혔다.



04

'IBK 모두다 아트캠프 2024' 성료

다문화가정 자녀와 함께하는 'IBK 모두다 아트캠프 2024'(이하 아트캠프)가 지난달 12일부터 14일까지 IBK충주연수원에서 열렸다. 올해 처음 개최된 아트캠프는 다문화가정 자녀에게 다채로운 문화예술적 경험을 제공하고 사회의 소속감을 고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국에서 150여 명의 초등학생이 참가했으며 지방에 소재한 다문화센터 등의 기관 참여로 절반 이상을 비수도권에서 모집했다. 문화예술 프로그램은 메인프로그램(난타), 미술체험, 공연관람 등으로 다채롭게 구성했다. 평소 문화예술 체험 기회가 적었던 다문화가정 학생들은 이번 캠프를 통해 다문화 감수성을 향상하고 사회적 소속감을 강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05

'서울 핀테크 워크 데모데이' 참여기업 모집

오는 10월 7일 개최 예정인 '2024 서울 핀테크 워크 데모데이 with IBK기업은행'에 참여할 핀테크 기업을 모집한다. 이번 행사는 우수한 핀테크 기업을 발굴 및 홍보하고 성장 가능성을 보유한 핀테크 기업의 투자 자금 조달 지원을 위한 것으로 창업 7년 이내 핀테크 기업, 후속 투자유치 단계가 'Pre A' 또는 'Series A'라면 누구나 지원을 할 수 있다. 참여 신청은 8월 19일부터 9월 8일까지 스타트업플러스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2개 기업에게는 서울핀테크랩 입주(대상, 최대 3년), 서울핀테크랩 멤버십 혜택(인기상, 최대 1년) 등이 주어진다.



06

'페이고스' 신규 가입 이벤트 진행

해외 전자상거래 수출대금 정산 서비스인 '페이고스' 이용 기업을 대상으로 '전자상거래 해외 Ro(路)! 이벤트'를 오는 12월 31일까지 실시한다. '페이고스'는 아마존에 입점하거나 자사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기업의 해외 판매대금 정산을 지원하는 플랫폼이다. 정산 절차가 편리하고 각종 비용을 절약할 수 있어 많은 해외 전자상거래 수출기업들이 이용하고 있다. 이벤트는 2024년 페이고스 서비스 신규 가입 기업과 2024년 온라인 마켓 정산 실적 발생 기업에 주요 통화 환율 80% 우대 등 여러 혜택을 제공한다. 이벤트 관련 자세한 내용은 기업은행 및 페이고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IBK EVENT

다른 그림 찾기

기억력과 집중력을 높이는 다른 그림 찾기!
우리의 뇌를 깨워볼까요?



위의 두 이미지에서 서로 다른 5곳을 찾아보세요.
랜덤 추첨을 통해 선정된 5분께는 스타벅스 아메리카노를 드려요!



참여 기간 2024년 9월 2일~9월 20일
참여 방법 QR코드로 로그인해 다른 곳을 표시한 사진과 개인 정보 전송 혹은 제일 뒷장에 있는 엽서에 적어서 발송
당첨자 발표 2024년 9월 25일

다른 그림 찾기 당첨자 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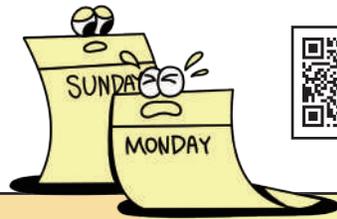
전○혁 (1**1) 이○옥 (3**5) 박○지 (3**2)
육○진 (7**4) 공○근 (0**9)

**당첨되신 분들
축하합니다!**



<with IBK> '표지 캐릭터' 4개를 찾아라!

다른 그림 찾기보다 숨은 그림 찾기에 자신 있는 분은
아래 QR코드를 통해 이벤트에 응모해주세요.



참여 기간 : 2024년 9월 2일~9월 20일

참여 방법 : 왼쪽 QR코드로 촬영 사진 전송

당첨자 발표 : 2024년 9월 25일

<with IBK> 에서 '표지 캐릭터' 4개를 찾아라!

IBK기업은행의 매거진 <with IBK>는
호별 다양한 이야기로 독자분들을 찾아갑니다.
올해는 표지에 개성 넘치는 독특한 캐릭터들로 이야기를 꾸몄습니다.
<with IBK> 9월호 속에 숨어 있는 '표지 캐릭터'를 발견해보세요!
추첨을 통해 10분에게 스타벅스 아메리카노를 드립니다.
(힌트: 정답 4곳_표지 및 해당 페이지 제외)

참여방법

- STEP1. <with IBK>에 숨어 있는 표지 캐릭터를 찾아주세요!
(총 4곳, 표지 및 해당 페이지 제외)
- STEP2. 캐릭터를 찾은 후 카메라로 촬영해주세요.
- STEP3. 상단 QR코드 접속 후, 사진을 업로드해주세요.



뒷면에 맛있는
험 옷도 새 옷처럼! 얼룩 제거 꿀팁이
숨어 있습니다.

한 사람의 내면에 용기가 자라나기까진
무수한 시행착오와 다짐이 필요합니다.

이 시행착오를 조금 더
유연하게 넘을 수 있는 방법은
누군가와 함께 나누고, 공유하는 것뿐.

**똑같은 양더라도 함께 만들어 간 공간에는
'우리'로 보냈던 시간들이 쌓여
사랑과 용기를 넘쳐나게 할 것입니다.**

헌 옷도 새 옷처럼! 얼룩 제거 꿀팁 모음

아끼는 옷을 입은 날엔 유독 ‘머피의 법칙’이 자주 일어납니다. 화장품부터 음식까지, 아무리 조심해도 피할 수 없는 얼룩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얼룩을 효과적으로 지우는 방법들입니다.

정리 편집실



커피

1. 화장지를 따뜻한 물에 적서 얼룩 부위에 올려준다.
2. 당분이 포함되지 않은 탄산수를 수건에 적서 얼룩 부위를 닦아준다.
3. 뜨거운 물수건으로 얼룩을 한 번 더 닦아준다.

Tip 화장지를 이용할 때, 화장지 가루가 옷에 달라 붙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김치

1. 옷을 물에 담근 후, 칫솔에 락스를 묻혀 오염 부위에 발라준다.
2. 얼룩이 조금 얼어지면 양파즙을 뿌린다.
3. 2~3시간 뒤 흐르는 물에 가볍게 씻어낸다.

Tip 김치국물이 묻은 직후, 주방용 세제로 바로 손빨래하면 얼룩을 제거할 수 있다.



파운데이션

1. 화장 솜에 알코올이 함유된 스킨을 적혀준다.
2. 얼룩을 충분히 젖은 화장 솜으로 톡톡 두드려준다.
3. 그래도 지워지지 않는다면 클렌징폼으로 손빨래 한다.

Tip 옷에 묻은 파운데이션을 물로 씻게 되면, 얼룩이 번져 깨끗하게 지워지지 않는다.



볼펜

1. 오염 부위에 물파스를 톡톡 두드려준다.
2. 볼펜 자국이 번지기 시작하면 키친타월로 닦아낸다.
3. 키친타월로 닦은 후, 미온수로 빠르게 헹궈낸다.

Tip 볼펜 자국이 뒤틀면까지 번질 수 있으니 셔츠 뒷부분에 키친타월을 받쳐준다.



기름때

1. 얼룩 위에 주방세제를 뿌리고 손으로 비벼 초벌 세탁한다.
2. 이후 옷감을 소금물에 30분간 담가둔다.
3. 세탁기 세제 통에 식초를 한 큰술 넣은 후, 평소 세탁법대로 빨래한다.

Tip 묻은 지 얼마 안 된 기름때일 경우, 콜라 1컵을 뿌려주면 가볍게 지워진다.



카레

1. 비눗물에 적신 물티슈로 카레 얼룩을 두드린다.
2. 깨끗한 헝겊에 과산화수소를 적신 후 남은 기름때를 닦아낸다.
3. 미지근한 물에 가볍게 헹궈낸다.

Tip 얼룩의 범위가 넓을 땐 산소 표백제인 ‘과탄산소다’를 이용하면, 얼룩이 말끔해진다.

기업은행의 가치성장 프로젝트

IBK UP TOGETHER

IBK기업은행은 다문화 가족을 위해
언어부터 생계, 취업, 예술까지
응원에 응원을 더하겠습니다

더 많은 가족들의 문화가
이 땅에 안정적으로 뿌리 내릴 수 있도록

IBK기업은행의
**CHEER
UP**

언어는 달라도
응원하는 마음은 전해지니까

자립을 위한 역량개발 지원
[자격증 교육 아카데미]

최소한의 생계를 위한
[기초생활 지원]

문화예술 향유 지원 프로그램
[IBK 모두 다 콘서트]

